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생명살림이
곧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14·15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 〈증일아함경〉

체험이 없다면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많이 세어도
자기의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이.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3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39호 2013년 5월 8일 수요일

불교, 금석문 조사 새 장 연다

조계종 중앙불교博, 금석문 전국 일제 조사

금속과 돌에 새긴 명문을 통칭하는 금석문(金石文)은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편린으로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불교계가 전국 산재한 금석문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원학)은 4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재청 학술용역사업을 수주받아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5년 간 매년 20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이번 조사 사업은 소실 위험이 있는 금석문의 원형 탁본 자료를 채탁해 명문을 영구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국 산

문화재청 용역 사업 수주
15년 진행 장기 프로젝트
올해는 기초 목록화 작업
추후 탁본 통한 보존 추진

재된 금석문에 대한 기초 목록화 조사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석문 자료를 비교 · 정리해 탁본 대상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교중앙박물관은 금석문 사료의 중요도와 인멸 가능성, 보존 상태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되지 않은 중요 금석문들을 발굴해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사업은 사찰이나 사지뿐만 아니라 모든 금석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탁본 사업이후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사업에 해당된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은 책임연구원과 실무진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전국 50여 곳의 현장조사를 통해 현 금석문 유물의 보존 상태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사업에 대해 불교중앙박물관장 원학 스님은 "전국에 산재한 금석문 자료를 집대성해 탁본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훼손돼 가는 금석문 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서 "이번 기초 목록화 작업으로 금석문 사료의 보존등급을 만들어 연차별 현장 조사 및 탁본 조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조선시대 불교의 금석문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됐다."며 "탁본 사업을 통해 금석문을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 물려주겠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날마다 좋은날은 4월 28일 서울 우정국로 특설무대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 알림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캠페인 기부 모금함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서 기부 시연하고 있는 모습.

'행복 바람' 행복 바라미 시작 알리다

날마다 좋은날, 28일 선포식… 카드 기부 홍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 정신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 바라미'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4월 28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 특설공간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 알림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치사를 통해 '행복 바라미' 캠페인이 기부 문화 활성화의 새 장을 열길 기원했다.

스님은 "세상의 변화는 작은 몸짓과 발걸음부터 시작된다"며 "당장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행복 바라미' 캠페인 취지를 격려했다.

이기흥 (사)날마다 좋은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자를 떠나 모두 행복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캠페인을 통해 희망과 행복의 바람이 불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복 바라미' 캠페인은 이번 알림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2일까지 전국 16개 시, 도 108개소에서 모금함이 설치돼 사회공헌기금을 모연한다. 또한 108개 모금함에는 카드단말기가 내장돼 카드 기부 문화의 확산과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카드 단말기를 통한 기부는 1회 3000원이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다음주 부처님오신날 봉축 특집호(제940호, 5월 15일자)는 연등축제 보도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재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후원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본지와 포교원의 공동캠페인을 통해 안동청소년문화센터에 불서를 지정 기탁했습니다. 또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등 일선 사찰과 단체에서도 십시일반 동참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



선혜 스님
법륜왕사 주지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

어린이 불서를 법공양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국제 불교인들 한반도 평화 촉구

개성 공단 폐쇄 등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국제 불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휴) 등 11개국 불교인과 단체들은 4월 30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불교인들의 호소'라는 제하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국은 60년 전 남북 간의 전쟁으로 5백만 명이 희생되고 온 국토가 파괴됐다"며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은 분단국에서 다시 전쟁의 참극이 재현된다면 그것은 남북한뿐만 아닌 온 세계인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제 불교인들은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비롯해 북한 군사력 증강과 핵개발 중단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미국 등 주변국들의 책임도 강조했다.

또한 "남과 북은 적이 아니다. 전쟁이야말로 남과 북, 나아가 지구촌 모두의 진정한 적"이라며 "폭력과 유혈의 비극을 가져올 전쟁위험을 남북한 정부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잘 헤쳐가기를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신중일 기자

대행선사 1주기 추모다례재

5월 10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서산정서 부도탑 제막식

스님 일상 담은 사진전도



묘공당(妙空堂) 대행 선사〈사진〉의 1주기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이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봉행된다.

다례재는 종사영반(宗師靈飯), 헌다, 헌향, 추모 편지글 낭독, 추모곡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되며, 부도탑 조성 관련 내용 영상 상영 및 법문 상영이 이어진다.

이후 지난 해 5월 26일 대행 스님의 다비식을 치렀던 서산정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된다. 제막식은 삼귀의, 제막의식, 부도탑 제막, 헌화, 선법가 공양,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된다.

한마음선원은 "1주기 추모재 행사는 안으로는 대행스님 가르침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실천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밖으로는 한마음의 광대무변한 가르침과 스님의 행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승단과 신도회가 동참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주기 행사의 핵심은 부도탑 제막식이다. 부도탑 정식 명칭은 '묘공당 대행선사 탑'이며 부제는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이다.

한마음선원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행장을 상징하되, 탑 자체가 형상만이 아닌 무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거치고 마음을 모아 탑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B1면

한편 한마음선원은 추모행사에 맞춰 5월 15일까지 서산정에서 사진전도 개최한다.

마지막 여생을 서산정에서 보낸 대행 스님의 일상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선원은 5월 15일 안양본원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 사시 예불 후 서산정 부도탑을 참배한다.

한마음선원은 "매년 스승의 날 본원과 전국 지원 승단과 재가신도들이 대행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던 뜻을 이어, 승속 제자들이 개개인의 정성을 담은 꽃을 부도탑 앞에 헌화하고 선법가 공양을 올리면서 스승님의 깊고 큰 가르침을 되새기며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939호 INDEX

종합 A2·3
케냐 만해초등학교 기공식
성철 스님 친필 유시 진품 회수
첫 염불원인 봉선사염불원 개원
조계종 교구종회 재가자 참여 제안
틱낫한 스님 방한

시방세계 A5
양주 회암사 삼대회상 문화제



학술 · 문화재 A8
불문연 전국사지 발굴 조사

대행 선사 1주기 추모 특집 B1~4

선물하기 좋은 책 1위!

"아름다운 마음보시, 책으로 나누세요."

최단 기간 200만 부 베스트셀러 등극! (비소설 분야)

"사랑하는 이의 소중한 인생에 선물해 주세요."

용기를 주고 싶을 때,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선물한 책 1위! 200만 독자의 선택!

200만 부 돌파 기념 1+1 증정 이벤트!

지금 구매하시는 분께 혜민 스님의 '친필 메시지 그림 카드'를 드립니다.(1세트 3장, 한정수량)





〈월스트리트저널〉이 극찬한 '영혼의 멘토'!
'차세대 리더 300인'으로 선정된 혜민스님의 인생 잠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 이영철 그림 | 값 14,000원



정목 스님이 마음으로 추천하는 책!

"따뜻한 체온으로 읽는 이의 가슴을 적셔놓는 이 책은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친구의 손길 같습니다." –정목

마음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힐링이 있는 북콘서트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 스님이 읽어주는 《나의 치유는 너다》

일시 : 2013년 5월 22일(수) 저녁 7시 40분~9시 40분
장소 : 목동 KT 체임버홀
문의 : 031-960-4845~6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나의 치유는 너다

김재진 지음 | 값 14,000원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공성의 세계에서

순수자각의 창을 휘둘러라.

그 견해는 어떤 것도 걸림이 없는 창이니라.

당신의 견해는 하늘만큼이나 높고 광대할 것입니다. '순수자각' 이 마음이 비어 있는 본성 속에 한 번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나쁜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장식이 됩니다. 견해의 체득, 이 변함없는 상태는 무언가 존재한다거나 남아 있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은 생각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노인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듯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은 순수의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 검을 휘드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은 순수자각의 장난입니다. 순수의식을 깨닫는 것은 생각이 일어는 곳이 실은 생각이 생겨나고 남아 있다가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생각은 더 이상 마음의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쫓아갈 때 마치 강아지가 막대기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막대기를 던질 때마다 그것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게되면 각각의 생각들이 깨어 있음이라는 공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사자처럼 막대기를 쫓아가기보다 막대기를 던진 이를 향해 돌아서지요. 막대기를 던지 바로 그 사람에게요.

창조된 것이 아닌 '마음의 본성' 이란 요새를 차지하려면 생각의 근원과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망상을 키우는 대신, 공성을 깨닫는다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각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깨달은 공성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만해, 아프리카 학교로 '우뚝'

월주 스님, 만해대상 상금 기부해 케냐에 학교 건립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이 상금을 기부 제 3세계 지구촌 이웃 돕기를 이어나가 눈길을 끈다. 지구촌 공생회는 4월 30일 케냐 남부 카지아도 지역의 올마피테트 마을에서 '만해 초등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구촌 공생회는 4월 30일 케냐 남부 카지아도 지역의 올마피테트 마을에서 '만해 초등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통학만 3시간 걸리는 오지

인재 양성 위해 건립 발원

민세상 상금도 모두 기부해

농업 저수지 만들어 '귀감'

월주 스님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이 하루 3시간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오가고 있다. 이 길은 야생동물이 지나다녀 위험한 지역이다. 근처에 있는 학교를 마음 편하게 다니며 케냐를 이끌어갈 인재로 커가기를 바란다"전했다.

월주 스님은 마사이족 약 260가구가 살고 있는 올마피테트 마을 학생들을 위해 지난 2012년 16회 만해대상 수상 상금 5000만원을 초등학교 건립 기금으로 내놓았다. 이번에 세워질 학교는 교실 9칸과 교무실, 화장실 등을 갖추었다. 총비용 1억 2000만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얻었다.

한편, 월주 스님은 4월 29일 카지아도 지역 인키니 마을의 농장에서 건립한 민세지(池) 명판식도 거행했다. 이 또한 민족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을 기리기 위한 상인 제1회 민세상 수상금 2천만원을 스님이 희사한 것으로 민세지는 여기서 따온 이름이다.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농사를 짓고 사는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장소다. 민세지는 가로세로 각 40m, 깊이 5.5m로 물이 가득 차면 약 8800t에 이른다.

이밖에도 지구촌 공생회는 이번 케냐 방문 일정 동안 엔요뇨르 영화 초등하교 운영 상황 검토와 도서관 명판식을 진행했고, 올레나라우 핸드펌프를 점검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성철 스님 친필 유시 진품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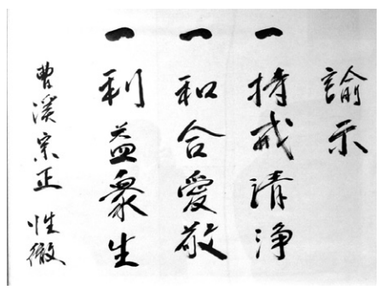
서울경찰청, 절도 혐의자 검거
18년만에 회수…처벌 수위 낮아
지난해 경매…진위논란 '덜미'

2012년 3월 한 미술경매회사에 조계종 6대 종정 성철 스님의 친필 유시라는 기록물 한 점이 미술품 경매에 올라왔다. 불교계 안팎으로 진위 논란이 있었지만, 이 유시는 결국 2100만원이라는 고가에 낙찰이 됐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친필 유시가 도난품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친필 유시도 진품임이 확인됐다.

서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철 스님이 조계종 6대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유시를 절취해 유통한 피의자 이 모씨 등 2명을 절도 등의 혐의 검거하고 피해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성철 스님이 1994년 11월 4일 열반한 이듬해 1월 '우리시대의 부처 성철 스님' 이라는 책자 발행을 위한 유품촬영을 의뢰받은 이 모씨는 이를 촬영하고 유시만을 빼돌려 절취했다.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자 미술품경매회사 마이아트옥션의 실질 운영자인 공 모씨에게 찾아가 1000만 원에 유시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 모씨는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매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6대 종정이자 근현대 대표 선지식 성철 스님의 친필 유서. 유품 도록 촬영 당시 보조 사진사가 의도적으로 절취해 가지고 있다가 경매 전문회사에 1천만원을 주고 넘겼다. 두 피의자 모두 절도와 장물 취득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유시를 절취한 이 모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근거가 없으며, 고의로 유시를 취득한 공 모씨는 벌금형정도로 처벌될 전망이다.

이번에 회수된 유시는 성철 스님이 1981년 조계종 6대 종정에 취임하면서 친필로 내린 조계종의 기록유산으로, 취임 당시 스님은 두 점을 작성해 한 점은 총무원에, 다른 한 점은 백련암에 두었다. 그러나 총무원으로 보낸 유시 원본은 행방을 알 수 없어 현재는 회수된 유시가 유일한 진품 원본이다.

18년만에 은사 성철 스님의 친필 유시 원본을 찾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유시가 잘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스님을 선양하는 사람으로서 종도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유시를 잘 모시고 올 것이며, 향후 유품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현대 선지식들의 기록물을 포함한 불교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환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라고 하면 오래되고 희귀성이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근현대 중요 인물에 대한 유품, 유적 등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삼장·염불원 첫 사례
봉선사염불원 문 연다

조계종 교육원, 지정 승인

지난 4월 공포된 삼장원·염불원법에 근거한 첫 수행기관이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에 처음으로 지정 승인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2일 제135차 교육원 회의를 열고 봉선사에서 운영할 '봉선사염불원' 설립을 공식 승인했다.

올해 하안거부터 운영될 '봉선사 염불원' 은 삼장원·염불원법과 시행령 의거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정토삼부경과 〈반주삼매경〉등 정토사상의 근본이 되는 경전을 연찬하게 된다. 또한 참법수행과 염불선 등도 함께 병행된다.

'봉선사 염불원' 에 입방해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은 2013년 전국 사찰 결계록에 등재돼 안거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번 지정에 대해 봉선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내려오던 만일염불회 전통을 복원하겠다"며 "안거 기간동안 공양의례, 참회의례, 송경의례, 참선의례 등을 실시해 염불행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염불공동체 수행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교구종회 內
재가자 참여 제안

조계종 쇄신위 8차 회의서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이하 쇄신위)가 교구종회에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하는 '교구종회 개선을 위한 제안서' 를 채택했다.

쇄신위는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교구종회 개선을 위한 제안서 의결의 건' 등을 논의하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쇄신위원 35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쇄신위가 제안한 '교구종회 개선안' 은 교구종회에 재가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구종회는 본사주지, 부주지, 직전 전임 본사주지, 교육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20% 정도의 비구니스님, 관할 교구신도회장을 비롯한 10% 정도의 재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쇄신위는 교구종회가 교구 집행부의 견제와 협조는 물론 지역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것도 주문했다.

신중일 기자

인덕스님의 공진보원

5월 가정의달 부모님 선물용으로 최고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들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10세트 이상 대량주문시 **특별우대** 합니다. 상담연락 주세요.

인덕스님의 공진보원은 그 동안 인터넷카페로만 신도분들과 조금씩 만들어 나누던 공진보원을 이번에 한아바이오텍과 제휴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상의 재료와 정성과 마음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인덕 합장

구입문의 및 상담전화 : **070-7374-4650**

농협 : 302-0496-4978-41 한아바이오텍



내용량 250g(5g×50환) **₩ 250,000원**

제조원 : 한아바이오텍(부산 진구 제 353호)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
•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 교환, 환불 및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재료 : 녹용상대(러시아) 15.1%, 당귀(국산) 15.1%, 산수유(국산) 15.1%, 홍삼(국산) 7.5%, 숙지황(국산), 사인(중국산), 오미자(국산), 꿀(국산), 침향(인도네시아산)

"마음 속 '화' 다스려야 평화가 온다"

틱낫한 스님, 2일 기자회견… 방한 일정 시작

"마음 속 화를 다스려야 진정한 화합이 이뤄집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고통을 떠내놓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합니다."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평화 운동가이자 수행자 틱낙한 스님. 그가 가장 먼저 한국인에게 강조한 것은 '화'였다. 마음의 '화'를 다스려야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5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틱낫한 스님은 "불교 안에는 이미 고통의 치유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며 "이러한 불교정신을 잘 살린다면 세상과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틱낙한 스님은 현재 남북경색 국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사회 곳곳의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때 자연스럽게 북한을 보듬는 남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심어린 남한의 노력은 결국 북한에도 전해 질 것"이라며 "남한이 먼저 스스로 내부갈등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통 치유 방법 불교에 있어
남북 문제, 남한의 정성 필요
자살, 일시적 감정…나를 봐야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청년 실업과 자살에 대해서는 "좌절 등과 같은 일시적인 감정은 나 자체보다 결코 크지 않다"며 "스스로 화를 돌아보고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5월 3~7일 평창 월정사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법문과 함께 마음챙김 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했다. 〈차주 상보〉

또 8~9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승가를 위한 1박 2일 명상 프로그램', 12일 서울 동국대에서 '마음챙김 수행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0일 부산 범어사에서 '평화는 가능하다'를,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멈춤 그리고 치유'를 주제로 대중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틱낫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서 틱낫한 스님은 "방한 전 태국에서 여야 정당 지도자들과 호흡관 수행을 함께 하며 평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할 것을 다짐하고 왔다"며 "불교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틱낫한 스님이 5월 2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선물하고 있다.

글= 노덕현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3주년 맞은 전법단, 세계로 발 뻗다

4월 30일 기념법회… 국제 · 어린이청소년전법단 출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전법단 3주년 기념법회 및 국제전법단 · 어린이청소년전법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법단장 계성 스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전법에 매진한 전법단이 새롭게 되는 기로에 섰다"며 "환희와 감동의 포교를 위해 더욱 굳건하게 전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법단장 계성 스님은 "3년이면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라며 "힘들지만 전법단이 뛰고, 또 훨훨 날 수 있을때까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국제전법단 단장에 임명된 수암 스님은 "부처님 법에는 국경이 없다"며 "세계 각지에서 국제전법단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전법단 단장 성행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전법단 뿐만 아니라 모든 스님들의 몫"이라며 "어린이청소년포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법단 3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장애인전법단 캄보디아 해외성지순례 고불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기념법회에서는 불자가수 이창환 씨, 아이돌 그룹 트렌디 등의 공연이 신명나게 펼쳐져 큰 호응을 받았다.



전법단 3주년 기념법회에서는 30여명의 장애인 불자들이 해외성지순례를 부처님께 고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네팔서 온 '평화의 불' 한반도를 비추다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5월 2일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안철수 국회의원, 박보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이홍구 한국적십자 총재를 비롯해 108산사 순례기도회원, 도선사 대중 등 1만 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네팔 룸비니 평화의 불 한국 이운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를 주제로 평화 기원행사를 봉행했다. 지난 4월 18일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동산서 채화된 '평화의 불'은 중국의 둔황, 서안, 낙양, 정주 등을 거쳐 인천항을 통해 배편으로 국내에 도착했다.

김주일 기자

"국민 행복위한 동반자가 되겠다"

유민봉 청불회장 취임법회… 대행 스님 인연 밝혀



새롭게 개편된 청와대 불자회 신임회장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사진〉의 취임법회가 열렸다.

청와대불자회는 5월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청와대불자회장 취임법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국민행복을 위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의 증명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정운영의 지근거리에 있는 여러분(청불회원)들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을 알아보고 지부상소를 올렸던 선조들의 안목과 기개를 갖추었을때, 새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민봉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은사처럼 모셨던 봉철 스님과 대행 스님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 스님들과의 인연을 술회하는 대목에서는 목이 매인 듯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열반에 든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과는 인연에 대해서는 "미국 유학시절 대행 스님이 미국을 방문하면 직접 유학생들을 찾아와 생활 속의 법문을 들려주었다"며 "주인공과 나를 둘로 보지 않고,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고, 오로지 한 곳에서 나고 한 곳으로 드는 도리를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새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동반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라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항상 유념하여 공직수행과 개인신앙의 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종교간의 화합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 등 7대 종단 종교화합주간 연다

국내 7대 종단이 참여해 종교 간 화합을 꾀하는 행사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오는 5월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13 이웃종교화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개막 심포지엄에서는 유엔 NGO 자문위원 아자 카람 박사가 '유엔과 종교 NGO의 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신중일 기자

10.27 법난법 국회 통과… 피해자 확대는 불발

법난위 소관부처 국방부서 문화부로 이전 가능성 커져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효력 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국회는 4월30일 열린 제31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장 산하에 사무처를 설치하되,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종무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던 조계종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계종이 사무처를 꾸리면서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보상 업무를 위해 사무처장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처리한다는 부대 의견이 통과됨에 따라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한 개정안은 10.27법난 역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사업을 법률 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혜숙 기자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教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종조사의 대각사상·
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추서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스승

백용성
조사

불기 2557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을유년(서기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5년 1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용성 진종(白龍城)조사의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등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영정에 예배하면서 귀국인사를 올리며 **"용성큰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신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헌 윤봉길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귀국 충절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장산도업

일 주 문



선원수좌회, 동행에 5억 기부

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은 5월 2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 5억원을 기부했다.



섬진강 달빛차회 템플스테이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5월 18~19일 쌍계사에서 섬진강 달빛차회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은해사 성보박물관 전시전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5월 1~31일 은해사성보박물관에서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기념 전시전 '불광'을 개최한다.



2013 참만남 수련회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6월 14~16일 화엄사에서 2013 참만남 수련회를 연다.



군종교구 호국기도회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5월 24일 설악산 봉정암에서 호국기도회 및 산사순례를 봉행한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4월 26일 한국불교대학에서 '장애우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홍천군장애복지관 제3대 관장 취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5월 2일 홍천군장애인복지관에서 제3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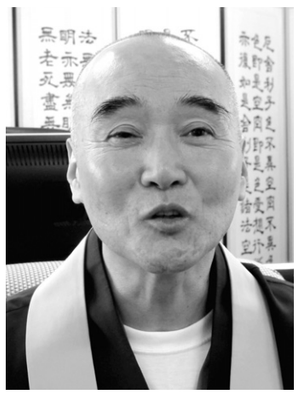


'주차 통합관리 솔루션 보급' MOU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5월 2일 이혜령 유플러스네트웍스 대표, 유승관 스마트테크놀로지 대표 등과 '주차 통합관리 솔루션 보급' MOU를 체결했다.

"교도복지 사업, 재임기간 큰 숙원"

총지종 17대 통리원장 법등 정사 4월 30일 취임… 3년 임기



7월 괴산 수행복지타운 1차 완공 통일음악제 통해 지역민과 소통

"그동안 교화와 수행 현장서 많은 시간을 보내 종무행정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재임 기간 중 불교 행사와 대사회적 역할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지난 4월 26일 불교총지종의 종무행정을 이끌어갈 제 17대 통리원장에 선출된 법등 정사〈사진〉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이어 법등 통리원장은 교도들의 오랜 숙원인 '교도복지' 사업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털어놨다.

법등 통리원장은 "우리 종단의 오랜 숙원인 충북 괴산 수행복지타운이 지난 4월 11일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올 7월이면 1차적으로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누구나 이 시설에서 수행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임종을 맞고 삶을 부처님 품안에서 회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법등 통리원장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세계 재가불자들의 네트워크인 '국제재가불자대회'의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재가불자대회가 설립된지 6년째를 맞아 5회까지는 우리나라서, 지난해 6회 대회는 스페인서 개최해 3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불자들의 신행모임인 이 대회를 활성화시켜 명실공히 총지종의 대표적인 국제조직으로 성장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법등 원장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통일음악예술제를 지속적으로 열어 소외된 이웃과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족, 지역주민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는 3년이며 4월 30일 취임식을 마친 법등 통리원장은 경남 진양 출신으로 총무원 교정부장. 원의회 의원, 제 9대 중앙종회의원, 총지종사회복지재단 감사,서울 경인교구 교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연임

5월 2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제26대 주지에 우송스님이 선출됐다.

신흥사는 5월 2일 경내 설법전에서 열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조실 오현 스님의 추천으로 현 주지 우송 스님을 주지후보자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송 스님은 제25대 주지에 이어 26대 주지를 연임하게 됐다.

우송 스님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초발심으로 돌아가 3교구 사부대중의 화합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송 스님은 1979년 속초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80년 하동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송광사, 해인사, 망월사 등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낙산사 기획국장, 신흥사 기획국장, 신흥사 총무국장, 신흥사 부주지, 계조암 주지, 능인사 주지, 봉정암 주지, 백담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9년 6월 제25대 신흥사 주지에 취임한 바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중총회 직후 우송 스님에게 주지 당선증을 교부했다.

신중일 기자

노원불교聯 봉축연합음악제 봉행

노원구불교연합회(회장 덕우)는 4월 27일 서울 상계동 당고개근린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노원구민 행복 음악제'를 봉행했다.

음악제는 1부 영산재 시연과 기원사, 학림사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2부 인기가수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음악제는 노원불교연합회 회장 덕우 스님(상계 도선사 주지)을 비롯해 김성한 노원구청장, 안철수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덕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첫 구민화합 음악제를 시작으로 자살방지 캠페인 등을 열고 구민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행복음악제에는 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한국불교조견종 창종 대법회 봉행

(사)한국불교조견종(총무원장 성문)은 4월 28일 총본산 파주 선화사에서 창종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종법회에는 관계 기관장 및 (사)전사련 전국지부 종단 집행부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창종법회는 혜암, 도일, 보인, 법열, 혜산, 보안, 각성 스님이 증명한 가운데 영산재 시연과 보살품계 수계의식 등이 진행됐다.

초대 총무원장 성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조견종은 모두가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법도생의 활로를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 중생 모두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견종은 창종법회에서 전법도생의 활로를 열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불국사 그리기 글짓기 대회 개최

'제28회 불국사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4월 28일 불국사 경내 범영루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7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미래동량으로 마음껏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6회 불교도서전

사찰도서관 지원을 위한

2013년 5월 8일(수) ~ 5월 12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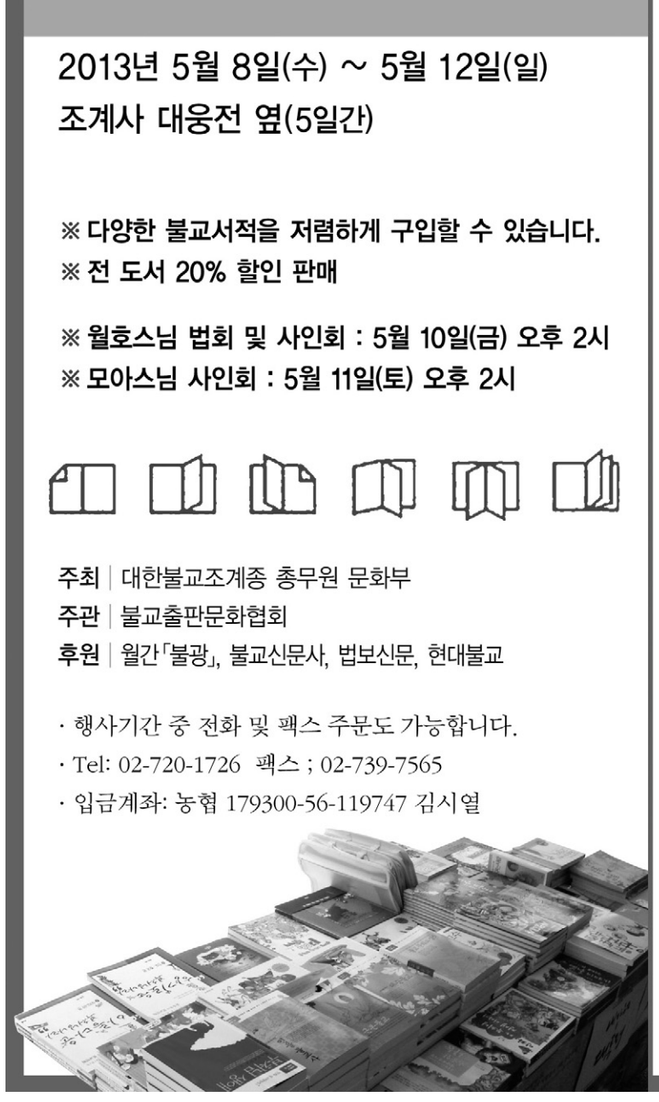
조계사 대웅전 옆(5일간)

※ 다양한 불교서적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 도서 20% 할인 판매

※ 월호스님 법회 및 사인회 : 5월 10일(금) 오후 2시
※ 모아스님 사인회 : 5월 11일(토) 오후 2시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관 | 불교출판문화협회
후원 | 월간「불광」, 불교신문사, 법보신문, 현대불교

· 행사기간 중 전화 및 팩스 주문도 가능합니다.
· Tel: 02-720-1726 팩스 ; 02-739-7565
· 입금계좌: 농협 179300-56-119747 김시열



도서명 / 가격 / 저자 / 출판사

108산시순례기도회 / 15000 / 신묵예저 / 맛있는 책
Encounter with the beauty of Korean Buddism / 22000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불광출판사
가사체 금강경 / 5000 / 조현순, 무비 / 운주사
가사체 반야심경 / 5000 / 조현순, 무비 / 운주사
가사체 본증경 / 5000 / 조현순, 무비 / 운주사
가슴을적시는부처님말씀(대) / 7500 / 석지현 / 민족사
가슴이 부르는 만남 / 15000 / 반택주 / 불광출판사
가야산의메아리(정본판) / 25000 / 성철스님 / 장경각
간화선(개정판) / 17000 / 조계종교육원불학연구소, 전국신행수희회 / 조계종 출판사
간화정로 / 20000 / 월암 / 클리어마인드
갑분배의 삶과 가르침 / 15000 / 잠바 텐킨지 스튜어트 지음 / 허정훈 옮김 / 지성사
갑성사전 / 9000 / 이화수 / 민족사
경불이상1,2,3 / 25000 / 오온화 외 옮김 / 동국역경원
경전공의,금강경 / 25000 / 성 본 / 민족사
경전집의,무아경 / 28000 / 무 비 / 민족사
경전숲길-한 권으로 읽는 경전 / 24000 / 장문 / 조계종 출판사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 13000 / 지안 / 조계종 출판사
경허 / 13000 / 일 지 / 민족사
계율과 불교윤리 / 15000 /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 조계종 출판사
고마아봇다 / 22000 / 성엄 엄음 / 문화문고
고맙습니다 근세음보살 / 10000 / 이미령 / 불교시대사
공감 / 12000 / 스튜디오 돌 / 도서출판 솜바람
공명(참회에너지) / 15000 / 조아스 위틀러 호프스 / 불광출판사
공부하지 마라-선사들의 공부법 / 10000 / 장경섭 / 조계종 출판사
공양올리는 마음 / 13000 / 혜총 스님 / 불광출판사
관세음보살내이름의의작은책) / 6500 / 김호성 / 민족사
관음경 사경 / 6000 / 윤석우 / 운주사
구하지않는삶그만천한자유 / 14000 / 적천 묽기봉 / 비움과소통
규봉스님 금강경 / 25000 / 원순스님 / 법공양
그님저의 책장, 무엇이특별했을까 / 15000 / 고광명 / 천글세상
그대 몸 안에 있는 여섯 도둑부터 잡으시게 / 10,000 / 윤청광지음 / 우리출판사
그대 이디시 원다가 어디루 가는가 / 10,000 / 윤청광지음 / 우리출판사
그대, 보지 못했는가 / 16000 / 서암스님 / 정토
그대,꽃처럼 / 10000 / 원경스님 / 도반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 14000 / 선묵혜자 / 밋있는 책
그래서 사랑입니다 / 13000 / 월지 김재윤 / 참글세상
근본불교 / 9800 / 김정빈 글 · 최병용 그림 / 도서출판 솜바람
금강경 / 15000 / 정목스님 / 법공양
금강경 사경 / 6000 / 윤석우 / 운주사
금강경 삼십사송 / 10000 / 무슬림 / 장 승
금강경(대) / 15000 / 송강스님편역 / 도반
금강경(소) / 9000 / 송강스님편역 / 도반
금강경(작은경전 6) / 4000 / 정호영 / 민족사
금강경(큰 경전 4) / 7000 / 정호영 / 민족사
금강반야바라밀경 / 25000 / 송강스님편역 / 도반
금강반야바라밀경 / 10000 / 원순스님 / 법공양
기도 / 8500 / 법운스님 / 정토
기도 / 13000 / 혁난환/김은희 / 맹진출판
기도하는 즐거움 / 13000 / 보경스님 / 불교시대사
기암집, 조선5 / 18000 / 기암 법건 저 이상연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김치나무에 핀 철쭉 : 불영이 버무린 절집 김치 이야기 / 17000 / 일운 / 담앤북스
까르마빠, 니를 생각하세요 / 20000 / 마셜 마린 지음 / 신기식 옮김 / 지앤사
깨달음 / 12000 / 법운스님 / 정토
깨달음에 이르는 길 / 43000 / 총가파 지음 / 청전 옮김 / 지앤사
깨달음이 있는 산사 / 18000 / 월서 / 맛있는 책
나도 부처님 될래요 / 10000 / 홍사성 / 불교시대사
나라를 구한 스님, 시명대사 / 10000 / 정수일 글, 그림 / 운주사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 13000 / 김정호 / 불광출판사
나를 알게해주는 계율이야기 / 12000 / 이지함 / 불교시대사
나를 찾아가는 길 / 10000 / 청운스님 / 불교시대사
나를 치유하는 마음이행 / 12000 / 서광 스님 / 불광출판사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 15000 / 슬찬 스님 / 불광출판사
날마다 좋은 부처님말씀 / 12,000 / 홍사성 / 우리출판사
날마다엿는집 / 10800 / 법륜 / 김영사
날마다해피엔딩 / 12000 / 빈성 / 김영사
남은 문을 감아잡고-불교 입문 존비유 안내 / 10000 /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 / 조계종 출판사
내마음속여행팀 / 15000 / 노무현재단기록위원회 / 한겨울드
녹차와 채식 / 15,000 / 홍승스님 / 우리출판사
눈부시지만, 가짜 : 실의 본질과 해법에 관해 낮은 목소리로 / 13800 / 정명심 / 담앤북스
눈으로 먹는 정음식 / 15,000 / 김연식 지음 / 우리출판사
능엄참(큰 경전 5) / 12000 / 김무재 / 민족사
다라니수행 / 15000 / 일산 법상 / 비움과소통
다라니의향 / 15000 / 일산 법상 / 비움과소통
다시 읽는 법화경 / 16000 / 차차석 / 조계종 출판사
닦는마음밝은마음 / 15000 / 강재봉 / 불광출판사
달라이 라마와 함께 지낸 20년 / 13500 / 청전 / 지앤사
달라이라마의종교를넘어 / 13500 / 달라이라마 / 김영사
달라이라마의행복론 / 9500 / 달라이라마 / 김영사
당신은 부처님 / 9000 / 무비 스님 / 불광출판사
당신을 바라봅니다 : 회상, 그리고 쓰다(양장본) / 15000 / 최상 / 담앤북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12000 / 월호 스님 / 불광출판사
대각국사집_고려5 / 32000 / 의천 저 이상연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대반열반경(작은경전 10) / 4500 / 강기희 / 민족사
대승계의 세계 / 28000 / 원영 / 조계종 출판사
대승기신론-1 / 22000 / 정화스님 / 법공양
대승기신론-2 / 22000 / 정화스님 / 법공양
대승기신론내외관기_신라3 / 15000 / 태현 저 박인석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대승기신론의 세계 / 17000 / 계환 / 운주사
대승불교 / 9600 / 김정빈 글 · 최병용 그림 / 도서출판 솜바람
대안스님의마음챙김테라피 / 14000 / 대안 / 김영사
대원만 수행 요결 / 28000 / 직메 최기왕뵘 / 운주사
독업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 / 12000 / 정수일 글, 그림 / 운주사
돈숭돈 우리말 법화경 / 20000 / 혜조 역 / 운주사
돈오선 / 20000 / 월암 / 클리어마인드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돈황본 육조단경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 18000 / 송해경 / 지앤사

동이서이 비구니 교단의 역사 / 18000 / 벽공 / 조계종 출판사
동이서이 선의 교내성스를 찾아서 / 18000 / 정운 / 클리어마인드
되찾은 조선의 보물, 외규 / 12000 / 혜문 쉼 / 동국대학교출판부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 / 13000 / 복잡심 / 조계종 출판사
마법의 가면 / 10000 / 스테판 세퀘반 글 / 일러이 그린 그림 / 불광출판사
마음공부첫걸음 / 9000 / 김명우 / 민족사
마음과 동심 / 14000 / B. Alan Wallace / 클리어마인드
마음다는법 / 9500 / 김재홍 / 동화출판사
마음속 부처 찾기-신기하고 / 18000 / 지안 / 조계종 출판사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려는고 / 10,000 / 윤청광지음 / 우리출판사
마음에는청화엉공에는이스 / 12000 / 탁낚찬 / 김영사
마음으로 읽는 부처님 말씀 / 11800 / 홍사성 / 잔 숨
마음을 밝여주는 60가지 이야기 / 10000 / 방경일 글 · 김장열 그림 / 도서출판 솜바람
마음을 주는 손 / 13,000 / 금단 정관 / 우리출판사
마음이 몸을 치루라다 / 17000 / 데이비트 해밀턴 / 불광출판사
마음자리참복자리 / 13000 / 모아스님 / 도반
마음정심 명상앤도림 / 15000 / 김정호 / 불광출판사
마음치료 이야기 / 13800 / 전한수 / 불광출판사
마지막 입는 옷엔 주머니가 없네 / 10,000 / 윤청광지음 / 우리출판사
마하무드라 에이수행 / 12000 / 잡곤 꼽돕 린포체 지음 / 까루마 푼닌 옮김 / 지앤사
만불명호경 / 45000 / 일운 강수 / 운주사
만화 백우경 / 10000 / 김정열 글 · 그림 / 도서출판 솜바람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 10000 / 정수일 글, 그림 / 운주사
맑은 바람 드는 집 / 13500 / 홍선 / 아름다운 인연
맹설철것 없이 당장 부지로 살게나 / 13800 / 도법 스님 / 불광출판사
맨발로 오신 부처님 / 12000 / 원효원 / 조계종 출판사
멈춤의여행 / 12000 / 작산 / 공감의 기쁨
멈쳐진 깨달음 / 백창우 / 15000 / 백창우 / 운주사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 / 10000 / 철우 / 조계종 출판사
묘법연화경(법화경) / 15000 / 이은희 옮김 / 동국역경원
묘법연화경(상)(작은경전 6) / 4500 / 현 해 / 민족사
묘법연화경(하)(작은경전 7) / 4500 / 현 해 / 민족사
무분관 / 12000 / 조오현 / 불교시대사
무문관항구 / 22000 / 정목 옮 김 / 민족사
무비스님과함께 불교공부 / 10000 / 무 비 / 민족사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 7000 / 무비스님 / 조계종 출판사
무비스님의 예불문 / 6000 / 무비스님 / 조계종 출판사
무비스님의 천수경 / 8000 / 무비스님 / 조계종 출판사
무엇이 그들을 의태복 만들었을까-다시 쓰는 한국불교 의인열전 / 18000 / 정병조 / 조계종 출판사
무엇이본격그대의삶길인가 / 17500 / 모불성사 전우희 / 비움과소통
묻었는 분, 빗장을 열다 / 12000 / 김성우 / 클리어마인드
미래는 지금이다 / 22000 / 까로마빠 지음 / 청공 옮김 / 지앤사
미륵경전(작은경전 13) / 4000 / 이종익 외 / 민족사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 / 19000 / 미산 / 맹진출판
민들, 다입들어가 결합돌인가 / 18000 / 오간남 외 / 운주사
밀린다왕문경 1(큰 경전 17) / 12000 / 도 정 / 민족사
밀린다왕문경 2(큰 경전 18) / 12000 / 이미정 / 민족사
밀린다왕문경(하)(작은경전 14) / 4000 / 시경수 / 민족사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 가누나 / 10,000 / 윤청광지음 / 우리출판사
바람이 오리를 만나면 / 9500 / 지현 / 운주사
바쁠수록 쉼표 / 13,000 / 금단 정관 / 우리출판사
반야심경 무구자 도인 주해) / 22000 / 한암대덕 신사 / 불광출판사
반야심경 강의 / 15000 / 이동형 / 운주사
반야참회 / 13000 / 혜통 스님 / 불광출판사
받아들임 / 20000 / 타라 브랙 / 불광출판사
백련으로 만나는 사람으식 / 15000 / 신오 / 운주사
백성우의 금강경 강의 / 15000 / 백성우 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백암정토천_조선3 / 9000 / 백암 성총 지 김종진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백유경(작은경전 9) / 4000 / 현 각 / 민족사
백유경(큰 경전 10) / 8000 / 현 각 / 민족사
백장록상설 / 20000 / 원오역해 / 비움과소통
백팔번뇌-홍성한의 현대시즈 감심 에세이 / 9800 / 홍성한 / 아름다운 인연
번뇌 리셋 / 13800 / 코이케 류노스케 / 불광출판사
번뇌를 꺾인 손 / 13,000 / 금단 정관 / 우리출판사
범망경 보살계품해 / 20000 / 삼성원장스님편역 / 도반
범망경술기_신라2 / 28000 / 승장 지 친함육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범음산보집_조선10 / 28000 / 지환 저 김두재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법구경(작은경전 1) / 4000 / 석지현 / 민족사
법구경(큰 경전 15) / 9000 / 석지현 / 민족사
법문스님의 금강경 강의 / 27000 / 법문스님 / 정토
법요집 / 8,000 / 편집부 / 우리출판사
법요집 大 / 20,000 / 편집부 / 우리출판사
법정, 나를 물들이다 / 15000 / 백택주 / 불광출판사
법화삼부경(원급, 개정판) / 20,000 / 고상훈 역음 / 우리출판사
법술도 채질도 돌밥에 이슬밥세 / 10,000 / 윤청광지음 / 우리출판사
백암록 / 10000 / 조오현 / 불교시대사
병사와 룡경소리 / 10000 / 림현준 / 운주사
보림의 술 : 일상 스님의 산장일기 / 13800 / 일선 / 담앤북스
본생경 1(큰 경전 19) / 12000 / 이미정 / 민족사
본생경 2(큰 경전 20) / 9500 / 이미정 / 민족사
본생경(작은경전 12) / 4500 / 이미정 / 민족사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라 / 11000 / 지후 스님 외 / 불광출판사
부대사 금강경 / 20000 / 원순스님 / 법공양
부모은중경 / 8000 / 월운 / 지앤사
부모은중경관음참경 외(큰 경전 11) / 7000 / 일 지 / 민족사
부처님 나라 개구쟁이들 / 8500 / 이봉직 / 운주사
부처님 생애 / 9600 / 김정빈 글 · 최병용 그림 / 도서출판 솜바람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7지 / 9000 / 정수일 글, 그림 / 운주사
부처님마라연예이야기 / 15000 / 정찬주 / 김영사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삼있을까 / 12800 / 원성 스님 / 불광출판사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 10000 / 목건찬 / 조계종 출판사
부처님은 어떻게 일생했다 / 10000 / 홍사성 / 장 승
부처님의 생애(보급판) / 12000 / 조계종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 조계종 출판사
부처님의 생애(장정) / 24000 / 조계종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 조계종 출판사
부처님이 들려주는 엣날 이야기 / 9800 / 정수일 글, 그림 / 운주사
부처를뵈러 / 15000 / 송산 / 김영사
불교 성제력 안내 / 12000 /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 / 조계종 출판사

불교개론 / 10000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 출판사
불교공부시전 / 20000 / 곽철환 / 운주사
불교를 알고 싶어요 / 10,000 / 돈관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불교문화와 상식 / 9600 / 김정빈 글 · 최병용 그림 / 도서출판 솜바람
불교미술의 해학 / 18000 / 권주석 / 불광출판사
불교생전 / 14000 / 불교생전편찬위원회 / 동국역경원
불교에서 유래한 심용어 지원 사전 / 30000 / 박호석 편 / 불광출판사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 15000 / 사이토 나루야 / 운주사
불교와 인권 / 20000 / 안옥선 / 불교시대사
불교의식음악 연구 / 35000 / 법현 / 운주사
불교입문 / 7000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 출판사
불교하는 사람은 / 13500 / 김성철 / 불교시대사
불교학개론강의실 교리편 / 9000 / 장휘옥 / 장 승
불교학개론강의실 역사편 / 9000 / 장휘옥 / 장 승
불멸사전 / 25,000 / 고성훈 엮음 / 우리출판사
불자육송집 / 6,000 / 편집부 / 우리출판사
불자재설집 / 15,000 / 편집부 / 우리출판사
붓다 다르마 / 22000 / 성열지음 / 운허문고
붓다 브레인 / 18000 / 릭 핸슨의 / 불광출판사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 19000 / 폰니디 / 클리어마인드
붓다 곤서트 / 9000 / 성철스님 / 불교시대사
붓다교부터 배우는 자니교의 지혜 / 9800 / 민병직 / 운주사
붓다를 만난 사람들 / 9800 / 성재헌 / 아름다운 인연
붓다와 정상 / 12000 / 임승택 / 민족사
붓다의 명상법-뷔백사나 명상의 이론과 실천 / 13000 / 지하사 히데오 / 아름다운 인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술 / 23000 / 전영우 / 운주사
빛으로부은아기 / 25000 / 법해자 / 도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 10000 / 지현 / 아름다운 인연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 괴롭네 / 10,000 / 윤청광지음 / 우리출판사
사자전의 화석열전 / 12000 / 우승석 / 천글세상
사성제 팔정도(네마음의작은책) / 6500 / 이원섭 / 민족사
사십세 팔정도(네마음의작은책) / 6500 / 구미래 / 민족사
사십구재-여난 이별 위해 수행의 마음을 내다 / 7700 / 효림 / 조계종 출판사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 12000 / 목경찬 / 조계종 출판사
사찰의 상징세계 세트 / 44000 / 자현 스님 / 불광출판사
삭발하는 날 / 13800 / 현진 / 담앤북스
산사는 깊다 / 15000 / 지안 스님 / 불광출판사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 / 9800 / 이경해 / 아름다운 인연
산승불희 / 16000 / 우월주 / 불광출판사
산은산이오 물은 물이른다 / 4900 / 성철스님 / 장경각
산중일지 / 10000 / 현자 / 지앤사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 / 13000 / 현진스님 / 클리어마인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 12000 / 정화스님 / 법공양
삼불접_조선11 / 15000 / 최악 지탁 저 김재희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삼천불명호경 / 13000 / 편집부 / 운주사
생각나무 / 12000 / 스튜디오 돌 / 도서출판 솜바람
생각나무2 / 12000 / 스튜디오 돌 / 도서출판 솜바람
생각사용설명서 / 15000 / 전현수 / 불광출판사
생활명상(네마음의작은책) / 6500 / 김남선 / 민족사
선마라크 이하의 중관시상 / 25000 / 이혜승 / 불교시대사
서울스님의 일제적 연이 / 25000 / 서응 / 맛있는 책
서장 / 20000 / 진제강 / 운주사
석영당제선선사 / 15000 / 박부영,원철,김성우 / 비움과소통
선가귀감 / 15000 / 원순스님 / 법공양
선격(禪家) / 10000 / 법광스님 지음 / 한겨울드
신과 나 / 13800 / 이리하 히데오 / 운주사
선원보초 주해 / 45000 / 이동형 / 운주사
선문사변만어_조선13 / 11000 / 초의 의순 저 김영욱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선문선답 / 10000 / 조오현 / 잔 숨
선문선답(상) / 12000 / 최현각 지음 / 한겨울드
선문선답(하) / 10000 / 최현각 지음 / 한겨울드
선문수경_조선12 / 12000 / 백파 긍선 지 신규탁 저 / 동국대학교출판부
선불장(보반의반) / 28000 / 이청교 / 민족사
선운할고 / 15500 / 혜안,묘봉,근우회 / 비움과소통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 10000 / 방경일 글 · 김장열 그림 / 도서출판 솜바람
선삼스님 / 13000 / 스즈키순류 / 김영사
선어사전 / 23000 / 혜원 / 운주사
선어입문 / 12000 / 구스모도 분유 / 클리어마인드
선을통한인생경영 / 14000 / 최부원 / 비움과소통
선재스님의 이야기로 배우는 사상유식 / 17000 / 선재 스님 / 불광출판사
선재야 선재야 / 13000 / 문효정 / 클리어마인드
선화산인 능엄강 강설 세트 / 84000 / 신화 상인 / 불광출판사
성난물소놀아주기 / 14000 / 아잔브라흐마 / 공감의 기쁨
성은대사의 권세등보상 이야기 / 18000 / 성운 / 운주사
성자와쥐부가합께인논금강경 / 19000 / 김환수 / 공감힘
성철스님시봉이야기 / 13000 / 원택 / 김영사
성철스님하루천산빈 / 12000 / 성철 / 김영사
세상의 님에게 보내는 스님의 편지 / 16000 / 영종선사 / 연필
세상의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 13000 / 튀포체 / 민족사
소리 / 12000 / 일선 / 클리어마인드
송광스님의백문백답 / 16500 / 송광스님 / 도반
송광스님찬공 금강경(성우녹음CD) / 12000 / 송광스님편역 / 도반
수좋업경 / 17000 / 김월운 역저 / 동국역경원
수미, 일미를 만나다 / 15000 / 수미한담 / 클리어마인드
숙제 아빈 생에 해내려 / 10000 / 정격 / 클리어마인드
숫타니파타(작은경전 11) / 4200 / 석지현 / 민족사
숫타니파타큰 경전 16) / 10000 / 석지현 / 민족사
숲에는 길등이 없다-나무에 쉬린 제미있는 이야기 / 14800 / 이무상 / 아름다운 인연
스님의 비밀레시피 : 불앤이 감춘 / 18000 / 일운 / 담앤북스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 13000 / 보경 / 조계종 출판사
시간의 선물 : 행복한 사분이 전하는 / 14000 / 성림 / 담앤북스
신 금강경강의 / 15000 / 무비 스님 / 불광출판사
신묘장구대다라니 : 사경, 참회와 발원 삼매에 드는 수행 / 12000 / 현진 / 담앤북스
신심 / 10000 / 혜인 / 클리어마인드
신심명 증도가 강설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신디트리의 꿈, 세상을 바꾸다 / 12000 / 백승권 / 불광출판사
아기 고슴도치의 개일음 / 13000 / 김재웅 / 천글세상
아름다운 인생- 월다일 안내서 / 13800 / 안직수 / 아름다운 인연

아이티틸(네마음의작은책) / 6500 / 여여법사 / 민족사
아이, 당신의 것이 아니다 / 15000 / 안병직 / 클리어마인드
아이아스 딜레마 / 15000 / 폴 우드러프 / 불광출판사
아이처럼행복하라 / 13800 / 알렉스감 / 공감의 기쁨
아잔브라흐나나는명품의여행세트 / 29000 / 아잔브라흐 / 공감의 기쁨
아침을 여는 행복편지(365일) / 12000 / 법상 / 조계종 출판사
아침엔(작은경전 2) / 4800 / 돈 연 / 민족사
알기쉬운 불교교리 / 12000 / 정인스님 / 불교시대사
어간법서 여래세집 / 10000 / 스튜디오 돌 / 도서출판 솜바람
어부스님 금강경 / 25000 / 정은스님 / 법공양
언젠가는 지나간다 : 내가 배우고 이웃에게 전한 108 잡언(양장본) / 12000 / 현진 / 담앤북스
업마-인생이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 / 9800 / 틱낫한 / 아름다운 인연
여기서는 그대 신을 벗어라 / 14800 / 임광명 / 클리어마인드
역주조선불교사상권9년) / 400000 / 역주근찬위원회 / 동국대학교출판부
업불부문_조선9 / 13000 / 혐연 저 정우일 외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업불수행대전 / 38000 / 주세규 최집 / 비움과소통
영어로읽는법구경 / 13800 / 이병두 / 불교시대사
영원에서영원으로 / 14000 / 불림 / 김영사
영원한 자유 / 9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영원한 자유의 집 / 5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영화 불교와 만나다 / 12000 / 유응오 / 아름다운 인연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 15000 / 성철스님 / 장경각
오늘도무러울었이 / 12000 / 틱낫한 / 김영사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 10000 / 과각 / 불광출판사
완전한 깨달음(완각경) / 12000 / 이혜열 / 민족사
왓는이 스님 / 7800 / 정수일 글, 그림 / 운주사
왕초부, 교리박사 되다 / 9500 / 고명석 / 민족사
왕초부, 금강경박사되다 / 9500 / 이혜열 / 민족사
왕초부, 반야심경박사되다 / 9500 / 김명부 / 민족사
왕초부, 법화경박사되다 / 9500 / 정법조 / 민족사
왕초부, 불교박사되다 / 9500 / 석지현 / 민족사
왕초부, 수행박사되다 / 9500 / 고명석 / 민족사
왕초부, 육조단경박사되다 / 9500 / 김명욱 / 민족사
왕초부, 초기불교박사 되다 / 10000 / 미 성 / 민족사
왕초부, 천문박사 되다 / 12000 / 김형종 / 민족사
왕초부, 화엄경박사되다 / 9500 / 정법조 / 민족사
왜 부처님은 주지를 하셨을까 / 9000 / 원철 / 조계종 출판사
우리 절집의 예이야기와 한담 / 10000 / 김명숙 / 운주사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 10000 / 방경일 / 운주사
우리같에 계신 33분세음보살 이야기 / 13000 / 방경일 / 운주사
우리는모두불고있는이이불분석이었다 / 13000 / 여승배 / 공감의 기쁨
우리말 법화경 사경(5권) / 40000 / 혜조 편저 / 운주사
우리보무인생입니다 / 12000 / 일 야 / 민족사
우리당에웃던부처 / 12000 / 이 성 / 문화문고
운봉선사십선론_조선6 / 12000 / 운봉 대지 저 이준수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원각경 이가해 / 18000 / 황정원 역 / 운주사
원림국사집_고려2 / 25000 / 충지 저 이상현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윈디펜드-멜리스의 힐홀친 선 탐험기 / 10000 / 대니얼도쉬 삽버버그 / 아름다운 인연
윈디박스 / 20000 / 루인 크론스나릭 / 불광출판사
윈역(역천사 헤인스님 윈역이야기2) / 1000 / 혜인 / 클리어마인드
월명 스님의 계를 컴퓨월명 / 담앤북스
원하고 행하나 이루어지더라 / 13000 / 보경스님 / 불교시대사
월호스님의 천수경 강의 / 10000 / 월호 / 운주사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 30000 / 뱀뵐 린뽀체 지음, 오기엥 옮김 / 지앤사
위배샤-위배음의작은책) / 6500 / 정준영 / 민족사
유마경(작은경전 5) / 4500 / 박윤길 / 민족사
유마경(큰경전 2) / 9500 / 박윤길 / 민족사
유성불교의 이해 / 15000 / 목경찬 / 불광출판사
육바라밀(네마음의작은책) / 6500 / 성제천 / 민족사
육조단경 / 20000 / 원순스님 / 법공양
육조단경(경상본) / 10,000 / 지묵스님 지음 / 우리출판사
육조대사 법보단경 / 15000 / 법지 / 운주사
육조스님 금강경 / 20000 / 원순스님 / 법공양
이이기 미국불교사 / 30000 / 릭 블조 / 운주사
이타적 인간의 뇌 / 15000 / 에릭 호프만 / 불광출판사
인간 붓다 / 14

“삼대화상 업적·정신, 땅속 유물처럼 발굴 계승”

양주 회암사 삼대화상 첫 문화제

지공 나옹 무학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사진 왼쪽부터)이 다례재에서 삼대화상께 차를 올리고 있다.



문화제 참가자들이 다례재를 마치고 삼대화상의 부도를 돌아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받고 있다.



회암사 불교문화원 다도회에서 다도시연을 진행했다.



문화제 참가자들이 회암사지를 돌아보고 있다.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모시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천보산 자락.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회암사 옛터에 지공, 나옹, 무학 삼대화상의 진영이 나란히 걸렸다. 그리고 그들이 증명했던 법맥의 후손들이 맑은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있다.

양주 회암사(주지 혜성)와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 조직위원회(회암사 불교문화원)는 4월 27일 회암사지박물관 특설무대와 회암사 일원에서 ‘2013년 양주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를 개최했다. 고려말과 조선초에 걸쳐 불교중흥을 위해 앞장섰던 지공, 나옹, 무학 삼대화상과 그들의 수행 도량인 회암사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제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을 비롯해 양주사암연합회 소속 스님과 불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대화상께 차를 올리는 다례재로 시작됐다.

회암사 중창의 시원인 지공(指空 · ?~1363) 스님은 인도 스님으로 법명은 제납박타(提納薄陀)이다. 인도의 동북 지방인 갠지즈강 유역에 위치한 마가다국 만왕의 왕자로 태어나 8세 때 나란다사 율현에서 출가했다. 19세 때 남인도 능가국 길상산의 보명에게 의발을 전해 받고 인도를 떠나 중국(원)으로 건너왔고, 1326년부터 1328년까지 고려에 머물렀다. 고려의 여러 곳을 유력하다 제자인 나옹 스님에게 회암사 중창의 뜻을 전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귀에 익은 선시의 주인공, 지공 스님의 상수제자인 나옹(懶翁 · 1320~1376) 스님은 21세 때 친구의 죽음을 보고 공덕산 묘적암의 요연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372년, 회암사 중건을 시작하여 1376년 4월 15일 대작불사를 마치고 낙성법회를 열었다.

나옹 스님의 적통이며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無學 · 1327~1405)스님은 조선조의 마지막 왕사다. 1371년 겨울에 송광사에서 나옹 스님으로부터 의발을 전해 받았다. 1376년 여름에 나옹 스님이 회암사에서 낙성법회를 열 때 수좌를 맡기려 했으나 사양했고, 나옹 스님이 입적하자 자취를 감추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겸해 마련된 다례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그동안 회암사는 세 분의 다례를 본사 차원에서 봉행에 왔지만 앞으로는 종단은 물론 범불교 차원의 다례재가 되어야 하며, 한국불교 역사의 현장인 이곳(회암사)을 수행성지로 보존하고 알려야 하는 것은 후대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이다.”고 문화제의 의미를 확인했다. 다례재에 이어 참가자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대가람의 흔적 회암사지를 한 발 한 발 둘러본 후 삼대화상의 묘탑이 실존하고 있는 회암사로 이동해 삼대화상의 부도를 참배했다. 삼대화상의 부도를 차례로 친견한 참가자들은 삼대화상의 업적과 대가람이었던 회암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행사를 넘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 마련된 문화제는 양주시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이 있었다.

다도 시연과 시음, 사찰음식 체험, 회암사의 문화재를 둘러보는 걷기대회, 연등과 단청소품 만들기 등의 대중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불교용품과 먹거리 장터 펼쳐졌으며,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 신청서 접수, 중앙신도회 부설 ‘반갑다연우야’의 협조로 이뤄진 무료 한방진료와 치과진료 등 특별행사가 진행됐다. 오후 6시부터는 불교음악 명상가 범능 스님, 가수 안치환, 웅산, 송대관, 회암사 합창단, 양주시립합창단이 공연한 음악예술제가 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범불교 지역 문화행사 자리 매김
학술대회 등 역사 재조명 계획

대가람이었던 회암사의 창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동국여지승람에 고려 명종 4년(1174)에 금나라 사신이 회암사에 들렀다는 기록이 있어 12세기 후반 이전부터 가람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던 회암사는 3천여 명의 대중이 살았으며, 조선 초기만 해도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사찰로 위상과 규모면에서 모두 최고의 가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태조가 왕위에서 물러난 후부터 유신(儒臣)들에 의해 억불정책이 일면서 위기를 맞는다. 위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가람은 방화에 의해 사라졌다.

회암사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부터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한 발굴조사를 통해 그 규모와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10차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 회암사는 일반적인 사찰 건축과는 달리 궁궐건축의 건물구조와 방식이 나타났다. 또한 왕실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된 용무늬기와, 봉황무늬기와, 청기와, 잡상 등의 기와류와 왕실전용자기를 생산하던 관요에서 제작된 도자류 등 당시 왕실과 불교문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다. 인근에 마련된 회암사지박물관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 전시되어 있다.

이번 문화제를 기획하고 준비한 회암사불교문화원 김훈래 원장은 “땅 속에서 유물을 발굴해 내는 것처럼 유물 속에,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삼대화상의 업적과 정신을 발굴해 그들의 존재를 사라진 회암사와 함께 널리 알리고 계승해야 한다.”고 이번 문화제의 궁극적인 취지를 밝혔으며, “본사 차원에서 이뤄졌던 삼대화상다례재가 종단과 범불교 차원의 다례재로 거듭나게 된 것과 지역의 대표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성과로 생각한다.”고 문화제를 평가했다. 또한 김 원장은 “삼대화상의 업적과 정신을 주제로 한 논문 공모, 학술대회 개최와 찬란했던 회암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도서의 출간 등이 남은 원력이며 계획이다.”고 밝혔다. 회암사는 이번 문화제를 계기로 삼대화상이 수행한 불교성지로서 회암사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를 양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주 회암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한국불교 지성화·대중화·생활화

목동큰절 법안정사는 한·불 수교 백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된 파리공원을 앞에 두고, 반만년의 역사와 배달 한겨레의 혈맥을 안고 영겁을 흐를 한강을 뒤로하여 시대의 민족 진운을 밝히기 위해 법문을 연 도량이다.



백웅성 조사진영

회주 김 효 경
주지 이 도 업

– 대중일동 –

- 금강법회: 매월 음력 1일 ~ 3일기도 오전 10시(금강경 독송)
- 인등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원각경 독송)
-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아미타경 독송)
-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관음경 독송)
- 일 요 법 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부 부 법 회: 매월 첫째(토) 오후 7시
- 청 년 법 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5시~10시

(재)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목동큰절 법안정사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호
Tel. (02) 2646-4975, (02) 2653-4888

횡성 大覺正寺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211번지
Tel. (033) 433-3754, (033) 433-0992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호국 비룡사 500여 군장병 수계식



원경 스님이 양주 25사단 소속 불자 500여 장병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호국 비룡사(주지 원경)와 행불선원(선원장 월호)은 4월 28일 양주 25사단 호국 비룡사 법당에서 ‘군장병오백나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1·2부로 진행, 원경 스님이 수계의 의미를 전하는 법문과 행불선원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수계식에서는 최흥묵 포교사의 진행으로 25사단 소속 불자 500여 군장병들과 사단장(변재선 소장)과 70연대장(강가인 대령), 비룡사 신도회장(민병진 포대장)을 비롯해 장병가족과 지역주민 등 장병 400여 명도 함께 수계를 받았다.

이 날 행사는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의 정청현 부단장을 비롯한 많은 포교사들이 동참해 행사가 여법히 진행됐다.

법회를 기획한 유기현 포교사(서울지역단 동부군팀소속)는 “군장병오백나한 수계법회는 1사단(師團) 1사찰(寺) 자매결연으로 수계법회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목표로 삼는다”며 “군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경화상사, 소외이웃 위해 8000만원 기부

3년째 꾸준히…최근 아프리카 청소년위해 1000만원 쾌척

“선행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눔으로써 행복해졌죠.” 한 중소기업체가 3년째 매월 자비나눔 기금을 저소득가정에 지원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측정공구 전문 수입 유통업체 ㈜경화상사(대표이사 임행준)는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2010년 11월부터 매월 200만원을 기부하다 2011년 10월부터 꾸준히 300만원을 기부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7500만원이다.

또한 이 업체는 아름다운동행 국제개발사업의 일환인 아프리카 학교 건립 소식을 접하고 4월 26일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쾌척했다.

㈜경화상사측은 “꾸준한 기금동참으로 우리나라 소외된 이웃들과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적인 삶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경화상사가 기부한 금액은 아름다운동행의 지원사업인 저소득가정 생계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3년간 저소득가정 약 75곳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사경공모전 접수

24일까지 사경 출품해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5월24일까지 ‘제16회 청소년 사경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제시된 시안을 3가지 방법으로 디자인해 사경하면 된다. 시안에 사경해 원본을 제출하거나 제시된 경구를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미된 작품, 하루에 1회씩 10일 이상 사경한 노트를 출품해도 된다. 시안은 ‘본생경’, '법화경‘ 수능엄경 제2권이다. 사경작은 정신성과 예술성, 창작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심사를 통과한 사경작 가운데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봉축위원장상(특별상), 동국대 총장상과 조계종 포교원장상(최우수상) 등 다양한 시상이 마련됐다. (02)723-6165

이나은 기자

“할머니·할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불교계 복지관, 어버이 날 행사 ‘다채’

5월 8일 어버이 날을 맞이해 불교계 복지관이 어르신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효 사상을 고취하는 카네이션 달아주기는 물론, 지역 문화축제와 체육대회, 백일장 등 다양하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5월 10일 오후 2시 자양4동 제4경로당에서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의 유대강화를 돕고 흥겨운 공연문화를 제공하는 경로당 오픈하우스 ‘신바람 노래자랑’을 연다. 복지관은 지역 42개소 경로당 어르신이 참여하는 가운데 노래자랑,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상품수여,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관은 6월 5일까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및 지역사회에서 ‘제10회 효사랑나누기한마당’을 개최해 게이트볼대회, 칠팔순잔치, 출발 오감여행, 당구대회,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영운)은 5월 7일 ‘제41회 어버이날 기념 천태자비孝 축제’를 열고 1500명 어르신을 복지관에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연다. 방문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고 무료중식을 제공한다. 이 밖에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과 강북멋쟁이선발대회도 개최한다.



자원봉사자가 조계사 어버이날 축제에 참가한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서울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은 5월 7~8일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7일에는 서울 응암역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게임, 농구 등 응모 캠페인을 개최해 피자, 커피 등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캠페인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결식노인 식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8일에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비롯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축하공연 등이 마련된다.

경기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노인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1일 복지관 및 일산호수공원에서 ‘제4회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문학작품 공모도 실시한다. ‘5월, 얼굴, 잠’을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접수 받는다.

경기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관장 금유현)은 5월 3일 아름채노인복지관과 당구, 탁구, 바둑, 장기실력을 겨루는 연합대회를 시작으로 8일 ‘인연의 무대’, 9일 장수사진촬영, 10일 ‘7080 노을잔치’ 등을 진행한다.

강원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5월 7일 속초시 지역 내 어르신 1000명을 모시고 ‘제6회 효(孝) 사랑 나누기 한마당’을 실시했다. 복지관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축하공연, 무료점심식사 제공 등을 마련해 어르신을 위로했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무료 다도체험, 발마사지, 연등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등을 제공했다.

한편 **조계사**(주지 도문)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5월 6일 조계사에서 3500여 어르신을 모시고 ‘조계사와 함께하는 어르신 축제, 365일 당신이 최고!’를 개최했다. 행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의 공동주관으로 1·2·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조계사 자원봉사자와 낙산·창일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기념품과 간식 등을 배포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조계사 무용단의 공연이, 3부 축하공연에서는 ‘비나리(최수정)’ ‘남도아리랑(백대웅)’ ‘트로트메들리(남상일)’ 등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졌다.

도문 스님은 “종교를 떠나 참석해주신 모든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보시(布施)를 실천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3000배 이타행…1달간 전국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난치병 환아돕기 철야정진

난치병으로 신음하는 어린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쾌유를 발원하는 철야정진이 도심 속 사찰에서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27일 조계사에서 오후 7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제13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3000배 철야정진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 종사자와 조계종 자원봉사단원, 후원자, 불교단체 회원, 일반신도 등이 동참해 1배(拜)를 할 때마다 100원씩 모금해, 백혈병과 심장병, 소아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난치병어린이를 후원하는 나눔 행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3년 전 시작된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은 참여인원이 점차 증가하면서 2011년부터는 전국적 행사로 확대돼 모연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해 ‘자리이타(自利利他)’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자승 스님은 “3000배 철야정진 행사야 말로 불교적 사상과 가치가 가장 잘 반영된 행사 중 하나”라며 “타인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일수록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 무주상보시 보살행을 실천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부대중을 격려했다.

원경 스님은 “오늘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어린 환아들에게 희망의 감로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012년에 열린 ‘제12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에서 마련된 모금으로 수술을 받은 김두종(13세·뮤코다당체침착증II) 학생이 참여해 또래 환우의 쾌유를 비는 발원문을 낭독해 의미를 더했다.



사부대중 2000여 명은 4월 27일 조계사에서 오후 7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예년에 비해 기업체의 후원도 잇따랐다. 기부단말기 업체인 ㈜스마트로에서는 신용카드 기부단말기와 키오스크를 설치해 현장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모연금 접수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국내 외식업체인 KFC에서는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한 모연금 지원을 약속하고 철야정진 참여자들을 위해 간식으로 햄버거 1000개를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새벽 4시의 쌀쌀한 기운 속에서 3000배 정진을 마치고 수행증을 받아 돌아갔다.

3000배 철야정진은 4월 22일 여주 신륵사를 시작으로 26일 직지사, 27일 조계사에 이어 5월 3일 의성 고운사, 17일 고창 선운사 등 각 지역 사찰에서 한 달여간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5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금은 지속 될 것이며, 모연금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난치병 어린이를 추천받아 6월 생활환경과 시급성을 고려한 공정한 선정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승군의 검무·화랑의 봉술·아수라의 바라무·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힐링살풀이·불교전통무용·민요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공연관람·공양(식사)

◈단 체 공 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한생각 일어나는 ‘당처’ 어디인가”

간화선 대법회

불심 도문 스님 (죽림정사 조실)

지난 4월 24일~5월 2일 간화선 대법회가 열렸다. 진제 법원 종정 스님을 시작으로 혜국 · 월탄 · 대원 · 무여 · 설정 · 현기 · 도문 · 고우 스님 순으로 법회가 이어졌고 조계사 앞마당은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5월 1일 열린 8번째 법회에서 불심 도문 대종사는 간화선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심 도문 대종사는 … 1946년 3월 백양사에서 용성문하 동헌 완규 조사를 은사((龍城門下東軒完圭)로 출가 1956년 만암 종헌 대종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용성문하 동산 혜일(龍城門下東山慧日)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50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순창 아미산 대모암에서 수선 안거 이래,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에서 58안거를 성만했다. (사)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이사, 조계종 감찰원 초대 감찰국장, 총무원 교무부장, 중앙종회의원, (재)대각회 창립 초대 사무국장 · 이사 · 상무이사 , (재)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지도법사, 용성 진종조사 탄생성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 조실로 역임하고 있다.

법이란 본래 법은 없는 법이요
〔法本法無法〕
‘없는 법’ 이라 하는 법도 또한 법이로다
〔無法法亦法〕
이제 ‘없는 법’ 을 부촉하는 때
〔今付無法時〕
법이란 법은 어찌한 거듭된 법인가
〔法法何曾法〕

이 게송은 시아본사 석가모니여래 불세존께서 마하가섭 제자에게 ‘나의 미묘법문(微妙法問) 실상무상(實相無相) 청정법안(淸淨法眼) 열반묘심(涅槃妙心) 정법안장(正法眼藏)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하시면서 전법하신 전법게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산회상에서 염화미소로 마하가섭 제자에게 정법안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마하가섭 제자에게 세 곳에서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 삼처전심(三處傳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삼처전심은 선(禪)의 원류가 됩니다.

그러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은 진정한 이치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치란 바로 진실본성(眞實本性)입니다. 북송 연수대사가 지은 〈종경록(宗鏡錄)〉에는 네 가지 마음인 육단심(肉團心), 연려심(緣慮心), 집기심(集起心), 견실심(堅實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육단심이란 육체적 생각에서 우러나는 마음입니다. 연려심이란 보고 듣는데서 분별하여 내는 마음입니다. 집기심이란 제 7 말나식(末那識)과 제 8 아뢰야식(阿賴耶識)을 말함인데, 이는 망상을 내는 깊은 속마음인 것입니다. 견실심이란 진실본성(眞實本性)으로써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을 말합니다. 참선은 참입선도(參入禪道)의 준말로 불성인 견실심(堅實心)을 보는 수행입니다.

전생이나 금생에 이미 수행한 참선 수행자 중에는 닦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은 닦아야 합니다. 닦아야 할 분을 위하여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삼관법(三觀法) 수행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관은 정관(靜觀), 환관(幻觀), 적관(寂觀)입니다. 정관수행 (靜觀修行)이란 안의 경계를 보는 수행입니다. 홀연히 한 생각이 일어나는 데 고요히 관하기를 ‘이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고 일어나는 당처(當處)가 어딘고?’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가 없는 도리를 깨달으면 고요해집니다. 고요함이 극치에 이르면 마침내 환하게 밝아져 버립니다. 이것이 정관입니다. 둘째로는 환관수행(幻觀修行)입니다. 이는 밖의 경계를 보는 수행입니다. 보고 듣는 그 모두를 허깨비 환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상은 환상이고 허상이지 실상이 아니라고 알아버림으로써 허깨비 꿈인 환몽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현상이 환상임을 깨닫게 되면 집착을 여의고 진실본성이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적관수행(寂觀修行)이란 안의 정관과 밖의 환관이 일치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안으로 번뇌 일어나는 것이 없고 밖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됨을 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관법이 참선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선수행에 있어서 중국 당나라 규봉 종밀선사께서 말씀하신 5종선이 있으니 이것이 △외도선(外道禪) △범부선(凡夫禪) △소승선(小乘禪) △대승선(大乘禪) △여래청정최상승선(如來淸淨最上乘禪)입니다.

이 중 소승선은 소승불교를 받들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관법 수행입니다. 탐애심(貪愛心)을 항복 받으려면 부정관(不淨觀) 관법수행을 해야하며 산란심(散亂心)을 항복 받으려면 수식관(數息觀) 관법수행을 해야 합니다. 진에심(瞋恚心)을 절복 받으려면 자비관(慈悲觀) 관법수행을 해야 합니다. 소승선은 지관(止觀)의 수행법입니다. 지관의 지(止)는 정지의 뜻이며 정적인 수행입니다. 마음을 거두어 망념을 쉬는 수행이지요. 지관의 관(觀)은 관달(觀達)의 뜻입니다. 동적 수행이지요. 지혜로 관조하여 진여(眞如)에 계합하는 수행입니다.

당처 없는 도리 깨치면 고요해지고
‘현상은 환상’ 알면 집착 여의며
번뇌 일지 않으면 참선 첫걸음



간화선 대법회가 4월 24일~5월 2일까지 조계사에서 열렸다. 사진은 5월 1일 불심 불심 도문 스님 법회 장면.

근본 소승 수행자가 닦아야 할 덕목이 37 조도법(助道法)입니다. 이는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精勤),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조력(五力), 칠각분(七覺分), 팔정도(八正道) 관법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승의 수행자가 닦는 관법수행으로 열반의 이상경에 나아가기 위하여 닦는 첫 도행이 사념처관입니다.

사념처관은 신념처(身念處), 수념처(受念處), 심념처(心念處), 법념처(法念處)를 말합니다.

첫째로 신념처관은 부모에게서 받은 이 육신은 부정하다고 관하는 부정관입니다. 둘째로 수념처관은 음행, 자녀, 재물 등을 보고 참된 즐거움이 아니고 모두 고통이라고 관하는 고상관(苦想觀)입니다.

셋째로 심념처관(心念處觀)은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변화한 무상한 것이라고 관하는 무상관입니다. 넷째로 법념처관(法念處觀)은 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 모든 존재인 만유에 대하여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다고 보는 무아관(無我觀)입니다.

또한 대승선은 대승불교를 받들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을 대승선이라고 합니다. 여래청정최상승선(如來淸淨最上乘禪)은 〈수릉엄경(首楞嚴經)〉에서 설한 여래가 소득한 선정으로 수릉엄삼매(首楞嚴三昧)입니다.

〈능가경(楞伽經)〉에 이르시기를 여래선은 ‘수릉엄삼매’ 라고 하였습니다. 여래선은 보리 달마조사가 전한 진선미(眞禪味)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나라 이후에 여래선이란 말은 조사선(祖師禪)이란 말과 함께 쓰게 되어 보리 달마조사의 정전(正傳)인 시아본사 석존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는 영산회상의 염화미소 다자탑전의 분반좌 쌍림수하의 곽시쌍부인 이심전심으로써 참된 선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래선은 〈능가경〉, 〈수릉엄경〉 등에서 여래의 교설에 의거하여 깨닫는 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간화선이란 무엇일까요? 간화선(看話禪)의 간(看)은 보는 것입니다. 이때 본다는 것은 용성 진종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한 유견(有見)과 무상한 무견(無見)의 양변(兩邊)을 놓아버리는 것이 중도이고 이 중도를 깨친 것이 정견이므로 일체 관념의 상을 놓아버리는 안목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간화의 화(話)는 화두를 말합니다. 간화선의 삼대 요건은 대신근(大信根) 대분지(大憤志) 대의정(大疑情)입니다. 대신근(大信根)이라 함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겁 다생의 인행(因行)을 마치고 일체 중생의 교화를 위해 사바세계 남섬부주 서역 인도 보리수원 금강보좌 위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올바른 깨달음인 연기법으로 성도하시고 바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기이하도다. 내가 지금 널리 일체 중생을 살펴보니 여래의 지혜 덕상을 모두 갖추어 있건마는 단지 망상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또〈대반열반경〉에 이르시기를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 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나에게도 부처님의 불성과 똑같은 진실본성이 있다, 나에게도 역대전등 제대조사의 자성과 똑같은 진실본성이 있다고 뿌리깊이 확실하게 믿는 수행을 말합니다.

대분지라 함은 제불제보살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이미 저렇게 되셨도다, 모든 부처님이 하셔서 되셨도다, 역대전등 제대조사도 하셔서 되셨도다. 나도 하면 된다는 분한 큰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대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의정이라 함은 명안조사를 친견하여 화두를 결택 받아 대의정으로 참구하여 확철대오함으로써 불타 조사의 가르치심을 증명하여 불타 조사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역대 조사님들의 원력을 본받아 앞으로 불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석존의 영산회상에서 미륵존의 용화회상으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간화 활구 조사선이 아래로 외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여래청정최상승선을 모두 섭수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Colorful DAEGU 대구광역시교육청
형형색색
달구벌관등놀이 · 연등회
_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5월 9일(목) ~11일(토)
두류공원 야구장 일대
“관등탑점등식” 4. 27(토) 오후 7시 | 국채보상기념공원 달구벌종각 앞
“소연콘서트” 5. 09(목) 오후 7시 | 두류공원 야구장 일대
“축하공연” 5. 10(금) 오후 7시 | 두류공원 야구장 일대
“연등회 법요식” 5. 11(토) 오후 7시 | 두류공원 야구장 일대
“관등행렬” 5. 11(토) 오후 8시 | 두류공원 야구장 ~ 반월당 네거리
소연콘서트 “소나기 마음운동”
진명스님과 함께하는 “소연콘서트”
관 무용단의 보살춤 공연
맑은 소리 연주단 공연
일 시 | 불기2557년 5월 9일(목) 오후 7시
장 소 | 두류공원 야구장 주 무대
문화마당
불교문화 체험
감성 · 나눔 실천 체험
세계문화 체험
Green · Eco 체험
한지등 만들기
전통민속놀이 체험 및 소품만들기
일 시 | 불기2557년 5월 9일(목) ~ 11일(토)
장 소 | 두류공원 야구장 주 무대
전시마당
한지로 제작된 전통 등(燈)으로 구성하여 축제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하며, 대규모의 장엄 등(燈)이 아니라 친근감이 있는 소규모의 등(燈)을 퍼즐 조각 맞추듯 희망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채롭게 전시 마당 구성.
일 시 | 불기2557년 5월 9일(목) ~ 11일(토)
장 소 | 두류공원 야구장 주 무대
사단법인 대구불교총연합회
TEL 053.623.6388 / 070. 8621.1488
WEB www.gwandeung.or.kr
facebook www.facebook.com/gwandeung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계 힘으로 사지 시굴·발굴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 5월 1일 경주 미탄사지서 정토재 봉행

"지금 우리는 미탄사지 삼층석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절터 역사는 천년의 시간 영원한 침묵의 열반에 들어 있었습니다. 옛 절터의 홀로남은 석탑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래된 역사가 다시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사지에 대한 시·발굴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가 5월 1일 경주 미탄사지에서 정토재를 열고 사업 시작을 알렸다.

전국사지 시·발굴 조사사업은 이날부터 2017년까지 전국 폐사지 중 훼손이 심각한 곳이나 역사·문화·교육 효과가 큰 곳부터 실시된다. 2013년에는 경주 미탄사와 보성 개흥사 옛 절터에 대한 시굴사업이 진행되며 서울 삼천사, 삼척 삼화사 옛 절터 등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토재에는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림 스님과 임석규 유적연구실장 이하 연구소 연구원들과 채수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 류춘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이주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토재는 헌향과 헌다, 관수 등 불교의 범과 고불문 낭독, 사업보고 및 격려사와 인삿말 순으로 진행됐다. 소장 각림 스님은 한글로 된 장문의 고불문을 통해 첫 사지 시·발굴사업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각림 스님은 "어려서부터 비가 올 때면 옛 절터에 뒹구는 기와 등 수많은 유구들을 볼 수 있었다"며 "오늘날 이러한 역사현장과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흔적이 방치된 채로 사라져 간다는 점에서 승가의 일원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단순히 사지조사에 그치지 않고 불교계 힘으로 시·발굴 조사사업을 진행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17년까지 사지 시·발굴사업 진행
보성 개흥사, 서울 삼천사 등 계획
사찰 자료 및 기술 확보 계기

채수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은 "시굴사업이 잘 진행돼 역사적 흔적을 찾길 바란다"며 "안전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주 미탄사지에서 열린 정토재에서 고불문을 낭독하는 불교문호재연구소장 각림 스님과 관계자들

한편, 미탄사지는 경주 미탄사는 〈삼국유사〉에 황룡사 남쪽 미탄사의 남쪽에 최치원(崔致遠)의 옛 집이 있었다는 사명이 기록돼 있는 신라고찰이다.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미탄사는 황룡사 남쪽 삼층석탑 주변으로 비정돼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980년 이 기록에 따라 황룡사 남쪽 탑지 주변을 조사해 미탄사지 석탑을 복원했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은 "총 35000평방미터 규모로 4명의 연구원과 6명의 인부를 투입해 37일간 시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탄사는 황룡사 남측 경계와 맞 닿아 있어 신라 왕경 사찰의 도로체계 등 사찰 연구의 새로운 학술자료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계 수지 확산… 생태계 파괴 방지"

'삼귀의와 오계' 학술세미나서 한 목소리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는 욕망의 충족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자들부터 오계를 수지한다면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율장위원회가 개최한 '삼귀의와 오계' 학술세미나서 삼귀의와 오계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의 '삼귀오계의 국제적 확산을 바라며' 기조발제와 함께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경성 스님의 '삼보의 정의와 삼귀의계', 前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대우 스님의 '삼귀의계의 제정과 그 정착 과정',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의 '삼귀의계의 역사 및 역할',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의 '오계와 윤리도덕', 계단위원 지운 스님의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오계의 재해석' 등이 발표됐다.

이날 율장연구회 회장 철우 스님은 대회사에서 "지계에 대해 모든 선지식들이 한목소리로 언설하였어도 후학들이 이를 가벼이 여기고 있다"며 "계율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불교계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계단위원 지운 스님은 '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오계 재해석'에서 "오계는 특히 식문화와 관련이 깊다"며 "오계를 지키면 건강을 지키고 또 식육을 위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이는 지구온난화 등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지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원로의원 인환 스님도 기조발제 '삼귀오계의 국제적 확산을 바라며'에서 "출재가를 막론하고 계는 지켜져야 한다"며 "계를 통한 수범수제에서 불교는 종교로서 존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회 전통보다 사회통합 의미가 중요"

홍윤식 한국불교민속학회장, 5월 3일 '연등회' 세미나서

"연등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적 전통성을 재검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한국불교민속학회(회장 홍윤식)는 5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등회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홍윤식 한국불교민속학회장이 '연등회의 전통과 그 전승'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홍윤식 한국불교민속회장은 "연등회의 문화적 가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충분하지만 그 전통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고려시대 연등회가 오늘의 연등회가 될 수 없다"며 "역으로 보편적 문화로서 연등회가 인식되고 문화형성의 주체로서 역할을 인정받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연등회는 분명 다양한 갈등을 지닌 한국사회에 화합을 유도하는 힘이 있다"며 "전통에 치우치기 보다 오히려 전국민의 축제가 돼 그 기능을 확산시켜나갈 때 그 의의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무영 일본 아이치대 교수의 '초파일연등의 역사성과 고유사상' △김용덕 한양대 교수의 '불교 전통연등의 전승실태 분석' △구미래 동국대 외래교수의 '연등의 상징성과 민속적 수용양상' △동국대 교수 법현 스님의 '영산재 의식문에 쓰인 등에 대한 찬(讚)의 형식 연구' △홍태한 중앙대 겸임교수의 '민간신앙에서 등의 의미' △이윤수 고려대 외래교수의 '문화콘텐츠로 고찰하는 연등회의 축제성'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문화재소식

제7회 원효학술상에 조성택·김재영 등 선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5월 3일 제4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로 교수 부문에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불교와 불교학〉, 비전임교수 부문에 김재영 동방불교대 교수의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 김영일 동국대 연구교수의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학생 부문에 송진섭 연세대 박사과정의 〈대승불교 윤리이론이 지닌 정형적 형식에 대한 고찰〉을 선정했다.

제4회 원효학술상에는 총 24편이 접수됐다. 시상식은 8일 오후 4시 30분 다보빌딩 3층법당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조성택 교수


김재영 교수


김영일 교수


송진섭 박사과정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에 조계종 스님 7명 위촉

5월 2일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이 새롭게 구성한 문화재위원회에 조계종 스님이 9명이 대거 위촉됐다.

조계종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건축문화재분과-진명 스님(조계종 문화부장) △동산문화재분과-흥선 스님(직지사 주지) △사적분과-원학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무형문화재분과-인묵 스님(조계종의례위원장) △천연기념물분과-장명 스님(조계종 환경위원장) △근대문화재분과-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세계유산분과-장적 스님(세계유산분과문화재위원 연임) 등 7명이다.

전문위원으로는 △건축문화재분과-각림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장) △무형문화재분과-미등스님(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이 각각 위촉됐다.

이번 지정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 79명, 전문위원 189명으로 새롭게 구성했으며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있는 인사 중 특정 대학·지역·분야·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차기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문화재위원 전체회의는 5월 7일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4월 30일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를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陜川 海印寺 觀音庵 內典隨函音疏)'는 1245년(고려 고종 32)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하여 완성한 경판이다.

내전(內典)은 부처의 설법을 담은 불경이고 음소(音疏)는 음에 대한 해석을 뜻하는 것으로, 내용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여섯 가지 실천덕목인 육바라밀다(六波羅蜜多)를 설명한 것에 대한 주석이다.

본문은 반야(般若)가 한역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의 10권에 대한 음의(音義)가 수록됐고 권말에는 '을사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가 있다.

재조대장경의 간인본에는 남아 있으나 대장목록에는 없으므로 대장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밖에 이날 문화재청은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九里 太祖 健元陵 神道碑)',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서울 太宗 獻陵 神道碑)',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서울 世宗 英陵 神道碑)' 등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제34호 발간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최근 〈불교학연구〉 제34호를 발간했다.

34호에는 △김영진 동국대 HK연구교수의 '중국 위진불교의 운명 이해와 인과론' △前동국대 강사 자명 스님의 '신심명의 화법에 대한 분석적 연구' △동국대 강사 선응 스님의 '원오의 심요에 나타난 선사상 고찰' △고승학 동국대 HK연구교수의 '신화엄경론에 나타난 이통현의 화엄경 해석의 특징'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십문화쟁론 공(空)/유(有) 화쟁의 해석학적 번역과 논지 분석' 등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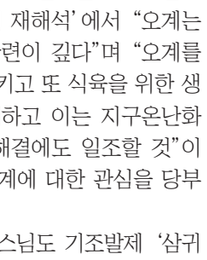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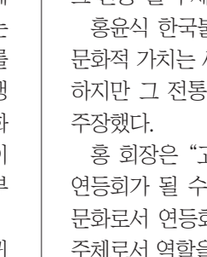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전라도는 이미 부처님오신날이여~

5월 1일 광주 점등식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봉축행사가 광주 · 전남지역에서 개최됐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만효)는 5월 1일 지역 승가단체인 무등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광주지역불교신행단체와 공동으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불을 밝힌 이번 점등식 행사에는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만효 스님, 지각 스님,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을 비롯해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장, 정영균 포교사단장 등 300여명이 대중이 참여했다.

만효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의 올바른 말씀이 광주시민을 비롯해 모든 생명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다가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증심사와 원각사, 카일라스, 부루나 합창단의 연합 음성공양 등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범일)는 4월 27~28일 양일간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 '제7회 순천 등축제'를 개최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제5회 어린이 · 청소년 연꽃문화제와 불교문화 예술제가 개최됐다.

첫날 열린 연꽃문화제에는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와 청소년들의 노래와 댄스, 악기 경연대회인 B-POP 오디션 축제가 개최돼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둘째날에는 등축제가 봉행됐다. 앞서 불교문화 경연대회, 비빔밥 2013그릇 무차만

순천 제7회 등축제 개최 큰 호응

구례 점등식 및 연꽃문화제 등 열려



4월 27일 열린 연꽃문화재에서 입상한 참가자들이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발공양, 대승유치원 공연, 연꽃문화제 시상식 등이 봉행됐다.

등축제에는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의 개식선언과 함께 선암사 범패 공연과 노정은 무용단의 춤공양, 도량석과 육법공양 등 불교의범이 진행됐다.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법문에서 "봉축행사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등축제에는 불교의 사성제를 형상화한 장엄물이 설치돼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내용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구례사암연합회(회장 영관, 화엄사 주지)도 5월 2일 구례경찰서 앞 로터리에서 봉축장엄물 점등식을 봉행했다.

아기부처님이 연꽃 위에서 탄생게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은 봉축장엄물 점등식에는 영관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대중스님들과 서기동 구례군수, 신도 300여명이 참여했다.

영관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행복바라미 캠페인 전북도 동참

자비정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전북지역 곳곳에서 열렸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이 모금 현장을 찾아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희망잔치 눈길

4월 28일 광산옥동경기장서…1000명 참가해 시름 달래

전국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희망잔치가 빛고을 광주에서 열렸다.

아시아밝음공동체(센터장 도제)는 4월 28일 광산구 옥동경기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 이주민 어울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전통의례와 기념식,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도레미밴드 공연 등이 진행돼 낯선 타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시름을 달래는 하루가 되었다.

또 치과, 한방, 결핵검진 등 의료봉사와 단주만들기, 컵등 만들기 등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부스도 설치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주최한 도제 스님은 "한국은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인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이주민들의 용기와 힘을 보태고, 활기찬 한국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의 스님들이 참석해 이주노동자들을 축원하는 기도와 신앙상담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광주전남전법단장 효진 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노휴 스님, 민형배 광산구청장,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주민 어울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불교기를 게양하는 불교계 대표 인사들

전북불교신도회, 자살예방 공개강좌 인기

4월 28일 전북광역정신보건센터서…원행 스님 강의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는 4월 28일 전북광역정신보건센터(센터장 박민철)와 함께 자살예방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4위에 달하는 지역이다. 이날 공개강좌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강사로 나서 대중들에게 생명존중 사상을 일깨웠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을 가득 메운 500여 대중들은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되새겼다.

원행 스님은 이날 아함경의 맹구우목의 예를 들며 불교의 인연법을 설명하고 "모든 만물은 그물코와 같은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것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인연의 존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남겨진 가족과 주변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이 순간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충만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만한 이유는 없다"며 "나눔과 자비로운 삶을 통해 참회하는 삶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강좌 후에는 생명 지키기 7대 선언과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캠페인 10만명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월 28일 전북광역정신보건센터에는 500여 대중이 모여 강연을 경청했다.

전주 35향토사단 세병호 연등제 개최

35보병사단(사단장 정한기 소장)내 세병호(洗兵湖) 연등제가 5월 1일 충경부대 세병호 광장에서 개최됐다.

퓨전국악밴드 '소리애'의 식전공연과 군악대의 찬불가 연주로 시작된 이날 세병호 연등제에는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봉축위 집행위원장 원혜 스님, 전북불교회관 원감 보륭 스님을 비롯한 봉축위 스님들과 정한기 35사단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전북포교사단장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세계평화와 민족의 대화합이 반드시 이뤄져 전쟁과 테러,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설했다.

스님은 또 "호국 충경부대 장병들은 언제나 자비심과 용맹심을 잃지않고 호국애민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한기 소장은 환영사에서 "세병호 연등제를 계기로 부처님의 참 뜻을 본받고 호국불교의 위대한 정신을 되새기겠다"며 "세병호 연등이 충경부대 장병들의 앞길을 밝게 비추는 광명의 등불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충경부대가 전북 임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번 세병호에서의 연등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누우리, 자선 산사음악회 성황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이사장 근아)는 4월 27일 전북 탑사(주지 진성)에서 제2회 희망나눔 자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자선 음악회는 대법고와 범종 타종과 전북대 전통무용단의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자선음악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나누우리 이사장 근아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윤유순 태고종 전국신도회장, 송영선 진안군수, 나우누리 봉사단 500여명이 참석했다.

자선 음악회에 앞서 '나누우리'는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도훈, 임다혜 학생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또 탑사 회주 혜명 스님은 진안군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나누우리 이사장 근아 스님은 "음악을



통해 나눔의 소중함과 불교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함으로써 나눔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자선 음악회를 통한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탑사 회주 혜명 스님은 "음악회를 통해 진정한 나눔과 자비보시의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등 물결 일렁이니 온 세상 자비의 물결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 맞아 대구 · 부산 봉축 행사 풍성

봉축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봉축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부산불교연합회의 점등식 행사에서부터 대구 달구벌 관등놀이까지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 봉축 행사들을 모아봤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상징대보탑등 점등식 행사를 개최하고 2013부산연등축제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4월 27일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聯 연등축제 개막식
대구불교총聯 달구벌 관등놀이
홍법사-동자승 단기출가


홍법사 동자승 삭발식


대구 형행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부산불교연합회의 점등식 행사

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0여명이 동참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렸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점등사에서 '2013 부산연등축제는 글로벌 문화축제, 시민들이 즐거이 참가하는 축제,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자' 고 전했다.

올해로 2번째를 맞은 대구불교총연합회의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는 4월 27일 국채보상공원에서 관등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희망의 달구벌 삼층관등탑' 은 전통한지와 등으로 제작된 12m 높이로 약사여래의 지혜가 온누리에 가득하라는 염원을 담았다.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은 봉행사를 통해 "마음에 자비로 구원의 등불을 밝히고 뭇중생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다.

'2013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두류공원 야구장에 전통 한지등 전시와 문화체험마당, 축하공연 등도 함께 펼치며 관등행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부산 홍법사는 4월 27일 부산 홍법사에서 3일간의 행자생활을 마친 어린이들이 동자승 삭발수계식 행사를 진행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출가자의 탄생은 무한한 공덕이 있다. 비록 21일간의 단기출가이지만 이것도 거룩한 발심이고 소중한 경험과 공덕이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8회째 진행되는 홍법사 '부처님과 함께하는 21일간의 동자승 단기출가' 에는 총 13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삭발식을 거친 동자승들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17일까지 총 21일간의 출가체험을 하고 회향환계식을 끝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범어사 또한 부산역 점등행사에 이어 부산 광복로에서 한반도평화기원 봉축상징탑 점등식을 개최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도 충청북도불교총연합합회(회장 법주사 주지 현조스님)는 4월 27일에는 청주대교 분수대공원에서 '2013 오송 화장품 · 뷰티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봉축탑 점등식' 을 가졌다. 또한 당진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안스님)는 4월28일 당진 문예의전당에서 '제9회 당진시 국운융창 시민발전 연등회' 를 개최으며 대전시청불자회(회장 이원종)도 4월29일 시청 남문 앞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가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박경수 부산지사장

통도사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대법회

6월 25일부터 100일 기도 입재


통도사서 개최된 남북통일 대법회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시기에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대법회를 양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조계종이 주최하고 영축총림 통도사가 주관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기원 대법회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불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선열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평화영상, 대북취타, 삼귀의, 반야심경, 봉행사, 대회사, 기원문, 통일발원문, 평화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한반도평화대회 공운운영위원장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북한은 개혁과 개방, 소통의 장으로 나와야 하고, 우리 정부는 다양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조국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9월 대대적인 행사로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대회의 원만성취와 시민과 불자들의 평화 염원을 결집하기 위해 6월25일부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100일 기도에 들어간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여성개발원 지원장 취임식

불교여성개발원부산지원(원장 김귀경)은 4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4대 지원장 취임식과 부산불교의 활력을 불어 넣을 청년 불자들의 모임인 'young 108인회' 창립발대식을 개최했다.

4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김귀경 회장은 "오늘 영108인회 발대식은 부산불교의 젊고 튼튼한 뿌리와 열매가 되길 기원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마곡사-숲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도입

마곡사와 시민모임인 '숲과 에너지' 가 4월 28일 사찰 중심 산촌 마을형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자립화 모델 개발에 나선다. 마곡사와 숲과 에너지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찰에너지 비용절감 사업과 생태적 순환에너지 시스템 구축, 공익적 에너지 절감활동을 통한 사찰의 지역사회 위상 강화 사업 등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양측이 맺은 업무협약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주최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정혜숙 기자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현수막과 전각 현판 제자리에 걸자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용 현수막이 넘쳐난다. 해당 절의 홍보와 신도 유치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려 해도 그 도가 지나친 것이 있다. 바로 대웅전 앞을 가리며 대웅보전 문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다. 다른 곳도 아닌 사찰의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부처님을 모신 대웅보전 앞에 현수막을 내건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경관을 헤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본존불을 주로 모셔 사찰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참배하는 법당인 대웅전 앞에 저렇게 버젓이 걸어놓은 현수막은 눈에 거슬린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또 있다. 사찰 가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람과 어울리지 않는 현판을 붙박이용으로 걸어놓고 있는 것이다.

한눈에 봐도 천연덕스럽게 휘어지고 뒤틀린 목재를 사용해서 뻗은 기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종무소 팻말과 접수 현수막이 걸려있어 그 아름다움을 막고 있다.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또는 문화재를 감상하기 위해 오는 불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적어도 소박하고 고즈넉한 사찰 본래의 맛을 느끼게 해주려면 현수막과 현판만큼은 제자리를 찾아 걸어 두어야 할 것이다.

독자 김성태(KBS)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이 대웅전 앞을 가린 ㅅ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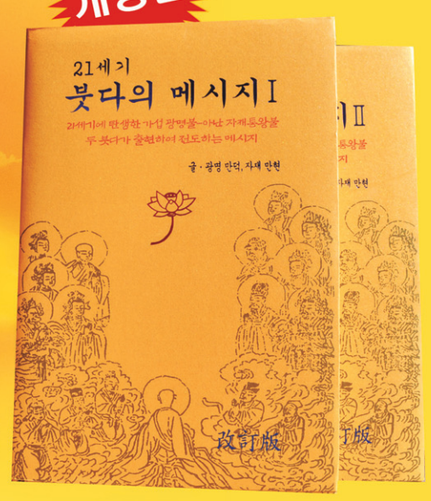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ㄱ 사찰의 1995년 촬영한 모습(위)과 최근 현판을 붙박이로 걸어놓은 모습(아래). 가람의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3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 도서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



연등회 공감여행

템플스테이와 SNS와 친구맺기,
템플스테이 앱 다운로드



연등회 나눔여행

사찰음식 전시, 식문화 개선 캠페인

연등회 행복여행

행복 여권(Passport)만들기,
행복한 힐링 윤장대, 한지 만들기,
행복의 방 체험, 동자승 채색 체험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5천만 대한민국의 문화축제 연등회.
나만의 행복을 만나는 행복여행
템플스테이,
365일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는
템플스테이가 되겠습니다.

연등회와 템플스테이로 나만의 행복여행을 떠나자!





OX Quiz

연등회 문화여행

템플스테이 '있다, 없다' 퀴즈
(우승자에게 전하는 템플스테이 기념품)

- **기간 :** 2557(2013)년 5월 12일
- **장소 :**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앞(우정국로 일대)



나를 위한 행복여행 –
템플스테이



희상스님의 [낡은 고무신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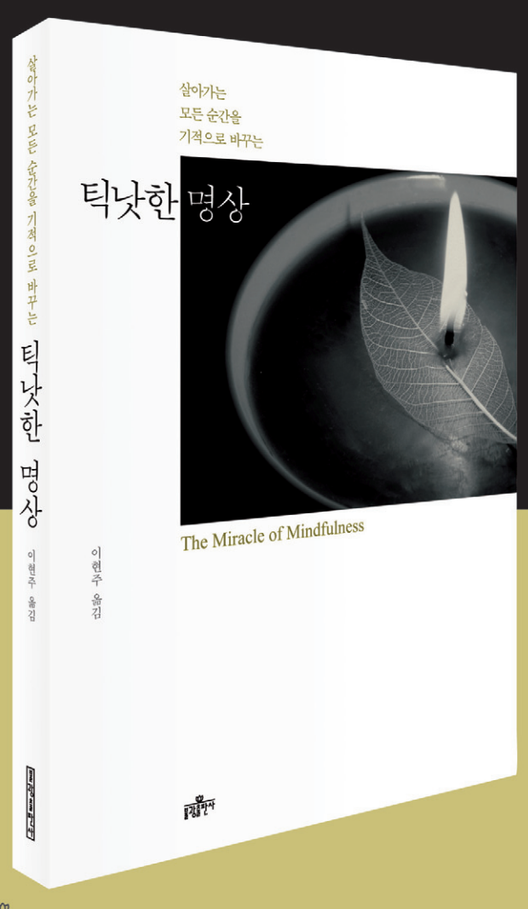
2013년 5월 6일(월)~18일(토)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



www.templestay.com twitter.com/templestaykorea facebook.com/templestay me2day.net/templestay TEL 02. 2031. 2000~2

템플스테이 TEMPLESTAY

The Miracle of Mindfulness



먹고, 걷고, 일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는

틱낫한 스님 명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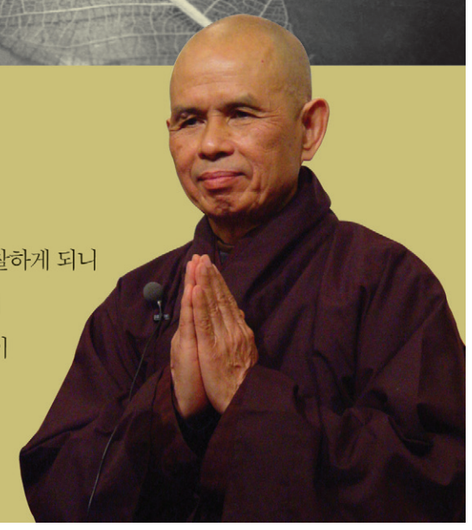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이현주 옮김 | 160쪽 | 11,000원

유나방송 정목 스님 추천!

"스님 책을 읽는 동안 나 자신도 몇 번씩 호흡을 의식하며 책 읽는 나 스스로를 관찰하게 되니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관찰 수행 같기만 합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물이듯이 어지러워진 마음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 수 있을 때 미혹된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 되새기며, 스님 책이 많은 이의 미혹된 마음을 참마음으로 바꾸어놓기를 기대합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민생구제는 위정자 몫, 위정자 독려는 승가 몫”



方山老의 無影樹 〈12〉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전창열 변호사



전창열
국방부 법무관리감, 육군본부 법무감
법조불교인회 회장, 변호사 활동

“나라 ·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돼야”
중국수교 예견… “중국말 공부해라”
성철 스님과는 서로 존경하는 외우
교양대학 ‘3 · 1선원’ 다시 문열계획

–언제, 탄허 스님을 만나시게 되었나요?

대불련이 1963년 9월에 결성되고 그해 겨울에 대불련이 법주사에 가서 제1회 수련대회를 하였어요. 그때 추담 스님이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에 이기영 박사가 오대산에서 대불련의 제2회 수련대회를 하고 나오셨어요. 이때에 나는 대한불교청년회가 주관한 이기영 박사의 원효의 대승기신론 강좌를 들어서 이박사를 알고 있었지요. 이박사가 월정사에를 갔다 오시더니, 오대산에 생불(生佛) 같은 스님이 있다고 하시면서 탄허 스님을 극구 칭찬하시더라구요. 나하고 명호근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후에 신문에 탄허 스님이 조계사에 나오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 나하고 명호근이 스님을 뵈러 조계사 주지방에 간 거지요. 잠시 인사만 드린다고 하였는데, 그만 한 시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우리들은 대학생으로 혈기가 펄펄하였을 때였고, 그 당시만 해도 젊은 불자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를 만난 스님은 동양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국가와 불교의 문제를 죽 이야기하셨어요. 왕도정치와 패도정치, 국가적 과제와 지도자의 자세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도 하시면서 청년들의 자세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어요. 동양사상과 역사적 사례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본 우리는 완전히 뽕 간 것이지요. 그때 스님은 돌안경을 쓰셨는데, 얼굴이 훤한 게 달덩이 같았어요. 눈에서는 광채가 나서,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요.

–탄허 스님은 국가와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지요?

그럼요. 사실 스님은 국가의 현실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나름의 원칙이 있으셨어요. 스님은 크게는 우주의 진리를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 식으로 동양사상에 입각해서 집권자를 제대로 교화시켜서 세상에 진리를 구현하시는 방식을 생각하였어요. 이를테면 왕사의 역할을 기대하셨지요. 스님은 출세간에서도 할 역할이 있지만, 세간에서는 국왕에게 부촉을 해서, 국왕이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게 해서, 나라를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의 의지와 의리를 강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나라와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렇게 끼니가 없이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용돈도 주시면서 일생을 나라를 위해 바쳤다는 칭찬을 하셨어요. 일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바치고, 해방이 되어서는 건국 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뜻이었지요. 스님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스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해운거사지요. 그 분은 주역, 정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관상을 봐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젊었으니 불교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현상, 현실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청룡사 시절에 중국어 강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들으셨는가요?

그럼요. 그때가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핑퐁외교를 하기 직전인데 스님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통한다고 하시면서 중국말을 배우면 출세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선 말엽에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에 득세를 하고 일할 수 있었고, 일제시대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해방이 돼서 득세를 하고 일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가까워질 터이니 중국어를 배워 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려면 중국어 선생이 필요해서, 내가 선생을 찾으러 갔어요. 시청, 프라자 호텔 뒤에 중국 책방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그 책방 주인의 딸이 화교학교 선생이었는데, 내가 그 분을 초청해서 시작하였어요. 강의는 스님 방에서 하였는데 한 3개월을 하였지요. 동양사상 강의는 청룡사의 누각 위에 있는 보제루에서 하였는데 4, 50여 명이 들었지만 중국어는 열댓 명이 들었어요. 나도 끝까지 들었지요. 그때 탄허 스님은 중국어를 배워서 짧은 의사표시도 하고, 중국 스님이 오시면 대화를 자유롭게 하실 정도가 됐어요. 중국 스님들은 고사에 어두우니깐 스님이 고전, 한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하여간 스님은 중국과 통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 그렇게 가까워질까 하면서 확신이 없었지요. 다만 배워 놓으면 좋다고만 했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할 일도 있고 해서. 그 통에 간단한 이야기와 발음 정도만 알았지요.

–탄허 스님이 다른 큰스님들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스님이 다른 스님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스님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당신 나름대로의 처방을 갖고 계셨어요. 다른 스님들은 선문답이나 불교의 기본 교리를 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스님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동양의 역사 속에서 적합한 사례를 찾아서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방안, 처방을 내놓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그 분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양 역사를 통해서 현실의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스님은 우선 유교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다음에는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도교, 선교를 제시하고 그 연후에는 그런 것을 회향하기 위해 불교라는 종지로 정리하셨지요.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종지를 강조하셨는데, 스님은 선지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불교의 종지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고, 근본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의 이야기는 대기설법이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늘 종지에 의해서, 선지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요. 즉 스님은 말이 없는 본원 자리로 가도록 모든 사람을 가르쳤어요. 스님이 입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한암 스님이 중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전에는 한암 스님이 스님을 너무 편애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학문이 깊으니 그리 하신 것이고, 입산 후에 3년간 묵언을 시킨 것도 선을 체득시킨 게 아닌가 하고 봅니다. 스님은 거기에서부터 이미 선의 경지에서 학문을 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화두 아닌 게 없어요. 구태여 우리가 간화선, 조사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화두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에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님은 그 자리, 공(空) 도리 그 자리, 본원(本源) 자리로 회향하도록 사람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스님의 화엄사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보기에 참선은 말이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써 대상을 보지만 눈은 눈 자신을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안다고 할 때에는 안이비설신의가 전부 대상이라, 그래서 그 자리는 달마(達磨)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이 잔을 내리치면서 나는 소리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없다고, 그런 것을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말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교학체계가 최상으로,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이 화엄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님은 화엄경을 강조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마설(魔說)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말로 조작된 것이라고 보셨어요. 이런 면에서 스님의 선사(禪師)의 경지가 딱 드러나지요.

–탄허 스님이 성철 스님의 책을 보지 마라, 혹은 선문정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증언이 있어요.

글쎄,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어떤 말 하나만 갖고 큰스님들의 평가, 위상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김용사에 들어가 있을 적에 들은 것은, 성철 스님이 육조단경은 탄허 번역만 보라고 그랬어요. 성철 스님은 탄허 스님의 한문 실력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하셨어요. 성철 스님도 탄허 스님을 인정했어요. 두 분은 서로 존경했어요. 내가 보기에 탄허 스님이 남을 비판하는 어법을 고려할 때에 성철 스님을 비판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워요. 두 분은 서로 존경하는 외우(畏友)예요. 성철 스님이 월정사 대웅전 공사할 때에 1주일을 방산굴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법으로 보면 점수(漸修)와 돈오(頓悟)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그때 그때의 방편설이거든요. 그런 말끝에 놀아나면 안 돼요.

–스님은 도의적 인재양성을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화엄론 회석의 서문에 조금 이야기해 놓았어요. 스님은 원시시대부터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오행설에 근거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원시시대에는 목극토이기에 농경사회(농기구)가 온다, 그 다음에는 금극목이기에 철기구가 주도하는 사회가 오고, 그 후에는 화극금이기에 화약이 지배하는 사회가 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 시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수극화예요. 수는 물이지만 지혜이기도 해요. 수극화가 의미하는 사회의 상징은 컴퓨터예요. 분별지가 최고의 극치가 되는 것이지요. 원시시대에서부터 부정을 거친 긍정이기에 앞으로는 도의적 인재가 필요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의적 인재는 무엇인가? 이것은 일즉다(一卽多)의 세계, 일즉다 다즉일을 생활하는 세계, 그것을 아는 세계, 말하자면 자기를 잊는 것 즉 동체대비(同體大悲)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표현하지, 실제는 그리 안 되잖아요. 요즘 시대를 보면 거의 안 돼,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도의적 인재라는 것은 화엄경의 몇 구절을 아는 것이 결코 아녜요. 어떤 면에서는 도인(道人), 달사(達士)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큰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자기 에고가 엷어지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의 지도자들은 남을 등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도자가 아녜요. 스님이 말한 도의적 인재는 도덕, 윤리, 질서와 같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동체대비, 다즉일, 에고(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갖추어진 인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분별지마다 지혜를 갖추어야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직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내가 우주라는 화엄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하여간에 도의적 인재에 대한 개념은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탄허 스님은 조계종단과 공부 안 하는 스님들의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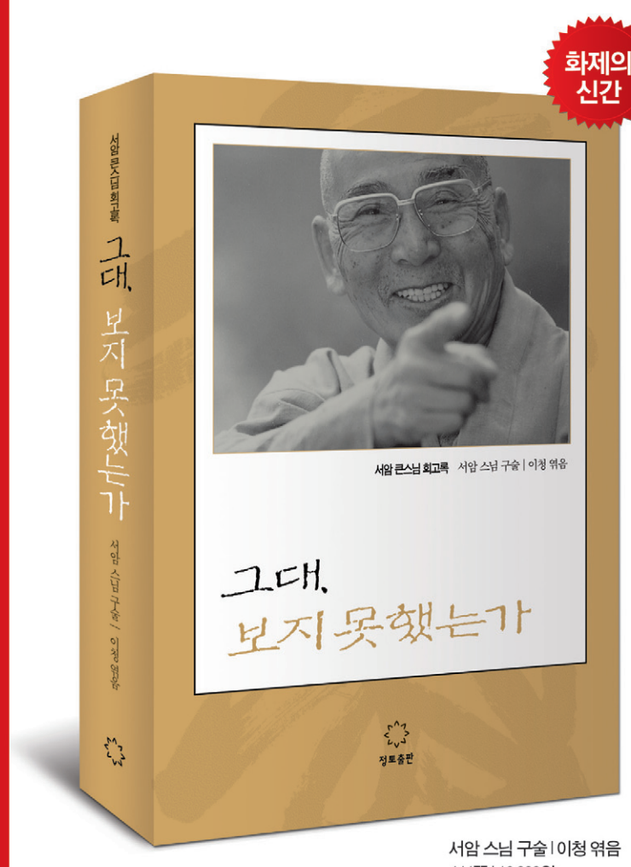
스님은 불교라는 주물 틀을 우주 진리가 감싸고 있고, 당신은 국가를 지도할 능력이 있으며, 살아 있는 진리를 민족에게 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비구 대처의 싸움을 하는 조계종의 이권 다툼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스님은 민생구제와 국민정신 순화는 위정자의 몫이고 스님들은 위정자에게 철학과 사상을 제시하고, 뒤에서 역할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비구승 열 명을 기르는 것보다 한 명의 불교 정치가를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원음(原音)을 승려들에게 가르쳐서, 승려들이 그 본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중흥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셨지요. 그것이 그분의 시종일관한 교육관, 불교관이에요. 어떤 때에는 앞으로 불교는 흥하지만, 조계종은 망한다고 농담 비슷하게 하셨어요. 스님은 한국에는 불교의 형태는 있지만 정신은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스님에게도 부친에게서 배운, 전해진 습기(習氣) 같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부친이 종교를 통한 독립운동, 개벽을 지향하였으니 스님도 말년에는 개혁을 말씀하셨어요. 수월 스님, 혜월 스님이 농사, 고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였는데 그런 농사, 고행은 그 스님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이 습기인 셈이지요. 이처럼 스님이 깨달았다면, 스님은 보림의 수도 차원에서 자기 적성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한 것이지요. 즉 스님은 선사로서의 면모로 경학과 교육을 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당신의 살림살이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해요.

–스님은 대전 학하리를 인재양성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스님이 인재양성을 한 것은 오대산 수도원이 제일 먼저이고, 두 번째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면 사람을 잘 뽑아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 스님은 일본의 명치유신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명치유신처럼 소수정예가 일본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하시면서 뜻과 이상을 같이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생각을 말씀했어요. 스님은 학하리를 도의적 인재양성의 터전, 거점으로는 제일 적지라고 말씀했어요. 그곳은 송시열의 사당이 있던 곳인데, 스님은 늘 그곳을 인재양성의 적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님이 진관사에 계실 때에 나하고 명호근이 가서 뵈다가 우연히 인재양성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스님의 뜻, 유지를 이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겠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그 법인의 이름을 ‘3 · 1’로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 주셨어요. 아마 그 3 · 1은 주역, 삼위일체, 삼덕일심 등 불교적 상징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스님이 돌아가시고 재단을 만들 때에 3 · 1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스님의 이름을 넣어서 해야 한다고 하여 재단명칭에는 넣지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각성 스님을 모시고 서울 강북의 포교당을 만들 때에는 3 · 1선원이라는 명칭으로 했어요. 지금은 여러 사정상 문을 닫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열려고 합니다. 3 · 1선원은 1985년도에 만들었는데, 한국불교 교양대학의 효시입니다. 처음에는 방배동에서 시작하였지만, 그 포교당의 커리큘럼을 짜는 것, 법사를 모셔오는 것은 손창대 형이 주관으로 했지요. 그 형은 대불청 주관으로 법통사에서 나온 불교성전을 만든 주역이라, 그런 것에 능했어요. 앞으로는 3 · 1포교당을 재단 정관에도 넣으려고 합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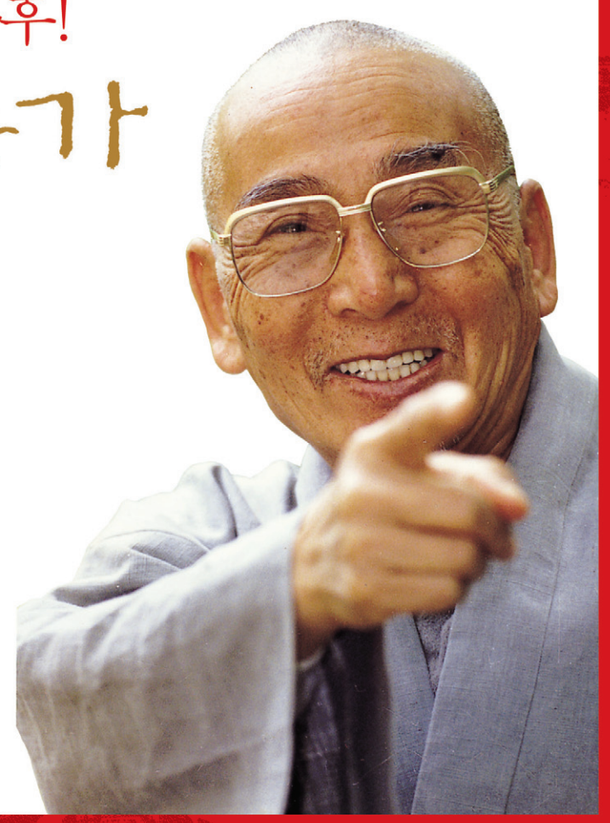
서암 스님 구술 | 이청 엮음
444쪽 | 16,000원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사자후!

그대, 보지 못했는가

법륜 스님의 인생의 전환기를 마련해 준 정신적 스승,
전 조계종 종정 서암 큰스님의 수행과 깨달음 이야기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아래 앉아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요, 그곳이 바로 절이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라네.



정토출판 전화 02-587-8991 전송 02-6442-8993 이메일 book@jungto.org

법계 살림 살이가 '부처님 설법'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8〉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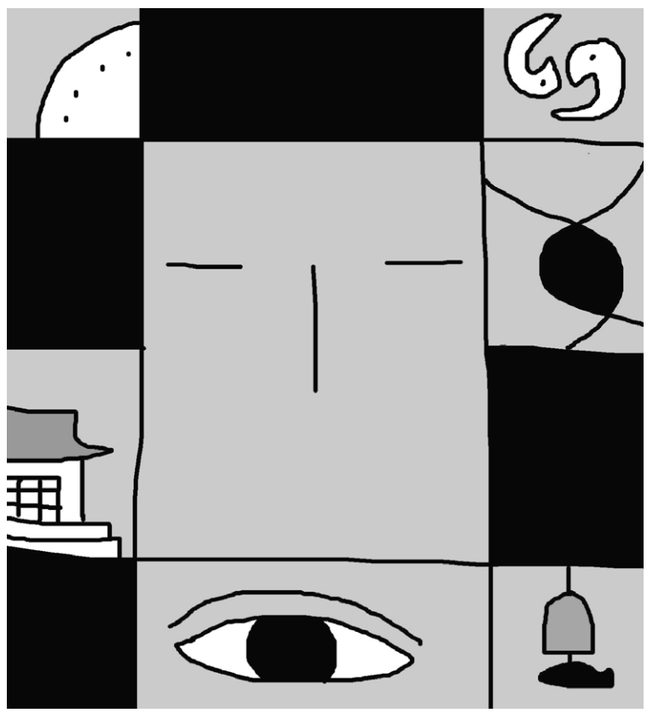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처님 설법' 청정법신 자리서
홀연히 움직임이 벌어지는 것
눈뜬 입장선 일체처 일체시에
부처님께 불공 드릴 줄 안다

일정명(한마음)과 6화합
알음알이로 이해하면
법에 속박돼 계합 못하고
깨달았다는 상에 빠진다
공부될수록 겸손해지게 마련

계합하여 성품을 깨닫는
사람은 즉시 부처에 이른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설할만한 법이 없음을 설법이라 이름 한다."고 하셨다.

충만한 법계 살림살이가 부처님의 설법을 대변하고 있다. 진정한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법신자리에서 홀연히 움직임이 벌어지는 것이어서, 눈뜬 입장에서는 따로 설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설해야 설법인 줄 알기에, 따로 모습을 빌려서 설법하는 모양을 쓰기도 한다. 아무리 그림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입을 열지라도, 결국 그것이 또 다른 그림자를 일으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법신자리에서 화현되어진 일체 모든 그림자는 다 법을 설하는 모습임을 알아서, 일체처일체시에 부처님을 보고 불공드릴 줄 안다.

보신이나 화신은 근기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설하는 법 또한 상황에 따르고 근기에 대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두는 참다운 법이 아니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며,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고 하신 것이다.

처음에는 방편으로 삼신을 보이면서 믿음을 내게 한 다음, 보신이나 화신은 참다운 실상이 아님을 밝히면서 오직 법신 도리만을 긍정한다. 하지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한 것도 어쩔 수 없이 근사치로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성품의 바다에서 어떤 변화도 비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필 때, 법신이 가리키는 바를 볼 수 있다.

이른바 하나의 일정명(一精明)이 나뉘어 6화합(六和合)이 된다고 하였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6화합이라고 한다. 6근이 하나로 이어졌다가, 어리석으면 여섯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알면 둘 아닌 성품 자리에서 중심을 잡지만, 모르면 쪼개진 여섯을 자기 집으로 삼아 자기도 모르게 생사를 반복하며 윤회할 뿐이다.

일정명이란 바로 한 마음[一心]이요, 6화합이란 6근(六根)이다. 이 6근은 각기 6진(六塵)과 합한다.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각각 합한다. 그런 가운데 6식(六識)을 내어 18계(十八界)가 된다.

알고 보면 청정법신의 인연에 의해 합성된 그림자가 18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공한 것이다. 일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그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있다. 원인과 결과를 만들기 이전의 참다운 실상이 어떤 것인지 자각할 때, 일정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만약 이 18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6화합이 하나로 묶이어 일정명이 된다. 일정명이란 곧 마음이다. 그런데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알면서도, 일정명과 6화합에 대해 알음알이로 이해해서 마침내 법에 속박되어 본래 마음과 계합하지 못한다.

이치만 따지면서 분별하는 사람은 교리는 이해했어도 계합이 안 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배우고 이해한 것만으로 깨달았다는 상에 빠져 있다. 한 생각 돌이켜서 상없는 도리를 밝히면, '상'과 '상 아님'을 동시에 보아 헐떡거리지 않는다.

여래께서는 세간에 나타나시어 일승(一乘)의 참된 법을 설하셨지만, 중생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여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6년 고행과 45년간의 쉼 없는 설법을 찬탄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며 스스로를 고통의 바다에 빠트리는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 위대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모양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증상만을 지어서도 안 된다. 참다운 공부인이라면, 공부가 될수록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겸손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설법에 인색한 분이 된다. 이는 중생을 위하여 널리 묘법을 베푸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방편을 세워 삼승(三乘)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일승 도리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할 수 없이 차별된 근기에 맞추어 삼승을 열어 보인 것이다. 단계 별로 각각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통해서, 일승 묘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방편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방편이 생겼고, 깨달음에도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게 되었으나, 이것은 모두 근본법이 아니다.

깨달음 자체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기 따라 우열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깨달으면, 최상승까지도 쓸어버리고 유아독존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도리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보지 않고서는, 이 말을 소화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승의 도가 있을 뿐, 나머지 이승은 참된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 그러나 마침내는 '일심법(一心法)'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섭을 불러 법좌를 함께 하며 따로 언설(言說)을 떠난 '한 마음'을 부촉하셨다.

부처님과 가섭은 서로 주고받았지만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귀신도 이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직접 깨달았을 때, 비로소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일맥의 법령은 따로 행해지는데, 만약 계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즉시 불지(佛地)에 이른다.

성품을 깨닫는 즉시 바로 부처라는 말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㊽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함께 돈 걱정만 하고 있네

〈무량수경〉

〈무량수경〉의 재발견

다시 "무량수경"을 읽으면서 놀란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여러 번 "무량수경"을 읽어보았지만 큰 감흥이 없었다. 특히 하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왜 상권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하권이 있는가. 법장보살의 마흔 여덟가지 원을 말하는 상권만으로도 "무량수경"은 끝나도 되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내게 "무량수경"은 별로 다가오지 않았다. "관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은 1권 분량인데, 2권이나 되는 "무량수경"은 그저 반복이나 중언부언이 심한 것으로만 생각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무량수경"의 하권이 갖는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나는 오늘 다시 정독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 "무량수경" 하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무량수경" 상권이 담고 있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하권의 내용 역시 짧게 요약되어서 "관무량수경" 속으로 들어간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무량수경" 하권은 그렇게 요약만 하고 말아서는 그 결이 다 살아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관무량수경"이 요점 제시라면, "무량수경"은 심층 묘사이다.

"세간지사(世間之事)"의 심층 묘사

어쩌면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무량수경"은 극락에 왕생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경전이므로, 극락에 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그 정반대의 측면 역시 갖고 있다. 이 세상 이야기를 시시콜콜 절실하게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근기가 엷고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시급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 이렇게 지극히 악한 일이나 지극히 괴로운 일을 부지런히 몸을 놀려서 처리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려 애쓴다. 존귀한 이나 비천한 이나 상관없이, 가난한 이나 부유한 이나 상관없이,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함께 돈 걱정만 하고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골몰하는 것은 한가지로 같다."

내가 다소 의역을 했다. 이 부분은 직역보다는 의역을 해야 제 맛이 나리라 생각해서이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세상일이 언급된다. 그리고 그러한 세간사에 얽매여서 수행을 하지 못하고, 극락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중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량수경"의 구성, 즉 상권과 하권의 역할분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절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이상향으로서 극락을 제시한다. 그런 뒤에, 그러한 극락을 가도록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하여 이 사바세계의 일을 제시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바세계의 삶이 괴롭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괴롭지 않다면, 좋을 것이다. 극락



그림 · 박구원

을 원하지 않아도, 극락을 꿈꾸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떨까? 실로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사람이라도 있기나 할까? 단언하건대, 없다. "천석꾼은 천가지 걱정,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충족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바세계를 싫어하면서 떠나려 하고(염리예토/厭離穢土), 정토세계는 기꺼이 구한다(欣求淨土)"라는 겐신(源信)스님의 말은, 극락에 왕생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명언이다. 이 역시 "무량수경" 하권의 염리예토를 먼저 제시하고, 상권의 흔구정토를 나중에 말한 것이니, "무량수경"에 대한 절묘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없다면 굳이 극락을 꿈꾸지 않아도 좋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모두 극락을 염원하는, 염원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불교저널에서
경력기자를 **채용**합니다

인터넷 언론매체 불교저널이
부처님오신날을 기점으로
판형 대판의 신문을 창간합니다.
이에 경력기자를 아래와 같이 널리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분 야	채용인원	응시자격	제출서류
경력 기자	약간명	취재경력 1년 이상인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응시기한 2013년 5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불교저널편집실
이메일접수 buddhismjournal@daum.net
문 의 문의 : 02)720-6630

불 교 저 널

모 십 니 다

소승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고해사
주지도경입니다. 소승은 禪大韓佛教 曹溪宗
종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에 함께 종단
운영에 동참하실 원로대덕 큰스님과 도심및
초야에 소속없이 홀로계신 모든스님께 밖으
로는 불국정토 구현과 안으로는 친목및 내
부 결속을다져 부처님 법 전하는데 그 목적
이 있으니 많은 지도편달 바라옵고 뜻있는
모든스님 대환영하며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959-1825 , 010-3114-1825
사전에전화로 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최초 부처님이 모셔진 곳!
선대한불교조계종 苦고 解해 寺사
예비모임일: 2013년 양5월 30일 오후 3시

*종단운영및 불교사업 토론
*예비모임에 참석하신 스님위주로 운영됩니다
*종단에 가입하실 스님 접수도 받습니다
(사찰등록증,임명장,종단회원증,운영지침 드립니다)
(무속인,철학원,명상수련원,기공원,심의후 가능)
*도심속 기도도량 고해사에서 함께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바로사용하는 秘傳 실전 **구 성 학**

●단기7일 완성 ● 속성2~3일 완성!(지방숙식가능)
많이 사용되고있으며 포교용으로 적합
교육 후 바로 실전가능! 안되면 될때까지!
공부와진검승부의장,실전구성학까페준비중!
년1~2회 최고권위자 세미나 개최 준비중!
아주 배우기 쉽고 간단하고 실전에 강합니다

화제의 신간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한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집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겁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거늘 .....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불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송월스님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정가 20,000원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제 1편 : 부처의 생애
제 2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정가 30,000원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건강하게 사는 법
신비의 호흡요법



정가 12,000원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 어느때 보다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히말라야의 영원한 스승 바바지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호흡을 제시하고 인간의 우주적 역할과 영원한 존재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상과 요가의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 통해 선리 증험 · 불교사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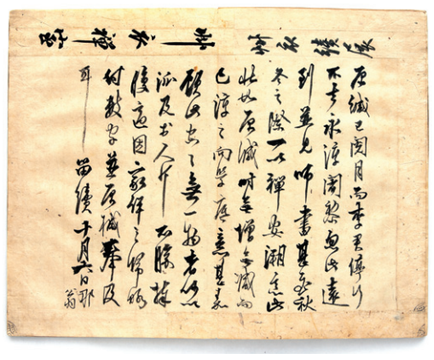
제주 시절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이 편지는 《완당전집》〈여초의〉20신에 수록된 것인데, 《벽해타운첩》의 발굴로 어느 해 10월 6일 쓴 편지임이 확인된 것이다. 대략 제주 유배 초기의 편지일 것이라 추정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지를 써 놓은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군이 행차를 멈추고 아직 떠나질 않는군요. 영순 스님이 갑자기 이 멀리까지 왔으며, 아울러 (영순 스님이 전해준)그대의 편지를 보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에도 그대가 편안한지 늘 염려했습니다.

나는 전번 편지를 보낼 때와 같이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없을 뿐입니다. 영순 스님의 향학에 대한 뜻이 매우 가상합니다만 돌이켜보건대 나는 우매하여 어느 것 하나도 능한 것이 없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배를 잡고 웃음이 나는 것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집 종이 돌아가는 편에 대략 몇 자 부칩니다. 아울러 지난번 써 놓았던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이만 10월6일 나옹

백파 스님은 아직도 성 밖, 토굴에 주석하면서 동안거에 무리들을 모아 개강한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그 사이에 선지를 왕복했던 것이 있는데 만약 그대와 서로 증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텐데 이런 일을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멀리에서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새 책력을 보내니 받아주세요

(原椷已閱月而李君停行不去 永淳闍黎 忽此遠到 並見師書甚慰 秋冬之際 一以禪安漯念 此狀如原椷時 無增無減而已 淳之向學底意甚嘉 顧此空空無一物者 何以波及人耶 不勝捧腹 適因家伻之歸 略付數字 並原椷奉及耳 留續 十月六日 那翁白坡尙在城外 任錫於土窟 結冬聚徒開講云 甚可喜也 間有禪旨往復者 若得如師互相證發 尤可喜而是豈濁世易得者耶 殊切遠翹 新茡莞收)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가 담긴 〈벽해타운첩〉

소치·제자·승려 등 편지 전달
"새 책력 보내니 받아주세요"
백파 스님과도 선지 나눠

초의와 추사의 편지를 전달해 준 인물로는 소치 허련와 추사의 제자들, 그리고 추사 댁의 노복들과 초의와 관련이 깊었던 승려들이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추사의 문하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던 승려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험난한 뱃길을 마다하지 않고 추사를 찾아 나섰다.

이러한 사실은 추사가 "영순 스님이 갑자기 이 멀리까지 왔으며, 아울러 (영순 스님이 전해준)그대의 편지를 보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라고 한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추사를 찾았던 영순 스님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초의와 관련이 있었던 승려일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추사는 "영순 스님의 향학에 대한 뜻이 매우 가상합니다만 돌이켜보건대 나는 우매하여 어느 것 하나도 능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 여겨진다. 조선의 지성을 대표했던 추사였기에 벽지에서 온 승려를 가르칠 만한 학식이 부족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겸손에는 조선의 선비다운 겸양이 묻어난다. 한편 추사는 백파와도 선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왕복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그 사이에 선지를 왕복했던 것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백파는 일찍이 한양 근교 수락산의 학림암에 안거하며 강학을 열기도 하였는데, 이는 "백파스님은 아직도 성 밖, 토굴에 주석하면서 동안거에 무리들을 모아 개강한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특히 추사는 선지에 대해 초의와의 담론을 통해 그의 식견을 확충해 나갔는데, 이는 "그대와 서로 증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텐데"라고 한 말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추사는 선리를 증험할 수 있었던 대상으로 초의를 꼽았고, 초의를 통해 불교적인 사유를 확대한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教高僧團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생명 살림은 곧 부처님 가르침"

원혜 스님 (공주 마곡사 주지)

'춘마곡 추갑사' 라는 말이 있다. 공주 태화산 기슭에 자리한 마곡사의 봄 운치가 일품이라는 뜻이다. 천년고찰 마곡사에 파릇파릇한 봄기운이 올라올 때면 신록축제가 열린다.

10회를 맞이하는 신록축제가 4월 27~28일 마곡사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의 주제는 '생명, 수행, 나눔, 그리고 맨발로 걷다'. 자연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화합의 의미를 지닌다.

사실 마곡사는 현 주지 원혜 스님이 부임하기 전 혼란에 빠진 일이 있다. 원혜 스님 부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추락한 본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었다. 스님을 비롯한 마곡사 대중이 생명과 수행, 화합을 기치로 주변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자 마곡사 위상은 높아져 갔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그 중심에 있는 원혜 스님을 마곡사에서 만났다. 공주 마곡사=노덕현 기자

– 마곡사 신록축제가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생태교육과 나눔행사로 진행된 신록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계십니다.

마곡사에서 봄의 푸르름을 감상하자는 신록축제가 벌써 열 번째를 맞았습니다. 제가 2009년 말에 주지로 왔으니 2010년부터 신록축제를 마곡사에서 주관하였지요. 그 이전에는 마곡사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 아래 상가번영회와 마을 주민들이 관광진흥행사로 노래공연 같은 것을 했지요. 이것을 2010년부터 마곡사가 주최가 되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신록축제를 단순한 문화공연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어려운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행사로 바꾼 것입니다.

신록축제의 시작은 '화합의 비빔밥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큰 그릇에서 수백 명이 공양할 비빔밥을 만들어 마곡사를 찾은 관람객, 태화산 등산객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줍니다. 대웅전 앞 메인 공간에는 일체의 상업적 판매처가 들어서지 못하고 오직 생태 환경과 관련한 환경단체, 시민에너지 단체와 문화단체들만 전시공간을 열어 체험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맨발로 걷기'입니다. 태화산이 크게 유명한 산은 아닙니다만 산책로와 등산로가 참 좋습니다. 조계종 산악회의 엄홍길 대장이 산악회원들과 와서 걸어보고는 흙길로 된 등산로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드문 곳이라고 극찬을 하더군요. 백범 김구선생을 기념하여 백범 명상길이라 이름붙인 태화산 둘레길을 체험해보는 것이 올해의 주요 행사입니다.

마곡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돌아가신 분이라면 저절로 생태주의자가 되고 환경운동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난개발로 망가트리는 일에 대해 반드시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록축제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 원혜 스님은 지역민들과 상생을 하기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대표적인 불교계 인사이십니다. 상생의 행보를 걷게 되신 계기를 말씀해주십시오.

주지 진산식부터 나눔의 김장 행사로 열어 수천포기 김치를 교구의 복지시설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축하 화환이 아니라 쌀을 기증 받아 함께 나누어주었지요. 그 이후로 매년 가을이면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큰절이고 작은 절이고 신도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고 도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터전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물려받은 도량은 온전히 다음세대로 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나눔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찰의 주인은 사부대중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 일일 뿐입니다. 출가 이부중이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 수행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교단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재가 이부중 또한 사찰과 승단을 외호하고 유지 발전시키며 정법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려가는 운명공동체입니다.

나눔은 우리 불교가 풍족해서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필요한 곳으로 돌아가는 일일 뿐입니다. 불교는 다만 거드는 역할만 할 뿐이지요.

당장 10년 후 20년 후의 불교를 상상해보십시오. 고령의 인구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법당을 채우고 도량을 찾아올 불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 해답이 저 멀리 있는 거대도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절 아래 마을에, 걸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내에 사는 분들이 이 절을 자기 절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마다 자기 지역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 때 불교의 미래가 열립니다.

저와 함께 수행하고 함께 기도하는 신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건강한 노동을 함께 하면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마음공부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마곡사람들'이라 하여서 귀농인들에게 사찰 유휴토지를 경작하도록 하는 공동체도 추진했습니다.

또 아래 공민학교 터에 협동조합 '두레배움터'가 만들어져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재생에너지와 적정기술, 그리고 생태적 흙건축을 교육하고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6.25 전쟁 뒤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민학교인데 뒤에 정식 학교가 세워지면서 폐교된지 30년이 된 곳입니다. 현재 강릉자비복지원의 자산이 되어있는 곳인데 우리가 사용하도록 부동스님과 운달스님이 흔쾌히 협조하여주셔서 '두레배움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올해부터는 농가 개량사업과 흙건축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이 주인이 되고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쌓이면 제가 꿈꾸는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지 취임하며 '신록축제' 주관 시작
김장 나눔 행사 등 공동체 구성 관심
협동조합 3년째 운영, 생태 마을로
1978년 부터 마곡사서 가행 정진
임기동안 대중공의제로 사찰 운영
수행 본분으로 돌아가는 길이 불교 중흥

– 2009년 취임 당시 '심부름하는 시자', '대중공의제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승려복지를 강조했습니다. 4년 동안 걸어오신 길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스스로를 평가하라면 아무래도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처음 뜻한 바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제가 주지로 부임하기 전 6교구는 10년에 걸쳐 혼란이 지속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소통도 없었고 한 사람의 전횡과 무리한 사업추진이 일을 계속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대중공의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추진력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합의에 의한 사업추진이야말로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구장은 이런 대중공의제가 안착하도록 '심부름하는 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지요.

다행히 제 임기 동안에 교구 혼란은 종식되었습니다. 교구의 구성원들이 적극 도와주고 또 내일처럼 나서서 함께 해준 덕분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새



제10회 신록축제에서 연등을 만드는 불자들



봉축법요식을 겸해 열린 제10회 신록축제에서 관불의식을 진행하는 원혜 스님



원혜 스님은 … 원혜 스님은 1973년 공주 마곡사에서 일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주통일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스님은 부여 고란사와 강경 용암사, 서울 봉은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로운 일을 않겠다' 고 했지요? 저는 불교적으로 '때로는 하지 않음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일을 추진하지 않고 대중이 동의하는 일만 하니 교구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추진하는 일마다 장애가 없습니다.

승려복지에 관해서는 교육, 의료 등 많은 분야가 필요하지만 특히 고령의 스님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수행마을' 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안이 사설사암이나 개인통장 혹은 토굴 같은 것을 확보하려는 유혹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안을 검토한 결과 교구 본사인 마곡사 산내 암자 터 가운데 하나를 수행마을의 후보지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10여분 안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시설이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 일인데 많이 늦어진 것은 아무래도 교구 살림살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출가하게 되셨는지와 수행과정이 궁금합니다.

법정 스님이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출가 동기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이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불가와의 인연이 닿았고 스님 생활이 너무 좋아서 일찍 출가했습니다.

출가한 뒤에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범어사 강원을 다녔는데 당시 도반이 지금 범어사 주지를 하는 수불 스님, 동화사 주지를 하는 성문 스님 등입니다. 강원을 마치고도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범어사 강원을 마치고 1978년에 출가본사인 마곡사로 돌아와 재무 소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이고 배움에 신심이 절로 날 때라 소임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해보자."라고 강원 학인 출신은 물론 선원수좌 들까지 뜻이 맞는 스님들을 마곡사에 모였습니다.

강백으로는 시조시인으로 유명한 철운 조종현 스님을 모셨습니다. '태백산맥' 을 쓴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부친이지요. 조종현 강백은 1930년대에 만공 스님이 마곡사 주지를 하실 때 강사를 하셨던 적이 있어 마곡사와는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강백을 모시고 열의에 찬 젊은 스님들이 〈금강경〉을 배웠습니다. 일종의 학림이었던 것이지요. 전강을 한다고 산에서 구부러진 나무를 잘라다 주장자도 깎고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대광보전 옆 심검당에서 한철 이상 공부를 했는데 함께 공부한 스님들이 성문 스님, 현담 스님, 현기 스님, 허운 스님, 수좌인 구암 스님, 화정 스님, 위빠사나 전문 수행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부산 태종사 주지 진용 스님 등이었습니다. 젊은 우리만 강의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 진경 스님이 본사 주지셨는데 틈틈이 책상을 놓고 함께 강의를 들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겨울을 나고 학림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었지만 함께 공부한 스님들이 이대로 공부를 중단하기는 너무 아쉽다며 서울 돈암동 보문사에서 중앙승가학원을 열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앙승가대학으로 발전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곡사는 결국 중앙승가대학의 발원지인 것입니다.

–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미 보배 가득한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말은 우리 마곡사 역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이신 고려 보조지눌스님이 〈수심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는 무진장한 보물이 있음을 알고 감탄합니다. 아무리 퍼가도 다함이 없지요. 여러 불자님들도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은 한량없는 과거생에 무수한 공덕을 지은 덕분임을 자각하시고 금생에 복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쌓아서 영원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운문 스님은 '도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가라(去)' 고 대답하셨습니다. 불교는 중생으로 태어났으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중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지향점을 보여주셨기에 부처님오신날이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나의 존재를 닦아 바르게 사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내 뜻과 몸과 말을 늘 바르게 닦음으로써 내가 속한 가정, 내 직장, 내가 사는 사회가 바르게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수행합시다. 그리고 늘 기도합시다.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수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그 등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4월 28일 신록축제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협약식



환경살림을 위한 붓글씨 퍼포먼스에서 정부에 요청서를 쓰는 원혜 스님

전법일기

절의 흥겨운 법음이 불자 만든다

봉축음악회

우리절 인근에 중산층 아파트 단지가 4~5년쯤 전에 들어섰다. 27개동, 2420가구로 꽤 큰 규모다. 내가 처음 여기로 왔을 땐 골조 공사가 한창이었다. 새로 이사 오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가 당시에 나의 화두였다.

전법을 하려면 우선 우리절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야 했는데 어떤 방편을 쓸지 고민이었다. 우리절은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온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전통사찰도 아니어서 도로에 간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사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절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스타마케팅(star marketing)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광고에 등장하면 매출이 눈에 띄게 늘기 때문에 그 시대 최고의 스타는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지금은 가수 싸이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안 하는 광고가 없을 정도다.

우리 절집에서도 그 홍보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중가수를 불러서 음악회를 하는 산사음악회가 대표적이다. 나는 우리절에서도 그걸 하고 싶었다.

언제였던가? 음악회 문제로 서울에 있는 어느 기획사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내려왔다. 그에게 지명도가 높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수들을 출연하게 할 경우 얼마나 소요되는지 물었더니 무려 4천에서 4천 5백만 원을 제시하였다. 내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그는 사람을 모으는 데 연예인 이상 가는 게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절 연간 예산이 얼만데 4천이라니…. 그렇게 음악회는 묻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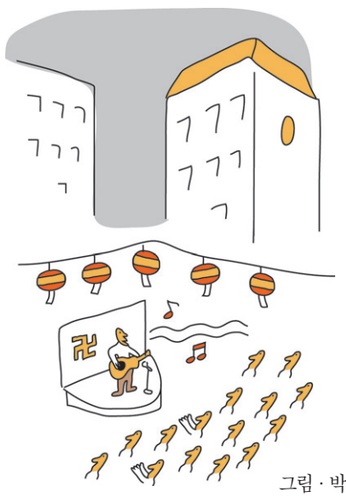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절 집안에도 스타마케팅 필요
산사음악회 등 적극 활용해야

일은 꼭 우연히 터진다. 대구불교방송의 직원들이 우리절을 방문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들이 음악회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눈이 번쩍 띄었다. 우리절 음악회를 진행해 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도량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마당이 있으니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마침내 대구불교방송팀과 '아주 좋은 조건으로' 봉축음악회를 시작했다. 재작년의 일이다.

첫 음악회 때는 남진 한서경 신유 등 7명이 출연했고, 작년에는 김종환 조항조 신유 금잔디 등 7명이 출연했다. 첫해에는 1천 5백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하였고, 작년에는 1천 2백 명이 참석했다. 작년에는 두 번째 하는 행사인 만큼 어느 정도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홍보를 적게 했더니 참석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나는 두 번의 음악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지역주민에게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우리절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전법의 기초도 마련됐다.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면, 음악회에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만난다. 그들은 모두 우리절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들의 협조가 꼭 음악회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봉축음악회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있는 건 아니다. 비판의 시각도 있다. 비싼 돈 들여가며 불교와 관계없는 대중음악을 공연한다는 것이다. 옳다. 나도 주지가 되기 전에 산사음악회가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흐르는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우아한 클래식을 연주한다든지 고상한 국악을 연주한다고 해보자. 몇 사람이나 참석하겠는가. 가끔 나는 현실주의자가 된다.

오는 5월 12일 오후 5시에 세 번째 봉축음악회가 열린다. 정수라 안치환 김범룡 한서경 박정수 금잔디 박시연이 출연한다. 볕이 내려쬘 것에 대비해 종이모자도 구비해 두었고, 비가 내릴 경우를 생각해 비옷도 준비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마음대로 하라!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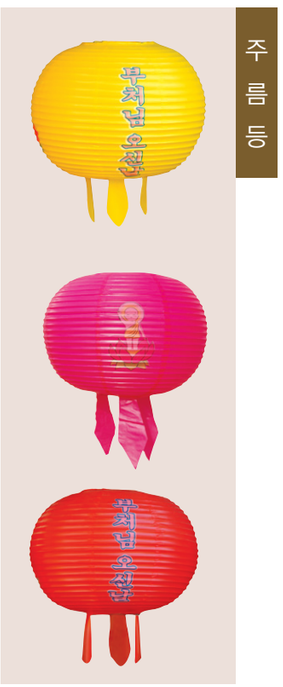
오색공단등 /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



왕생극락접등 / 영가등 / 극락왕생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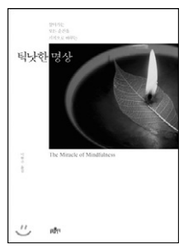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틱낫한 명상

틱낫한 지음 | 이현주 옮김
불광 펴냄 | 1만1천원



틱낫한 스님은 이 책에서 우리 눈을 밝게 하고 가슴을 여는 명상을 소개하고 있다. 아무도 없는 특별한 곳이 아닌 너와 나의 생활공간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스님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에 집중하되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한다. 오렌지를 먹는다 치면, 오렌지의 맛과 향, 오렌지를 씹을 때의 느낌과 몸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모두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명상을 ‘마음챙김’이라 하는데, 스님은 마음챙김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더 살 만한 세상을 안겨준다고 이른다. 스님은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에 대해 말한다.

어느 황제가 은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 “모든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함께 일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은자가 대답 없이 밭만 갈자, 황제는 은자의 손에서 삽을 가져다가 대신 밭을 간다. 그러던 중 어떤 상처 입은 사람이 황제에게 다가와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황제는 상처 입은 사람을 밤새 극진히 보살펴 목숨을 되살리곤 기둥에 기대어 잠이 든다. 아침에 눈을 뜨니 상처 입은 사람이 황제를 바라보며 입을 연다. 사실 자기는 황제의 목숨을 노리고 왔다가 황제 시종들에게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었는데, 오히려 황제에게 목숨을 빚졌다며 용서를 구한다. 상처 입은 사람을 용서한 황제는 은자에게 다시 답을 구한다. 은자는 이렇게 답한다.

“당신이 늙은 나를 가엾이 여겨 밭 가는 일을 늦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려가는 길에 그의 습격을 받았을 거요. 그러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겠지요. 그런즉 가장 중요한 때는 당신이 밭을 일구던 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돕는 것이었소. 뒤에 상처 입은 사람이 이리로 왔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때가 당신이 그의 상처를 씻어주던 때였지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원수와 화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상처를 돌봐주는 것이었소.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기억하시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지요. 뒤에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게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오. 그것만이 인생에서 추구할 일이지요.”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70년대 초, 남베트남에서 청년 사회봉사단원들이 폭격당한 마을을 재건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1974년, 프랑스에서 망명 중

〈마음 명상의 기적〉 한국어판
망명 후 봉사단에게 쓴 편지들
스님이 강조한 명상 모든 것 담아

이던 틱낫한 스님은 남베트남 청년 사회봉사단원 형제에게 긴 편지를 보내 명상하는 삶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더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명상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었다.

친절하고 다정한 글에서 스님은 설거지와 빨래를 하면서,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밥을 먹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활과 함께 하는 명상이 우리를 분노와 무지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자기 내면에 있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도록 이끈다고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이 책은 스님이 1974년에 쓴 편지를 엮은 것이다. 청년 사회봉사단원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앞의 일들을 묵묵히 평화롭게 해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책에 담긴 틱낫한 스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주일 기자**

27명 선승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살림’



마음살림
김석종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1만4800원

이 책에 소개된 27명의 선지식들은 오직 ‘마음’ 하나 확실히 닦겠다고 일찌감치 절로 방부를 들인 이들이다. 이 선지식들은 젊은 시절 스승에게서 상상조차 어려운 혹독한 담금질을 거쳤다. 또한 일생을 가난속에서 땅바닥까지 마음을 낮춰 살았다.

대개 법랍 60년을 넘긴 큰스님들은 수행자들에게는 마음의 스승이요, 불자들에게는 갈 길을 알려주는 인생 멘토들이다.

남다른 만행과 기행을 한 스님(활안, 이두, 성수),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는 스님(고우, 지관, 혜정, 무여), 대장부의 늠름함과 칼같은 예리함을 숨기지 않는 스님(진제, 보성, 고산, 법흥, 도문, 명정), 당신의 해탈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챙기는 스님(월주, 천운), 평생 산문 밖으로 발길 두지 않고 몇 마디 말조차 삼가는 스님(동춘, 원명), 선가의 인사법대로 벼락같이 고함부터 지르는 스님(활안, 성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스님(묘엄, 광우, 혜해) 등 스물일곱 스님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뚜렷하다.

그중 한국불교 간화선 대가로 알려진 진제 스님에게는 세계적인 종교 석학들이 만남을 청해오고, 보성 스님은 달라이 라마, 틱낫한 같은 명망 높은 종교인들과 교류하며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저자는 ‘박물관 불교’ ‘골동품 선’이 아니라, 큰스님들을 만나 듣고 보고 배운 사람 냄새 펄펄 나는 ‘생활 속 선’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큰 스님들의 ‘마음 살림살이’, 일상 속 ‘마음 살리기’라는 두 가지 뜻을 담아 이 책 〈마음살림〉을 펴냈다.

덜그럭 덜그럭 요란한 우리네 살림살이와 달리 평화로운 노승들의 마음 살림.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 난 마음 위로받고, 악하고 추한 마음의 때를 싹 씻어내는 마음 훈련법을 배운다.

책 속에는 선대 스승과 얽히고설킨 깨달음의 드라마, 시대가 변하든 말든 꿋꿋하게 지켜온 무욕 청빈의 삶,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수행, 그리고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맞이한 안락한 죽음까지 깊은 울림으로 우리들의 시들한 정신을 흔들어 깨워주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3년간 하루 9시간 참선으로 췌장암을 극복한 설정 스님, 유일한 생존 스님중 ‘한국 불교의 못자리’ 금강산서 출가한 비구니 혜해 스님, 폐결핵에 걸려 요양차 찾은 절에서 그대로 출가한 고우 스님, 조선 말 이름 높은 선사 혜봉 스님의 딸로 어머니까지 출가해 온 가족이 깊은 불연을 맺은 비구니 광우 스님,

인생사, 혹독한 수행담 등 깊은 울림
인간 냄새 나는 ‘생활 속 선’ 가르침
“힘들게 겪어 아는 것 걸작인생 만들어”

계의 ‘엄친딸’ 묘엄 스님, 고교 동창으로 함께 출가한 월주 스님과 혜정 스님,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고자 사회복지활동과 시민사회운동에 몸 던져 뛰는 NGO 월주 스님과 40년간 오갈 데 없는 아이 수백 명을 거둔 천운 스님, 출가 60년 동안 산 밖을 거의 나가지 않고 은둔한 원명 스님, 평생 한 명의 제자를 들이지 않고 토굴이 알려지면 짐을 꾸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는 운수납자 동춘 스님…등등이다.

큰스님들은 삶, 수행, 죽음으로 가르쳐주셨다. 힘들게 겪어서 아는 것이 걸작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들을 말이다. 또한 근심도 걱정도 다 자신이 불러들이는 것이며, 이를 직시하면 마음속에 들끓던 불화와 불안이 싹 사라진다는 진실도 함께 전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닥쳐오는 어려움을 수행으로 여기고 마음하나 깨끗히 닦으며 살아가야 한다.

책 속에는 한국 불교의 근대사서부터 스님과 사찰 대대로 이어지는 계보, 여러 경전을 인용한 경구, 윗대 선승들의 흥미로운 일화 등 불교에 해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큰 뼈대를 이룬다. 이는 30년간 문화부, 특히 종교 분야서 활동하며 쌓아온 저자의 탁월한 식견과 소중한 인연 덕분이다. 때로는 발목에 쥐가 나는 책상다리로 몇 시간을 앉아서, 때로는 노래 부르지 않으면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괴짜 스님 앞에서 ‘개여울’을 부르며, 때로는 아무나 발들일 수 없는 고승의 방에서 잠자는 복을 누리며 큰 스님들을 만났다. 그리고 ‘마음을 살리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

“똑 또르르 똑 또르르 새벽 도량석 목탁 소리”, “난분분 난분분 흰눈 날리고”, “또르륵 또르륵 따르는 차 맛”, “풍경이 뎅그렁 뎅그렁 하고 운다”. 마치 시인의 절묘한 싯귀같은 비유와 눈앞에 펼쳐지는 저자의 문장을 좇아 금강산으로 지리산으로, 또 속리산으로 전국 산중 깊숙이 들어앉은 사찰과 암자를 한 바퀴 도는 것은 또 하나의 읽는 재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법(佛法)을 전쟁의 무기로?

불교 파시즘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 지음 | 박광순 옮김
교양인 펴냄 | 2만2천원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의 불교가 자국의 군국주의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보고서다. 불교학자이자 오랫동안 수행한 선불교 승려인 저자는 불교의 가르침이 교묘하게 일그러져 ‘오남용’된 역사를 밝힌다. 전쟁에 가담한 승려들, 불교를 신봉한 군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발굴하여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다.

2001년 10월 9일 임제종 묘신사파의 정기종무소장회의 후속 성명이 발표된다.

“우리가 전쟁의 책임 문제를 다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과 선〉이라는 책이 출간된 덕분입니다. 우리 종문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와 전지하게 씨름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정기종의회에서 최근 선언문을 채택한 덕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입니다.”

필자가 1997년 말에 출간한 책 〈전쟁과 선〉은 서양의 선수행 공동체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의 선승들이 거의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열렬한 지지자였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선승들은 불법(佛法) 자체가 군국주의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 파시즘〉은 이전 저서처럼 객관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대신 각 장에서 별개의 사건이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다.

“선 수행을 통해 나는 자기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을 달성하는 일을 돕기 때문에 선은 제국 군대의 참된 정신이 된다. 선 수행으로 삶과 죽음이 명확해지고, 그럼으로써 삶과 죽음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선 수행으로 나는 완전히 순수해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은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일본제국에서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던 육군 장교 스키모토 고로는 생사일여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일본군인 중 한 명이다. 그는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절에서 수행한 선불교의 재가 제자였다. 위는 1938년 그의 유작 글모음에 실린 글이다. 자신에게 선 수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비록 몸은 죽더라도 생사일여를 통해 국가의 영원한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추구해야 한다.-일본제국 군대의 교육을 위한 지침서 ‘정신교육 자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전장에서 죽거나, 인생의 이른 시기에 과부가 되거나, 혹은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고아가 되는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단 한 발의 탄환도 적으로부터 우연히 날아오는 일은 없다. 그것은 명백히 업의 작용이다.-승려 도모마쓰 엔타이.” 책은 자비와 깨달음, 무아, 업, 열반, 정토왕생, 생사일여 같은 핵심 교리가 전쟁과 살인을 정당화시킨 사례들을 조목조목 찾아 소개한다.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에 힘입어 병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생과 사가 다르지 않기에 슬퍼할 필요가 없었다. 죽음은 그가 쌓은 업에 의해 예정된 일이었고, 전사한 병사는 내세에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제국주의 야망이 점령한 전시의 일본에서 불교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정신적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책은 “이름 높은 선사들이 자진해서 군대의 나팔수로 나섰고, 극우파와 손잡고 천황 숭배를 부르짖었다. 종교의 교리와 역사가 거침없이 왜곡되고 살생을 금하는 계율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불교의 무아관(無我觀)과 생사불이론이 뒤틀리고 타락하면서 파시즘의 광기와 유착해 대량 학살과 집단 자살의 아수라로 빠져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전쟁을 지휘한 군 수뇌부도 불교를 적극 받아들여 ‘활용’했다. 병사들은 스님이 쓰는 공양 그릇을 본 뜬 밥그릇으로 식사했다. 돌격을 앞둔 자살 특공대는 절에 가서 선을 수행하며 두려움을 잊었다. 패전 뒤 사형수가 된 전범들은 과거를 반성하는 대신 정토왕생을 꿈꾸며 구원을 기대했다.”고 말한다.

불교는 비폭력과 평화의 종교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 ‘불살생(不殺生)’을 가장 중요한 계율로 가르치며, 종교를 내세워 전쟁을 일으킨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파시즘〉이 밝히는 20세기 일본 불교의 역사는 ‘평화의 종교’라는 불교의 자부심을 무색하게 한다. **박재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한국 불교에 던져진 뜨거운 질문 '경허'



작은 방에서 도인 나다
옹산 스님 지음
혜민기획 펴냄
8천원

"1880년(고종 17년) 봄에 동학사를 떠난 경허당 성우 선사(1842~1912)는 오후(悟後) 보림(保任)을 하기 위해서 충남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에 있는 연암산 천장암으로 오셨다."

책은 경허대선사열반 100주년을 맞이해 경허 스님이 18년 동안 주석했던 천장암에서의 법문, 일화, 행장기 등을 모아 엮은 것이다.

"경허 스님은 500여 년 동안 계속된 조선 폐불 암흑기에 이 땅에 오셔서 불교 속에 융해되어 있던 봉건적 잔재를 깨부수고 오염된 조선불교를 씻어내는데 앞장섰던 선각자입니다. 즉 경허 큰스님은 잿밥에만 골몰하며 목탁을 두드리던 조선 말기 불교계에 선의 정신과 선종교단으로 한국불교가 지녀야 할 전통의 복원을 도모한 한국 불교의 중흥조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수월, 혜월, 만공 같은 선사들이 수행했던 천장암은 근세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구도의 불꽃이 튀었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이다. 한국 근대불교사에서 '경허'는 그 어떤 이름보다 뜨거운 이름이다. 그의 '무애행'은 후학들에게 책 한 권을 더 얹었다. 한국불교사에 던져진 뜨거운 질문 '경허.' 그의 숨소리와 같은 법문과 일화들이다.

"한곳에 안주하실 때는 잡수시는 것은 겨우 접기(接氣)만 하시고 종일토록 문을 닫고 앉으셔서 침묵과언(沈默寡言)하셨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다. 혹



경허 스님이 머물렀던 천장암의 작은 방

사람들이 큰 도시에 나가셔서 교화를 떨치시라고 권하면 곧 '나에게 한 가지 서원이 있으니 발이 경성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그 굳세고 탁월하신 바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한 번 좌선에 드시면 여러 해를 지내기를 마치 순간을 지내듯이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시 한 편을 지어 읊으셨다." 저자인 옹산 스님은 구한말 경허 선사의 수행담을 시 한편으로 요약했다.

세상과 청산 어느 것이 옳은가
봄 광명 없는 곳에는 꽃도 피지 않더라
만약 누가 성우의 일 묻는다면
석녀의 마음속에 겁을 밖의 노래라 하더라.

저자는 이 게송을 "봄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광(본마음)이며 나의 본분인데 내마음 없는 곳에는 불법도 없고 세상법도 없으며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요하니 번다한 것이다. 그런 봄 광명을 하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닦아가는데 그 보고 싶은 봄광명을 봤다고 하면 거기에는 부처가 있을 수 없고 중생이 있을 수가 없다." 고 풀었다.

이 게송은 천장암 작은 방에서 나왔다. 겨우 사람하나 누울 자리다. 스님의 진영이 걸린 그 작은 방, 스님은 '경허'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작은 방에서 보림을 한 것이다.

천장암에서 주석하실 때에 한 벌 누더기 옷으로 차가운 겨울이나 찌는 듯한 여름이나 한 번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모기와 빈대가 몸을 찌르고 이들이 옷에 꽉 차 밤낮으로 침노하여 뜯어 먹음으로 온몸이 헐어서 벗겨져도 적년히 자세를 움직이지 않음이 높은 산과 같았으며, 어느 날 구렁이가 뚫고 들어와 어깨와 등에 올라가 서리고 있음을, 곁에 사람이 깜짝 놀라 알려 주어도 태연히 마음에 조금도 동요가 없이 무심하였다고 한다. 책은 천장암에서의 스님의 행적을 일화와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간다.

저자 옹산 스님은 '경허'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경허 스님은 철저한 구도정신으로 일관하여 깨달으신 분이다. 깨달은 분의 행동의 무애행이다. 깨닫지 못한 범인이 무애행에다 계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진실을 어떤 목적 때문에 오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깨닫지 못한 이가 깨달은 이의 무애행을 흉내 내는 것은 응당 경계해야 할 과오지만 그 책임을 선각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과오는 그것을 행한 개인의 문제다." 후학은 한국불교사의 두툼한 책 한권, '경허'를 그렇게 읽어 주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8가지 바른 길'

불교동화 18

다르마차리 나가라자 지음 | 이은숙 옮김
불광 펴냄 | 1만4천원



이 동화는 자타카, 즉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삶의 지혜와 도덕적 가치를 전승하는 이야기로 이뤄져 있다.

불안감에 떠는 어린 말이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 명상으로 도둑 떼를 물리치는 소년 이야기, 돈 버는 일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는 수전노 이야기, 무례하고 제멋대로였던 공작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 등 광범위한 등장인물과 배경이 표현돼 있다. 특히 각 이야기들은 팔정도(八正道) 중 하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전작인 〈지혜가 쑥쑥 자라는 명상동화 20〉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전생 이야기서 영감을 받아 요즘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첨가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모두 삶의 지혜와 도덕적 가치를 전하는 전승 이야기이며, 특히 팔정도(八正道), 즉 '깨달음과 열반으로 가는 여덟 가지 바른길'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팔정도는 친절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 신중하게 말하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의지로써 생각을 다스리는 것 등 일상생활의 행동 규범을 제시한다.

이 책은 잠자리서 부모가 아이에게 읽어 주는 동화책이다. 이 방식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아이에게 철학적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가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구전 전통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아이의 집중력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가 배경, 등장인물, 사건을 마음에 그리게끔 이끌기 때문에 아이를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불교 동화를 읽으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깨달음을 얻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불교적 삶의 근본 원칙은 팔정도로 요약된다. 부처님 스스로 팔정도를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표현했다"며 "이 책에 실린 각각의 이야기는 팔정도의 원칙중 하나를 토대로 아이들에게 팔정도의 참뜻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팔정도의 여덟 가지 원칙은 지혜 도덕 집중이라는 세 주제로 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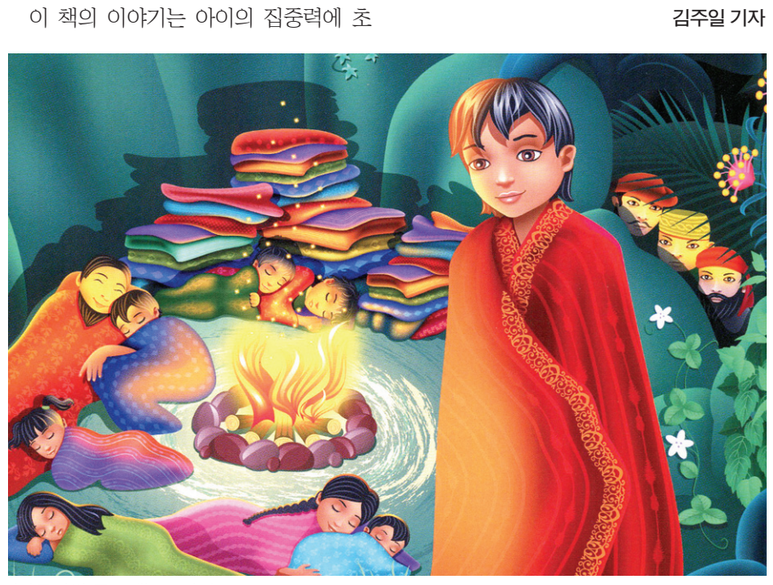
한편 이야기를 읽은 후 자연스럽게 아이를 명상으로 유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 책 뒷부분에 아이와 함께 할 수

부처님 전생이야기 바탕으로 재구성
아이들 흥미있는 요소 많이 첨가
아이와 함께하는 유도 명상도 수록

있는 쉽고 재미있는 유도 명상이 수록돼 있다. 익숙해지면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부모가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함께하면 유익할 듯 싶다. 김주일 기자

▲저자 다르마차리 나가라자는?
BBC 라디오 2에서 방송된 테리 워건 쇼의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코너에 고정 출연해 불교 전래 설화를 통해 770만 영국 청취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1988년에 불자가 된 그는 1993년에 서구불교종단으로 출가했고, 그 후 20년 가량 런던서 코벤트 가든 명상센터를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최근에는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글래스고우포교당에서 심리요법사로 일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알로카와 도둑떼〉 중 삽화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4 ~ 4/3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2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7	지혜로운 삶(우학스님 신심명 강설)	우학	좋은인연
8	그대 보지 못했는가(서암 큰스님 회고록)	서암	정토출판
9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10	오늘도 두려움 없이	틱낫한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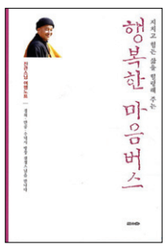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법복 속에서 자란 '진관'의 생각들

행복한 마음버스

진관 스님 지음 | 레슨 펴냄 | 1만천원



고요한 산색따라
선승의 선정 적적하고
솔바라 스쳐
마음성성하네
교교히 흐르는 달빛
창살에 죽영(竹影) 드리우고
간간히 들리는 두견의 노래
깜빡 졸음 깨우네
찾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뭣고 이뭣고
조는 듯 내려 감은 눈
흐르는 미소

요즘 소식을 물으니 새벽에 일어나 시를 쓴다고 했다. 시인이기 때문이다. 언어로 집을 짓는 일이다. 삶의 현장에서 보았던 것들을 꾹꾹 눌러 표시하고 있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와 불교평화운동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진관 스님의 시와 글을 담은 책이다.

〈행복한 마음버스〉의 원고에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단어가 많다. 잠재적 실현 의지이자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비결은 서로 이해하고 배우고 선택해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배우고 가르칠 것들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진관 스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로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기에 늘 인권운동의 맨 앞줄에 서야 한다.

책의 앞쪽에는 충남 예산에 있는 덕숭총림을 찾아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만나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에 대해 듣는다.

시가 생각나서, 풀잎의 연가, 그리운 당신에게, 달빛에 기대어, 행복한 마음버스 등의 글을 만날 수 있으며, 법산, 지원, 김원길, 최승은 등 스님의 생각을 돕는 지인들의 글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부모와 가족, 스승과 친구 그리고 사회와 만나고 이성과 만나 생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끝내는 죽음을 통해 돌아간다. 이 많은 만남 중에서 불연으로 도반이 되어 같은 길을 가는 인연이야말로 지중한 인연이라 생각한다.

진관 스님과 나는 대학시절 기숙사에서 만나 40여 년 수행과 문학으로 한길을 걸어오고 있다. 진관 스님은 그간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많은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약자편의 인권운동으로 누구보다 민중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기에 우리의 소중한 스님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있었다면 오늘에는 진관 스님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의 글이다.

법복 속에서 자란 스님의 생각들이다.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박재완 기자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 59권 (30종)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031-534-3373 / 010-9043-1016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21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중 3개국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한영중 3개국어)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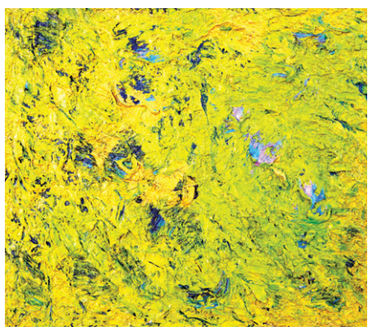
붓끝에서 피어난 구도자의 향기

비공 스님 개인전 5월 15일

비공 스님의 개인전 '구도자의 향기'가 5월 15~21일 인사동 M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추상화 30점을 선보인다.

선방에서 공부하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스님은 말한다. 그림 그리기가 곧 수행이라는 것이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1년 여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형상을 그리다가 형상이 사라지고 또 그려 나가고 그것을 구도자의 향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 그림이 시대와 함께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님은 붓터치와 화려한 색감으로 다양한 심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낸다. 스님이 굳이 유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불교예술이 옛것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좀 더 미래지향적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우리 불교 문화는 너무 옛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쯤 지나면 무엇을 보여 줄겁니까? 이 시대와 함께하는 새로운 불교 문화를 배워 보겠습니다"


비공 스님의 추상화 작품

스님은 전시 오픈과 함께 5월 15일 음악축제도 함께 연다. (02)773-0073

정혜숙 기자

환우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선율

5월 9일 불교진흥원 · 마하연 '찾아가는 음악회'

대한불교진흥원 주최하는 마하연의 '찾아가는 음악회-맑은 옹달샘 Ⅱ'가 5월 9일 동국대 일산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문화 나눔 포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일산 동국대병원 환우들을 위한 공연으로 마련됐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위로가 환우들에게 전해져 희망을 주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공연은 전통 국악곡뿐 아니라 팝과 영화 OST 등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음악 레퍼토리로 누구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음악이 주는 치유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진흥원은 동국대 일산병원서 음악회를 연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2012년부터 연간 3~4회에 걸쳐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음악으로 치유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심상 사진전 '암자에서 길을 묻다2'

5월 15일부터 국제선센터 등에서

불교문화사진동우회 심상(心像)의 24번째 사진전 '암자에 길을 묻다 2'가 대중들을 찾아간다. 불교문화 유산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고승대덕의 고행과 깨달음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는 △5월9일~15일 국제선센터 △5월16일~17일 석왕사 △5월25일 부천시청 아트센터 등에서 각각 열린다.

심상은 "마음 속 길 하나 찾으려는 염원들을 렌즈에 담았다. 회원 모두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비움을 통해 자유로움을 얻는 시간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내안의 평화를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010)4377-3228


강진형의 '여운암'

정혜숙 기자

비구니 스님 따라가니 진리의 길이…

다큐 영화 '길 위에서' 개봉


이창재 감독

일년에 딱 두 번 산문이 열린다는 비구니 스님 수행도량 백흥암. 그곳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대중을 이루어 납자의 길을 가고 있다. 모두 세속의 일을 놓아버리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곳에서도 울고 웃고 시비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유학을 하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한 상욱 행자, 동진 출가의 업을 타고난 선우 스님, 인터넷 검색으로 불교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민재 행자 그들은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백흥암에서의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의 목표는 같다. 바로 깨달음.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에 그들은 법연으로 맺어진 도반이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그 목표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기꺼이 행복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창재 감독(중앙대 교수)의 다큐 영화 '길 위에서'는 1년여 동안 백흥암 스님들의 삶을 담아냈다. 5월 23일 개봉을 앞둔 '길 위에서'는 이미 제6회 CINDI영화제 '버터플라잉 부분11' 선정, 제 1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 본선 진출작으로 오르며 호평을 받아왔다.

규율이 엄격한 선방, 그곳도 깐깐하기로 유명한 비구니 스님 선방을 남자들이 기거하며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연히 어려웠다고 이 감독은 말한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터라 안식년 휴가를 받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님 한 분의 인터뷰를 받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려 18분 분량 밖에 못 찍었던 적도 있었죠. 큰 스님 허락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방부를 튼 수좌 스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촬영 기간 동안 네번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지 스님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해 눈물을 흘리셨죠"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을 배경으로 한 '길 위에서'가 5월 23일 전국에서 개봉한다. 출연한 스님들의 영화 속 만행 장면.

'위대한 침묵' 보고 촬영 결심
수행도량 백흥암 배경
선방 공동체 1년 영상화
5월 23일 전국 동시 개봉

이 감독이 영화를 찍기까지의 과정은 고행인 듯보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감독을 비구니 스님이라는 소재에 이토록 매달리게 했을까? 위빠사나명상센터 호두마을에서 2주 정도 수행을 하면서 만난 비구니 스님과 프랑스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 '위대한 침묵' 그것이 이 감독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평생 간화선을 하다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겠다며 호두마을을 찾은 비구니 스님을 보고 저런 열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또한 '위대한 침묵'을 보고 묵언은 우리 불가의 전통 수행법인데 이 영화가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게 느껴졌어요. 이를 계기로 비구니 스님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죠"

이 감독은 201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백흥암 스님들을 따라 다녔다. 그곳에서 만난 선우 스님은 동진 출가해 자연스럽게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스님이다. 최근 비구니계를 받은 선우 스님은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도 졸업하고 스스로 선택해 출가하고 싶다고 말한다. 스님은 이 감독에게 이렇게 묻는다. "감독님은 출가 하실건가요? 아니면 다음 생에는요?"

이 감독은 그 물음에 선뜻 답을 못했다. 사실 이 감독 역시 20대 시절에는 출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백흥암에서 보낸 1년여 시간동안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스님들의 삶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정말 구족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일생을 걸어도 족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스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영화를 찍어 나갔다는 감독의 말처럼 영화는 스님들의 소소한 일상과 깨달음의 열망을 담담히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가슴이 짠하고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고 한편으로는 빙긋 웃음을 짓게 만든다. 그렇게 백흥암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하루하루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여대생 가수 28년 만에 수월 스님으로 대중 앞에

'노래로 듣는 부처님 말씀'…내레이션으로 새롭게 편곡

1985년 당시 한글로 번역한 반야심경에 곡을 붙인 노래로 화제를 일으켰던 여대생 가수 김미현 씨가 28년만에 수월 스님으로 돌아왔다. 당시 작업을 했던 작곡가 유승엽 씨와 함께 현대감각에 맞게 새롭게 편곡 '노래로 듣는 부처님 말씀'을 낸 것이다.

수월 스님의 당시 음반은 발매하자마자 공중파 방송을 탔고 일주일만에 LP판 3만장이 팔릴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문 이후 법정 스님이 번역한 〈법구경〉, 균여대사의 보현 십행가에서 발췌한 〈예경제불가〉 등으로 3집까지 음반을 내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는 이후 새로운 길을 걸었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쯔꾸바대학 대학원에 자폐증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해인사로 출가해 스님이 되었다. 수월. 김미현씨가 받은 법명이었다. 수월 스님은 그동안 제방선원에서 10년간 수행을 하며 출가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스님은 수행자로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포교에 대한 원이 생긴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하고자 하니 노래가 떠올랐다.

그렇게 수월 스님은 다시 작곡가 유승엽 씨를 만나 음반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음반에는 '예경제불가' '백년을 살지라도' '발원문' 등 11곡의 곡을 담았다. 그리고 이 중 6곡은 내레이션을 붙여 새롭게 재구성했다. "듣는 분들이 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내레이션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중 여러분들도 이번 음반을 통해 편하게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 합니다"

음악이든 수행이든 진심을 다해 일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수월 스님. 스님이 되고 나서 음성 포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는 스님은 앞으로도 음성 포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혜숙 기자


수월 스님은 '노래로 듣는 부처님 말씀'을 발매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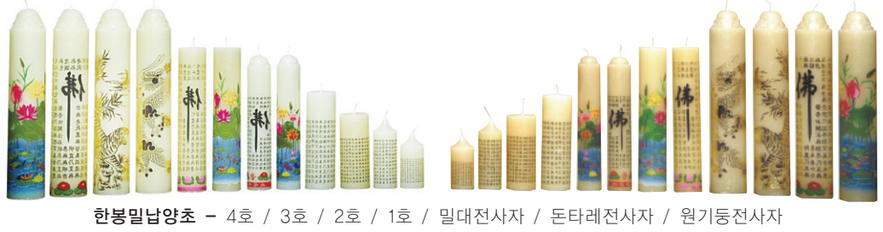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에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로더월드
www.loader.co.kr

사찰 불사의 최고 도우미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가능

산악 전용 다목적 차량 어게이트 (뜻 : 일개미)

사찰의 모든 불사는 어게이트에 맡겨주세요. 제설, 분무, 과수재배, 운송, 비료살포, 방제, 트레일러 기능 등



어게이트 사양 : 길이 3,022㎜ | 폭 1,613㎜ | 높이 1,820㎜



EVENT!!!
특전 : 선착순 50대 특별할인판매

어게이트 작업 범위

- 분무기(물주기, 나무 / 과실수 방제)
- 제설 블레이드 (평지 및 산악지형 눈치우기)
- 염화칼슘 / 비료 살포기
- 리프트(적재함 상하동작 최대 180~200㎝) 연등작업 등 상단작업 가능
- 에어 블로워(적설량 0~15㎝ 제설가능) 특허출원중
- 트레일러 운반 작업기(600㎏ 적재) 기본적재함(500㎏)
- 덤프 기능

어게이트의 특징

- KOHLER(콜러) AEGIS EFI 가솔린엔진
- 얀마 디젤엔진
- H일체형 프레임
- 8"서스펜션
- 변속레버
- 방향지시등
- 3" 초강력 스틸 프레임
- 전방 디퍼런스
- 라디에이터
- 후방 디퍼런스
- 유압브레이크
- 4WD 스위치



- 본 어게이트는 국방부 납품 제품으로 품질을 보증합니다
- 서울우유 B/S 지정업체
  · 미국 완제품 수입 품질인증 제품
  · 국내 최초 수입품 한국 안정검정 제품
  · 각 지역 서비스 지정점 운용
  · 본사 순회점검 운용 시스템

로더월드 www.loader.co.kr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 사 :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073(소정리 19-5) | 대표전화 031)637-7020 | 팩스 031)367-7030
서비스공장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512번길 233-10(도봉리 546-1)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초 안 (먹물 밑그림)


상 호 (전통조왕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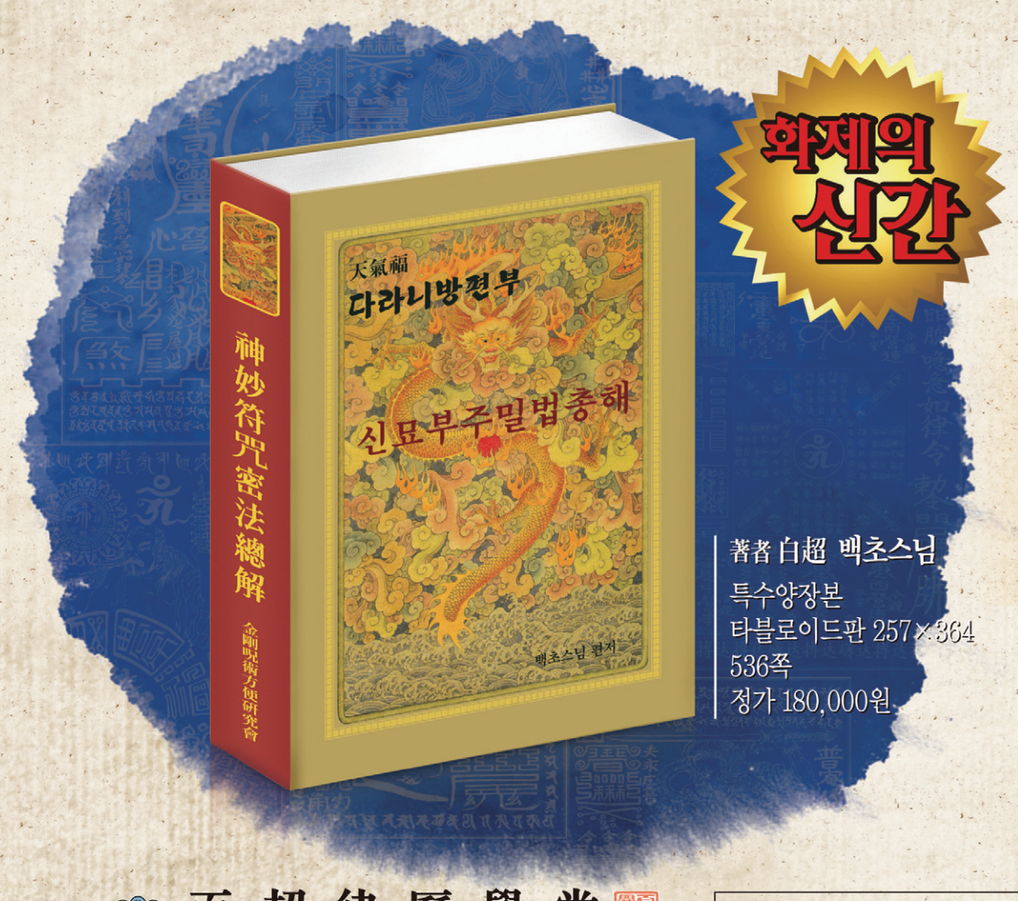

문 양 (고대문양)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180,000원

새로운 비방법! 더욱 강력해진 방편술!
일체 마장을 소멸시키고, 고통받는 인간 만사를
단번에 풀어내는 방토법 대공개합니다.

天氣福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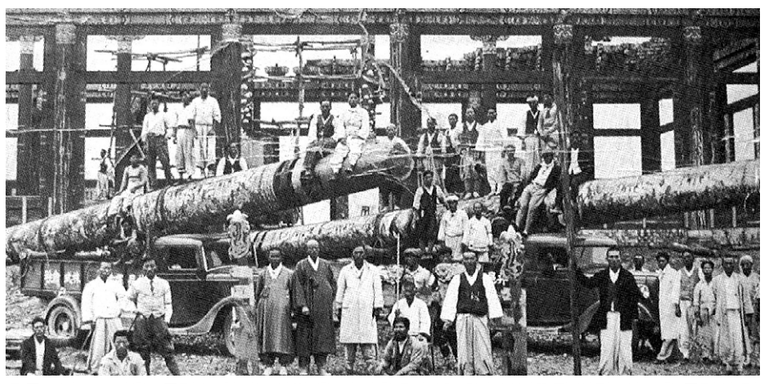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百超律曆學堂
041)943-6882/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근대불교 역사 조계사서 본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 전을 5월 10~8월 11일까지 연다. 사진은 조계사 대웅전 건립 사진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 전

모금 현황 상량문 유물로 추측

종욱·일섭 스님 등 조계사 건립

한국불교의 총본산 조계사의 창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원학 스님)은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 전을 5월 10~8월 11일까지 연다. 이번 기획전에는 1938년 조계사 대웅전이 건립될 당시 불교의 상황과 생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대 자료 총 240점이 전시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조계사 대웅전 건립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세우고자 했던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조계사 창건의 역사와 의미를 새겨보고 1930년대 생활상과 조계사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조계사 대웅전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건립되었다. 또한 당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건물이었던 만큼 최고의 인물과 장인들이 이 건물을 세우는데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지암 종욱 스님과 화사 금융 일섭 스님이었고 도편수 최원식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욱 스님은 대웅전 건립을 총괄, 보천교 십일전을 1만 2천원에 매입 총본산 대웅전 건립을 진행했다. 또한 도편수 최원식은 1920년대 창덕궁 대조전 재건 공사를 총지휘한 도편수로 조계사 대웅전 건립을 위해 경복궁과 덕수궁을 조사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내외벽의 단청, 벽화 영산회상도 등 대웅전을 장엄하는 일은 당시 불교계 최고의 화사였던 일섭 스님이 담당했다.

또한 대웅전 상량문 유물로는 조선불교 총본산대웅전상량문, 총본산건설소역원, 총본산건축비각사부담액, 관서질 등이 발견되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건축 비용을 적은 각사부담액 문서에서는 당시 31본산에서 이건축비를 부담한 내역이 적혀있는데 총 100402원 47전을 모았으며 이는 현재 가치로 100억원에 해당한다. 대웅전을 건설한 실무 담당자들의 명단 문서에는 대웅전을 건설한 실무담당자들의 명단에는 일본인들이 있기는 했으나 사실상 대웅전 건립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전시는 △일제강점기의 불교와 조계사의 창건 △조계사 대웅전을 만든 인물 △조계사 대웅전 발견 상량유물 △현재의 조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계사 대웅전 건축공사 사진 및 관련 자료를 비롯해 용조각 및 상량유물인 비녀 반지 뒤꽂이 귀이개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불출협 제6회 불교도서전…5월 8일부터

월호 스님 법문과 사인회도

불교출판 활성화와 사찰도서관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한 '제6회 불교도서전'이 5월 8일~5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불출협)가 주관하는 '제 6회 불교도서전'에서는 500여종의 신간 불서를 만날 수 있다.

불출협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신간을 선정 2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도서를 판매"하며 "수익금은 사찰 공간을 활용하고 불교문화를 알리는 '부처님글사랑' 사찰도서관 도서지원에 쓰인다"고 전했다. 현재, 사찰도서관은 인천불교회관, 조계사, 신흥사, 봉영사, 불암사, 정각사, 거창포교당, 봉림사, 대전보문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부대행사로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의 법문과 사인회, 11일 오후 2시 모아 스님의 사인판매가 조계사 앞마당에서 각각 열린다.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龍生九子→ '용의 변화무쌍한 변모'

용의 상징 알아야 한국미술 이해

용의 아홉 자식에 대한 내용은 중국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명(明)의 호승지(胡承之)라는 사람이 쓴 〈진주선(眞珠船)〉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호승지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眞珠船〉도 어떤 책인지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용이 아홉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만으로 족하다. 용이 아홉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호승지는 중앙아시아 사람인 듯한데,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9는 양수 가운데 가장 큰 수로 무한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9라는 숫자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용의 본질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며 만물의 근원이며 최고의 신(神)이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는 아홉 아들에 동물이름을 각각 붙이고 그 기능을 설명하였는데 맞는 것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것도 있다.

중국 호승지의 견해가 중요한 단서

그러나 비록 후대의 기록이라 하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호승지가 용의 아들이라고 본 9가지 동물의 모습이 모두 용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더욱 놀란 것은 아들의 생김새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호승지는 그 모두를 용으로 보았던 것이다. 용의 아들은 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용구자설(龍九子說)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믿는 학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후 이 생각은 다시 다음과 같이 윤색된다. 즉, 용생구자(龍生九子)란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동물로, 용이 낳았다는 아홉 자식을 가리킨다. 각각 그 모습과 성격이 다르며 그 성격에 맞는 장소에서 각자 활약하나 용은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을 '용생구자불성룡(龍生九子不成龍)'이라고 한다. 형제들이 성격이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비록 후대의 기록은 그른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글만은 신빙성 있는 부분이 많아서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헌기록이다. 용구자설(龍九子說)은 말 그대로는 틀린 말이며 상징적으로는 옳은 부분이 많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틀린 용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은 용을 동물로 보기 쉬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호승지가 말한 아홉 아들의 이름과 기능을 정리하여 보자.

1. 비희(贔屭): 모양은 거북이를 닮았는데 무거운 것을 지기를 좋아한다. 돌비석 아래에 있는 귀부(龜趺)가 비희이다.

2. 치문(鴟吻): 모양은 짐승을 닮았는데, 먼 데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전각(殿閣)의 지붕 위에 있는 짐승머리로 혹은 치미(鴟尾)라 하며, 화재를 누를 수 있다.

3. 포뢰(蒲牢): 모양은 용을 닮았는데, 소리 지르기를 좋아한다. 바다에 사는데 고래를 제일 겁을 내어 고래가 습격 시에 크게 울어 그치지를 않는다. 종소리를 크게 하고자 할 때는 포뢰를 종위에 조각하고 고래 모양으로 만든 당(撞)을 친다.

4. 폐안(狴犴): 모양은 호랑이를 닮았는데, 위력이 있어서 옥문(獄門)에 세운다. 감옥이나 법정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새기며, 범죄자들이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

5. 도철(饕餮): 탐욕이 많아 마시고 먹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도 잡아먹는다. 그래서 솥의 뚜껑에 세우며 악수(惡獸)로 불린다. 鐘(종)이나 鼎(정)에 무늬를 새겨 넣어 탐욕을 경계하게 한다.

6. 공복(蚣蝮):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다리의 아치에서 돌출하게 만든다.

7. 애자(睚眦): 죽이기를 좋아하며 칼의 콧등이나 칼자루에 새긴다. 예를 들면, 관우의 무기인 청룡언월도를 아시는가? 그 무기를 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애자다.

8. 산예(狻猊): 모양이 사자와 닮았고 연기와 불을 좋아하며 향로에 새긴다.

9. 초도(椒圖): 입을 닫아 있는 것을 좋아하며, 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문을 지키는 신수로 사용된다. 그래서 문고리에 붙인다.



이들 아홉 아들의 동물이름은 대체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한다. 자, 그러면 아홉 아들의 동물이름과 아홉 아들이 실제로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정리해 보자. 이미 정해진 용어와 내가 고친 용어를 함께 써 두기로 한다. 비록 동물이름들을 붙여놓았지만 결국 모두가 용임을 알 수 있다.

1. 비희(贔屭)→석비의 귀부(龜趺): 요즘 쓰는 용어. → 용[龍趺]

2. 치문(鴟吻), 치미(鴟尾)→용미(龍尾) 혹은 용 : 이미 설명하였음.

3. 포뢰(蒲牢), 鐘고리 → 용

4. 폐안(狴犴), 옥문(獄門)에 장식 → 용

5. 도철(饕餮), 청동기의 악수(惡獸) 정면 얼굴 → 용

6. 공복(蚣蝮), 다리에 장식 → 용

7. 애자(睚眦), 칼 도끼 등 무기를 생기게 함→ 용

8. 산예(狻猊), 사자모양을 향로 뚜껑에 장식→ 용

9. 초도(椒圖), 문고리장식 → 용

용의 본질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호승지는 이들 아홉의 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설명 내용은 모두 틀렸어도, 우리가 모두 귀면(鬼面)이나 도깨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모두 용의 아들이라고 지적한 것은, 호승지가 그 아홉 귀면을 모두 용이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공헌은 아홉 아들을 용과는 다른 이름을 붙였어도 그 모든 것을 용의 얼굴의 측면이든 정면이든 용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이들 모두를 잘못 부르고 있어서 주변에 모두 용인 것을 귀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아홉 아들 하나하나가 용임을 증명하여 나갈 것이다. 이 중요한 문헌 기록의 진위문제는 용의 본질을 알아야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알 수 있는데, 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호승지의 기록을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호승지의 기록을 지나치고 있으나, 그 기록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무엇인지 몰랐던 정면 얼굴들이 용의 정면 얼굴임을 알 수 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용의 정면얼굴을 용의 얼굴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그 까닭은 알았다. 정면 얼굴만 있지 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이나 박물관에 가면 사람들이 수면(獸面)이나 괴수(怪獸)나 귀면(鬼面)이라 부르는 조형의 대부분은 용의 정면 얼굴이라고 인식하면 좋다. 중요한 기물(器物)이나 석조(石造)의 중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용을 조각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용은 물이요, 만물의 근원이요, 그러기에 변화무쌍하여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사람의 얼굴로도 나타난다. 사람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은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 봉황도 용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라만상이 비로자나의 현현(顯現)이듯, 삼라만상이 용의 현현(顯現)이라고 감히 말한다. 그처럼 용의 조형과 상징이 중요하므로, 용을 모르면 한국미술을 더 나아가 동양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비록 호승지의 이야기가 혼란스러워 보여도, 용의 본질을 알면 그리 어렵지 않게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을 버릴 수 있다. 옳은 것을 취하면 세상사 그렇듯이 얻는 바가 크고도 크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스님들께 올리는
최고의 효도선물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어르신들의
어깨, 목, 허리, 무릎의 만성적인 근육통 완화! (체온요법으로 건강 예방 증진)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참기 어려운 통증, 잠을 자다가도
불쑥 갑자기 끊어지는 듯이 아프게 찾아오는 통증,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고통, 지하철 버스 손잡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아픈 팔,
어깨 근육 통증, 이제 걱정마십시오. 본 의료기기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체온요법이란?
오장육부를 알맞은 온도로 기능회복을 시키고, 인체 통합시스템인
면역계와 호르몬계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환부)부위는 냉(冷)에서 비롯된 병적 부분을 온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파 광선조사기의 파장은 공명작용으로
피하심층까지 침투하여 손상된 세포조직이 활성화되어 건강은 물론
심신까지 안정화 시킵니다.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용도
1) 병의원 보조 치료기 (소염 진통 증상완화 – 혈류량 증가)
2) 구급치료기 (복통, 설사, 화상, 신경통 등 각종 통증 완화)
3) 신경안정화기능과 교통사고 후유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관절결림의 감소와 연조직 곰팡이균 감염 등 효율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CQ-BS8 (바이오램프)
CQ-31(TDP)

■ 상담 및 구입문의 :
수입총판 휴먼라이프 서울지사 02)739-5008
※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에 체험방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건강생활
회원모집
참건강 생활의 등대지기로 여러 불자님들께
정신과 육체적 편안함과 쉽고도 확실한
건강요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연건강요법과 생명파동의 놀라운 위력과
신비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특전 및 교육과정
▣ 회원특전 1)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
2) 현재 건강상태 점검 (파동요법). 척추교정
3) 주거환경탐사 (수맥파 유해전자파)
4) 자연건강 운동법, 맞춤형 자연식생활법.
5) 경제적 수익사업
▣ 교육내용 1) 자연건강법 강의 (매일 오후 2-3시)
2) 건강운동법 (6대 법칙 실습교육)
3) 파동특정 탐지법
4) 척추건강요법
▣ 파동의학 전문지도교수 : 박철용
現 하와이호놀룰루 대학 / 자연의학과 교수(초능력)
수맥과학대학 (파동학교수) 한국자연건강회(이사)
건강지도사 1급 자격.
상담 및 문의 02)739-5008. 010-2353-2010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상 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빙의 퇴마, 환청
3.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비룡정사 서울 포교당 제행스님
011-772-4606 / 02-588-4606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써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 보왕삼매론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목탁,송주북, 정근북,법고)
– 천수바라,작법(나비무), 49재,천도재,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고통 받는 이들에게
(金) 작은 희망 드리고져 (金)
삶에 장애가 많으신 분
병고로 고통 받으시는 분
(전통 선가 비법 치유)
희망전화 043-652-3020
무료전화 070-4403-3021
白雲山下 藥泉寺 住持 : 法山 合掌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선 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 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양 도 공 고
(등록된 불교단체 불교종단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황토 누워서 허리뜸, 훈증침대
비만,허리뜸,관절통증,사고후유증, 아토피,비염,여성질환,혈액순환, 마음은 청춘 몸은 노령,건강,행복, 장수,인간의 수명은 화 사 냉 청소. 저는 약사여래 가피력 도승원력 암자 포교원 운영할 비구승 인연바람
011-573-4438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록 명 법 특 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창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받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귀농하시며 기도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010-2671-7208

경북 봉화 청정기도 수행도량 산중계곡물 상구보리. 하화중생
여생을 함께할
비구니 스님 2분을 모십니다
보시금도 드립니다
010-6370-6769
010-6227-6510

소승은 세납 65비구입니다
불사와 기도정진 함께 하실
세납 60세 이상 조계종스님을
모십니다
(충북 제천 위치와 경관이빼어난 곳에 약 8천평의 땅과 서울에 약 100평의 포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010-2127-4755

향기도의 묘법
•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북 옥천, 태고종 사찰)
010-4453-8453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울산, 55세 이하)
011-875-6317

60세이하 신심있는 공양주, 운전가능한 처사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계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수정사 노인 요양원
• 최적의 자연환경 (수정산 산책로)
• 최신시설, 아늑하고 쾌적한 시설
• 등급 내, 외 어르신 모두 환영
• 최고시설, 최저의 비용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담문의 031-333-5014. 010-7105-5013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골든 안치단 전문제작회사
미니납골당 건축 전문
▫ 장인들의 노하우로 개발한 명품입니다.
▫ 조립식이 아닌 개별함으로 조립식 함의 단점들을 100% 해결 했습니다.
▫ 황금색 안치단으로 품위와 디자인이 최고입니다.
▫ 가격 품질 시공 관리 타사 제품과 꼭 비교 하십시오.
▫ 화재 지진 무거운 중량에도 안전합니다.
본부장 010-3390-1161 / 031-767-1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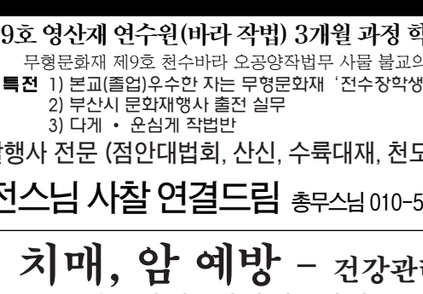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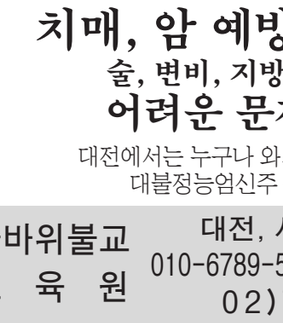
치매, 암 예방 – 건강관리
술, 변비, 지방간, 비만
어려운 문제해결
대전에서는 누구나 와서 주야기도 함
대불정능엄신주 특별지도
꿈바위불교 교 육 원
대전,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 010-2353-2010
02)739-50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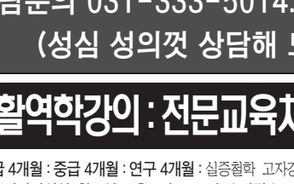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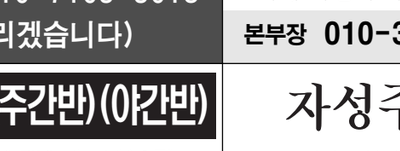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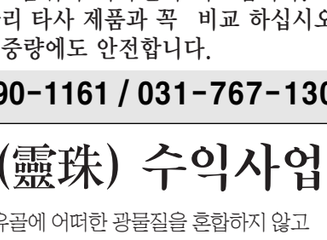
자성주(靈珠) 수익사업
선망 조상님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50만원.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 (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별에 애착하여 가슴이 답답한 것을 근심이라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슬퍼하는 것을 탄식이라 한다. 근심과 괴로움은 고통을 불러들인다.
고통이란 나무는 이렇게 하여 점점 무성하게 자란다.
- 화엄경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 법당 : 25평
- 요사 : 7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3억 3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및 요사 7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6억2천

- 위치 : 경남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11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400 공양간 說法殿有
- 가액 4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전원주택 또는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대지 : 2,670평
- 진입로 6M이상 확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득
- 경치 수려하고 부지내 연못 있음
- 경부고속도로 수원IC, 기흥IC, 용서고속도로 청명IC인접
- 서울, 분당, 동탄 접근성 (10~20분)용이
- 동탄2기신도시, 보라택지지구 중간 지역
- 가액 협의 (방문 상담 후 결정 희망)

010-5624-0878

포교원 안내

- 위치: 안양 명학시장 2층
- 안양역. 명학역 도보 10분
- 평수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전세 6천만원 (월세 가능)
- 법당, 주방, 침실, 삼존불 모심
- 시설비 없음 (시설비 3500만원 이상이나 사정상 임대함)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95-4678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양산.시장옆 2층
- 40평 시설최고 방2개
- 보증금: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1천8백만원 (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칠성.산신.탱화
- 비품일체 몸만오시면 법회함

010-9945-2030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읍
- 교통 편리하고 동향인 사찰
- 법당목조 60㎡, 요사채 124㎡
- 대+전 2,500㎡ 창고와 차고 있음
- 스님이 건강상으로 양도함
- 가액: 3억만원

010-3426-9393
010-7347-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함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2층 : 법당과 스님방

010-3732-5237
051)412-040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사찰
- 토지 :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 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시장옆 2층
- 40평 시설최고 방2개
- 보증금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5백
- 삼존불.신중.지장.칠성.산신.탱화
- 비품일체 몸만오시면 법회함

010-8774-2040

사찰터안내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중 30평 신축허가
- 평당 60만원
- 1급 주거지역
- 전원주택이나 사찰가능

017-855-6717
017-856-2344

건 물 안 내

- 포교원 최고의 자리
- 부산아파트 12,000세대 및 주거 밀집지역
- 대지 60평, 건물 150평
- 동향 주차용이
- 버스 지하철 역세권
- 가액: 5억 7천만원
- 대출 3억 가능

010-8676-2278

사 찰 안 내

- 위치: 영덕군 영해면
- 평수 :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전화 상담

010-2510-09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관이 수려하고 좌청룡 우백호가살아있는곳, 갓바위 뒷자락
- 대지 3천평 • 건물 60평 1동,컨테이너건물1동 화장실2칸1동
- 마당까지 대형차진입
- 평탄하게 완료된 전,답
- 가액은 6억

010-6253-3107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형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 6층석탑 (제주석)
- 가액: 방문시 절충 요
- 불필요 전화 특히 사절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위치: 제주시 오라동
- 공항에서 10분거리
- 평수 340평
- 건물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포 교 원 안 내

- 안산 , 아파트 마트, 병원 밀집지역
- 분양평수 64평, 실평수 41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탱화 영가단 250분
- 방사는 상담실외 2, 김치냉장고2대, 대형냉장고,소형냉장고등, 각방 에어컨 3대
- 양도가 1억 6천만원
- 월세 1천 3백 / 월 5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4760-8791

포교원안내

-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 농협 옆
- 평수: 90평, 방5개, 법당 35평
- 삼존불, 산신용궁, 영가단, 후불탱화, 소불 206불
- 전세 4천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비품 5500만원

010-8384-7754

상 담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컵 경기장(팔달구청)정문 건너편
- 약 400M 주택 밀집가, 약10평
- 1층 : 철학 및 상담 사무실1
- 방1, 주방1, 수리 깨끗
- 스님 급환으로 인해 급 양도
- 보증금 400만원 / 월 25만원, 또는 300/30
- 시설비 절충가, 간판 새로 시설

010-6223-8297
010-2499-00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군포시 군포역 앞
- 평수 75평
- 상가건물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최고시설, 즉시법회가능

010-8945-94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천소방서 옆
- 4층 건물에 4층 , 50평
- 삼존불 , 방2개, 화장실2개, 공양간
- 보증금 500만원 , 월40만원
- 시설비 3300만원

010-6234-7096

암 자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520평
- 건물 목조 기와 약 40평
- 별채, 창고, 산신각 등
- 산중암자, 가격절충
- 가액: 2억 5천만원

010-9422-1233

대구도심속 山 포교원

어려운스님 및 누구나 불사되는곳
말이 필요없다. 최고시설,
부처님(진사리)
몸만 오세요, 현 법회 중
시설 보증금 일년세 양도
7천만원 임야, 토지, 부동산일체
전철역 도보 5분거리

010-8943-3999 보해

주 택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 대지 171평, 전 합 1050평, 건 30평 외
- 황토방 약 15평, 아궁이 온돌방 3개
- 뒤는 산 조용하고 전망좋고 교통편리
- 광희나루 선착장 1분 자연 암반수
- 가액: 1억 6500만원

010-3288-1317

황토주택안내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 신축황토주택
- 대지 153평 전 20평
- 방2개, 거실, 다락방, 텃밭, 집
- 뒤는 작은 산 미륵산줄기 교통편리
- 양명한 자리
- 1억 2천 5백만원

010-6460-13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 지하철 입구
- 2층 약 30평(완벽한 시설)
- 위치, 환경좋음 (포교,상담,법회)
- 몸만 오시면 됨, 불사관계 양도
- 특히 비구니 스님 최적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협의 조정가) (상권 최고지)

010-9690-82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550-1번지
- 대지 : 150평
- 건물 : 대웅전(12평), 요사채(40평), 산신각
- 가액 : 9천만원

010-4015-7145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주시 현곡면 (시내에서 15~20분거리)
- 대지 170평
- 법당, 요사채, 심야전기, 차실 등
- 모든 시설 완비
- 특히 비구니스님 살기 적합
- 가액:전화상담

010-4547-910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 사찰이나 전원주택지 명당자리
- 도로완벽
- 토목공사 완벽, 나무 꽃나무 多
- 남향, 등기평수 925평
- 평당 130만원
- 뜻이 있는분 전화주세요
- 스님을 원합니다, 주인직

010-8838-165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 공주 시내 바로 옆
- 평수 72평
- 법당 따로 (약 9평)
- 방3, 거실, 화장실 2개
- 텃밭도 따로 있음
- 가액: 9천만원(가격 조절 가능)

041)841-57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웅전, 칠성, 산신, 용왕각
- 요사채 2동
- 아파트 단지 도심 사찰
- 먼 바다 보이는 좋은 전망
- 대지 39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찰(급)안내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3천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현재 사찰 운용중 (다용도 (사용) 가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덕정리 (약수터내)
- 대지 197평 • 건물 2동
  1. 건평 98평 2층건물 (방11칸)
  2. 70평 1동 - 법당 약 30평 (공양 15평) 식당 15평
- 시설 : 아미타불, 관음, 약사, 지장 , 소불 후불탱화, 지장, 신중 삼선각(칠성, 나반, 산신)
- 양도가액: 2억 8천만원

010-3170-018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3층건물 중 2층 40평 (별도등기)
- 대로변, 미남전철역에, 동래역전철 5분거리
- 법당 30평, 방+주방 10평
- 시설완벽, 법당시설비 1억이상 소요
- 건물 양도가 2억(시설비 포함)
- 큰절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2531-19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사과밭 2700여평, 나무 7년생
- 법당 19평, 기타 9평, 대지 180평
- 건물 3동, 철구조물 판넬, 창고, 외부화장실
- 가액 : 평당 13만원
- 금액이 맞는분만 전화요망

010-4726-64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비안면 소재
- 총1200평(대지200,전1000)
- 요사채30평(방3,거실,창고, 화장실)
- 법당은 허가득함, • 콘테이너 창고 2동
- 지하수는 수질이 좋아 약수로사용함,
- 아득한 절터로 소문
- 가액:3억(답사후 절충가능)

010-3540-2755
010-4811-0301

선 ~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 (금 , 토, 일 중 방문예약 요)

016 - 573 - 2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부평 큰시장 안
- 평수 약 95평
- 법당 40평, 방4개, 창고 큼
- 월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삼존불, 소불 가탱화
- 유동인구 많음, 즉시법회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주시 현곡면 (시내에서 15~20분거리)
- 대지 170평
- 법당, 요사채, 심야전기, 차실 등
- 모든 시설 완비
- 특히 비구니스님 살기 적합
- 가액:전화상담

010-4547-91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3층건물 중 2층 40평 (별도등기)
- 대로변, 미남전철역에, 동래역전철 5분거리
- 법당 30평, 방+주방 10평
- 시설완벽, 법당시설비 1억이상 소요
- 건물 양도가 2억(시설비 포함)
- 큰절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2531-19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사과밭 2700여평, 나무 7년생
- 법당 19평, 기타 9평, 대지 180평
- 건물 3동, 철구조물 판넬, 창고, 외부화장실
- 가액 : 평당 13만원
- 금액이 맞는분만 전화요망

010-4726-6496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전통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14억

- 위치 : 전남토굴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양도 : 5천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선 ~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 (금 , 토, 일 중 방문예약 요)

016 - 573 - 2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부평 큰시장 안
- 평수 약 95평
- 법당 40평, 방4개, 창고 큼
- 월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삼존불, 소불 가탱화
- 유동인구 많음, 즉시법회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급! 거제도 바닷가
연수원 교육 노인복지시설 펜션 적지

섬들이 보이는 전망좋은 옛절터

- 가액: 평30만원(주변시세 40~60만원이상)
- 건물4동 총3,750평(대지 전 임야 포함)
- 임야의 약50%개간완료(바다방향 낮은위치)
- 사정상 급 안내(2013. 6월까지 이 가격)
- 찾기 힘든 명당터 염가구입 절호의 기회
- 관심분에게 전경사진 이-메일 송부예정

010-9478-1322 (소유주 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비안면 소재
- 총1200평(대지200,전1000)
- 요사채30평(방3,거실,창고, 화장실)
- 법당은 허가득함, • 콘테이너 창고 2동
- 지하수는 수질이 좋아 약수로사용함,
- 아득한 절터로 소문
- 가액:3억(답사후 절충가능)

010-3540-2755
010-4811-0301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⑨ 선우공제회 창립

수좌들 자립 주장 선우공제회 뜻 모아

선학원은 민족불교의 기치아래 그 정체성과 운영상의 독자성을 표방하면서 창설된 4개월 후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1922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에 걸쳐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 창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황용음(黃龍吟)·백학명(白鶴鳴)·오성월(吳惺月) 등 35명의 스님들은 선우공제회의 취지서(趣旨書)를 발표하였다.

거성(去聖)이 미원(彌遠)에 대법(大法)이 침륜(沈淪)하야 교도(敎徒)가 효성(曉星)과 여(如)한 중(中)에 학자(學者)는 실(實)노 인각(麟角)과 여(如)하야 여래(如來)의 혜명(慧命)이 잔루(殘縷)를 보존(保存)키 난(難)하도다. 다소(多少)의 학자(學者)가 유(有)하다 할지라도 진정(眞正)한 발심납자(發心衲子)가 소(少)할 ??? 아니라 진응(眞膺)이 상잡(相雜)하야 선려(禪侶)를 등시(等視)하는 고(故)로 선려도처(禪侶到處)에 군박(窘迫)이 상수(相隨)하야 일의일발(一衣一鉢)의 운수생애(雲水生涯)를 지지키 난(難)함은 실(實)노 금일(今日)의 현상(現狀)이라.

취지문의 앞부분이다. 스님들의 도성출입 금지가 해제되고 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한국불교계의 암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불교도는 많지만, 여래의 혜명을 온전히 보존하기는 어렵고, 수행자는 많지만, 위법망구(爲法亡軀)의 정신을 지닌 진정한 납자는 적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찰령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주지들은 수좌들을 천대하여 청정비구승의 수행은 날로 곤궁해질 수밖에 없었다. 번다한 해설은 그만두고 그 시절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지금 조선사찰에서 20년이나 30년 동안을 구참납자(久參衲子)로 선원(禪院)생활을 하던 진실한 수행납자의 말로를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갈수록 산이요, 갈수록 물이라 어느 곳이든지 머무를 곳이 없다. 독신으로 지내는 몸이 되고 본즉 세속생활과 다름이 없는 재가사원(在家寺院)에 들어가서는 발붙일 곳이 없으며, 금전이 없어 사람이 없는 빈 암자 같은 곳에 가서는 먹고 공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불완전한 선실(禪室)이나마 찾아가면 한 삼동(三冬)을 지내기가 무섭게 폐지선언(廢止宣言)을 듣고 축출을 당하며, 또는 폐지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선원은 식량이 없으므로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방부를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춘풍추우(春風秋雨)에 회한을 품고 황량한 길거리에 서서 헤매다가 뜻하지 않게 병이 들면 간호한번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자가 비일비재하다.

1932년 김태흡(金泰洽)이 당시 선학원에서 간행한 〈선원(禪苑)〉 2호에 실었던 '호선론(護禪論)'의 일부분이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왜색화와 신식교육의 장려로 청정비구승의 수행은 안전하지 못했다. 특히 대처승들의 괄시는 상황을 더욱 암담하게 했다. 선원(禪院)은 식량부족 등 수행여건이 열악하여 오래 있을 수 없어 결국은 수행처를 헤매다가 황량한 길거리에서 사망한다는 것이다.

사찰령 이후 선원은 사찰의 종속물이 되고, 주지의 입장에서 보면 선승은 귀찮은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종을 지망하는 승려는 시세를 따라 차차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교종을 지망하는 승려는 늘었다. 그들은 교학(敎學)과 경전을 탐구하기 위해서 교종을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 취처(娶妻)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교종을 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총독부의 취처허가를 계기로 취처가 공공연하게 되면서 비구·독신승은 선종, 재처승은 교종이라는 웃지 못할 현상이 승단(僧團)안에 고착되어 갔다.

그러나 인(人)을 원(怨)치 말고 기(己)를 책(責)하야 맹연반성(猛然反省)할지어다. 원래(元來)로 생수(生受)를 인(人)에게 의

사찰령 반포 이후 선승 줄어
선학원 창설 이후 첫 행보
선우공제회 창립 추진

용성·성월 스님 등 82명 발기
자립 활로 찾아 중생구제 모토

동참자 수 1~2년사이 급증
1925년 법인 신청했지만
일제, 10년 지나 허가 '딴죽'


1922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에 걸쳐 선학원에서 개최한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 창립취지문과 발기인들의 명단이다.


선우공제회 관련 회의록들. 수좌들은 자립자활을 통한 중생구제를 꿈꿨다.

(依)함은 자립자활(自立自活)의 도(道)가 아닌즉 학자(學者)의 전생명(全生命)을 인(人)에게 탁(托)하여 타인(他人)의 비식(鼻息)을 의(矣)함은 대도활명(大道活命)의 본의(本意)에 반(反)할지라. 오배선려(吾輩禪侶)는 경성투려(警醒鬪勵)하야 명(命)을 도(覩)하여 도(道)를 수(修)하고 따라서 자립(自立)의 활로(活路)를 개척(開拓)하야 선계(禪界)를 발흥(勃興)할 대도(大道)를 천명(闡明)하야 중생(衆生)을 고해(苦海)에 구하고 미륜(迷倫)을 피안(彼岸)에 도(度)할지니 만천하(滿天下)의 선려(禪侶)는 자립자애(自立慈愛)할지어다.

쉽게 말해 당시 청정비구승들은 먹고 자는 것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립자활의 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태를 원망하기보다는 자립의 활로를 개척해서 대도(大道)를 천명해야 중생을 이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다. 때문에 납자는 더욱 자립자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창립당시 발기인은 백용성·한용운·오성월·백학명 등 82명이었다. 당시 '선우공제회창립총회록'에 의하면 조직은 선우공제회본부를 선학원에 두고 행정과 수행을 관리하기 위해 서무부(庶務部)·재무부(財務部)·수도부(修道部)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방에는 범어사·건봉사·신계사 등 19개 지부(支部)를 두었다.

공제회 유지방침의 원칙 역시 정해졌는데, 공제회의 경비는 선우(禪友)의 의연금 및 희사금으로 충당하고, 각 지부의 선량(禪糧) 중 2할과 매년 예산액 중 잉여금을 저축하여 공제회 기본 재산으로 설정하여 각 선원을 진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여기서 선량은 해당 선원의 토지 소작료가 주된 수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23년 3월 29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그 조직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대대로 전해오는 선원토지에 대해서는 선원으로 이전하거나 여의치 못하면 그 토지의 전체 수입은 해당 선원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아울러 최초 유지방침의 원칙 역시 수정하여 선우공제회 유지는 재래의 선원토지와 신입토지의 수입 2/10와 기타 희사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선우들의 지원금을 통한 유지에서 선원의 토지수입과 각종 희사금으로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1924년에는 일부 스님들이 부동산을 헌납하여 점차 재정기반이 구축되기도 하였다. 이들 토지는 법답(法畓)으로 대부분의 선승(禪僧)들이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전답을 사두었다가 제자에게 물려주는 토지로 사찰 소유의 토지와는 구분이 되었다.

1934년 재단법인 설립의 싹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사실 1925년 11월 15일 개최했던 제3회 정기총회 회록을 보면 이때 선학원은 사단법인 선우공제회 정관을 만들어 동년 9월 6일 '사단법인 선우공제회 설립허가원'을 제출한 상태였다. 창립초기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이 안정되면서 법인등기를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2월 20일 법인정관의 일부분 수정을 이유로 반려하여 공제회에서는 동월 25일 다시 수정하여 접수시켰다. 이때 신청한 법인인가가 거의 10여 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당시 조선총독부나 그 비호를 받고 있었던 불교계의 행정부에서 선학원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불교 본연의 취지와 나아갈 방향보다는 이해관계나 권력의 틀 속에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매서운 바람으로는 결코 외투를 벗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저들은 모를까.

1924년 무렵 선우공제회의 통상회원이 203명과 특별회원 162명을 합하여 전체 365명의 회원이 소속되어있었던 것을 보면 초기의 공제회는 그 창립취지와 운영의 투명성으로 인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국의 선원과 청정비구들을 조직과 회원으로 설정하고 선풍진작과 선 수행을 위한 상부상조의 정신은 민족불교의 정체성 회복과 직결되어 있어 상호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1~2년 만에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재정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은 당시 불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교단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불교 안위와 결부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939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1억 7천 (융자 3,000만원 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전세가능
010-8993-35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구미 천생산 부근
• 건평 45평, 3층 건물 중 3층 전체 사용
• 방4,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1, 주방2
• 에어컨2, 공양간 넓고 사용편리함
• 도시가스, 법당 앞 옥상별도 50평 사용 조용하고 깨끗함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
• 시설비 2700만원(약간 조절)
017-217-1919

신축사찰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전세 5천만원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포교원안내
• 대구 동구 동호동 30평
• 법당, 거실 방3, 주방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 보증금 2백만원 월 13만원
• 시설비 1560백
• 보살님 법사님 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7-297-4097
010-6297-409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 방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시청 뒤 거제시장 2층
• 평수 40평
• 방3, 법당, 주방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및 삼존불 탱화 북 종 일체
• 2000만원 (절충가능)
010-9421-077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보령시 남포 저수지 앞
•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개금, 탱화 불사 새로 하였고 손볼곳 없는 완벽한 도량
• 즉시 입주가
• 가액: 5억
041)934-8497
010-4222-68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북안면 당리
• 대지 97평
• 건물 20평
• 대출 1천 1백만원
• 가액: 3천만원 조용히 기도하실 분
010-4601-125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아난은 번뇌 끊고 아라한 되어 교법을 결집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9)

가섭과 아난의 불전 결집 이야기

여러 천인이 가섭의 발에 예배하면서 게송으로 말했다.

"대덕께서는 아십니까? / 법의 배는 깨지려 하고 / 법의 성은 무너지려 하며 / 법의 바다는 마르려 하고 / 법의 당기는 넘어지려 하며 / 법의 등불은 꺼지려 하고 / 설법하는 사람은 떠나려 하며 / 도를 행하는 사람은 점차로 적어지고 / 악한 사람은 더욱더 성합니다. 마땅히 큰 사랑으로써 / 부처님의 법을 세우셔야 하시리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였다. 부처님이 몸소 길을 걸으며 전해주시던 법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법은 점점 대중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가섭은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승기겁 동안에 얻기 어려운 이 부처님 법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오직 3장(藏)을 결집하는 길만이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리라. 그리하면 미래의 세상 사람들이 법을 받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세상마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법을 설하셨다. 우리들도 이를 이어받아 교화해야 할 것이다.'

가섭은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종을 치면서 게송으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여, / 만약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니 / 열반에 들지 마라."

종소리와 가섭의 게송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이르렀으므로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신통력을 얻은 제자들이 모두 가섭에게로 모였다. 가섭은 큰 소리로 말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법을 아는 제자들도 점차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부처님 법이 소멸해 갈 것이니 미래의 중생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지혜의 눈을 잃었으니 이제 어리석음으로 눈이 멀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법장의 결집이 끝나기를 기다려 그 다음에 뜻하는 대로 열반에 드십시오."

가섭이 3장을 결집하기 위해 오백 사람을 선정했는데, 아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아라한이었다. 가섭은 여름 석 달 안거 동안 결집하기로 하고 모인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번뇌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난만이 번뇌가 있으므로 가섭은 아난을 경책하며 말했다.

"여섯 가지 돌길라죄(突吉羅罪 · 몸과 입으로 지은 가벼운 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비구 250계 중 백중학법을 저지른 죄를 주로 가리키며, 또한 율장의 건도부에 규정된 비구의 임무를 게을리 한 죄 등이 포함된다.)를 범했구나. 스님들 앞에서 모두 참회하여야 한다."

아난은 이내 가르침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오른 어깨의 가사를 벗어 메고 가죽신을 벗고서 참회하는데, 가섭이 스님들 사이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끌어 밖으로 내보내면서 말했다.

"그대는 마땅히 번뇌를 다 없애야 한다. 만약 번뇌가 남아서 다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아라한들과 함께 의논했다.

"누가 율장을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 아니로두가 말했다.

"사리불은 바로 두 번째의 부처님이십니다. 교범바제도 율장을 잘 아십니다. 지금 천상의 시리사수 동산에 계시니 시자를 보내 내려오시라 하십시오."

가섭이 마음속으로 교범바제에게 말했다.



삽화 · 강병호

'번뇌를 다한 아라한들이 지금 모두 염부제에 모였습니다. 승가에 큰 불사가 있으니 지금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교범바제 역시 마음 속으로 말했다.

"저의 스승 사리불도 계시고 목련과 아난이 있지 않습니까?"

"사리불과 목련은 이미 열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난은 번뇌를 끊지 못했습니다."

교범바제가 말했다.

"우리 큰 스승께서 모두 이미 열반하셨다니, 저도 이제 내려갈 수 없습니다."이렇게 말하고는 열반에 들었다.

한편 아난은 번뇌를 끊기 위해 정진에 들었다. 여러 날 선정을 이루지 못했던 아난은 어느 날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누우려 할 때 드디어 도를 얻어 깨치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 밤에 승당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리며 가섭을 부르자 가섭이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제가 오늘밤에야 번뇌가 다하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니, 그대는 문의 자물쇠 구멍으로 들어오라."

아난이 자물쇠 구멍으로 들어가 가섭을 뵈니, 가섭은 아난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았다. 가섭이 아난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도를 얻게 하려고 한 것일 뿐이니, 그대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난이 결집에 함께 하게 됐다. 아난이 대중에게 물었다.

"누가 명료하게 율장을 모을 수 있습니까?"

"장로 우바리이십니다. 5백의 아라한 가운데서 계율을 지니기로 제일가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를 청합니다."

우바리가 교명을 받고 율장을 모았다. 아라한들이 다시 공사를 가졌다.

"누가 명료하게 교법을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 아난이 5백의 아라한 중에서 교법의 이치를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난이 교명을 받아 교법을 결집했다. (〈대지도론〉 제2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⑲



작은 관심이 시든 꽃을 살리네

지난 2011년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다. 뉴스를 접하고 '너 · 나'를 떠나 같은 인류로서 마음이 아팠다.

또한 자연의 힘이 그토록 위대한 것임을 새삼 느꼈다.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였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안타까웠다.

그런데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침착하고 질서 있는 모습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황망한 슬픔 앞에서도 주변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침착한 그들의 모습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재앙을 겪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이리라. 혹자는 그런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을 두고 슬퍼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들을 단순히 '독한 국민성'으로 쉽게 이야기해버릴 것은 아니란 생각이다.

이성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차분히 현장을 수습해 가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웃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
겉보다 속을 중시하는 세상 돼야

이라고 생각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도 서로 나누는 모습, 참을성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는 모습,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각자 솔선수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그 큰 재앙을 꿋꿋하게 버텨내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나'와 '우리'를 생각했다. 그들의 그러한 국민성이 '일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했다. 사실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세계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그들이다. 그들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팔을 굽힐 수 없을 때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지혜처럼, 힘들 때는 '타인의 힘'이 곧 서로를 지키고 세우는 힘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웃을 생각하는 일이 이어지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의 지진 사태를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가르침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같은 인류로서 박수를 보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갑상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엘 갔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긴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은 단 몇 분의 진료를 받았다. 기다리는 동안 병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군데군데 놓여있는 작은 화분들의 꽃과 식물들을 보게 됐다. 실내에서 오래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 시들어 있었다. 사람으로 치면 환자였다.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서 살아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다보니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사실 그 화분 속의 꽃들과 식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이다. 필요한 만큼의 물과 햇빛만 주면 되는 것인데, 그 작은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 화분 속의 꽃들과 식물들은 햇빛과 물이 그리워 보였다.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다. 햇빛이 그립고 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할 일이다. 작은 일이 쌓여 큰 일이 된다. 작은 관심 하나가 시들어 있는 화분과 소외된 이웃에겐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다. 콩 한쪽도 나누는 인심이 필요한 세상이다.

못난이 사과들의 시위

못난이 사과를 사왔다. 흠이 있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흠을 도려내고 나면 다른 사과들과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사과들이다. 모양이 좋은 과일이라면 응당 부처님 전에 올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사과들은 흠이 있어 부처님전에 오르지 못했다.

못난이 사과를 깎으려고 사과에 칼을 대는 순간, 못난이 사과들이 내게 말했다.

"잠시만요. 우리도 부처님전에 공양물이 되고 싶어요. 상처가 있어 예쁘지는 않지만 우리도 공양물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그 못난이 사과들을 불전에 올리지는 못했다. 그 못난이 사과들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부처님전에 공양물을 올릴 때마다 그 때 그 못난이 사과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공양물을 올린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외면당하는 경우가 우리들 삶에는 많이 있다. 요즘은 특히 겉모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모습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성형이 일반화되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기도 한다. 이제 외모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듯하다. 자신을 가꾸는 일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속'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에만 열중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겉'이 아닌 '속'을 중요시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TV출연 정담스님>

전국 시 · 군 · 면 100회 강연!
〈현 불교TV 출연 중〉

◉ 이곳저곳 가서 점을 봐도 신통치 않아 답답하신 분
◉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신 분
◉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구상주이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조상천도재로 고민하시는 분
◉ 결혼문제로 고민이신 분
◉ 가정사 어려운점, 말못하는 사연
◉ 취업이 잘되지 않으시는 분
◉ 승진, 이직을 원하시는 분
◉ 학업문제가 고민이신 분
◉ 삼재에 들어있는 분
◉ 이사, 부동산(매매) 잘 안풀리시는 분

이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 비밀, 불교척척박사, 바늘끝에도 남이 있다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전화 031)673-1087
Daum 카페 카페검색 | 치우천왕 힐링캠프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의 근본 에너지를 마음껏 쓰면서 사세요

팔정도를 바르게 실천하고 싶어요

문) 보통 불교에서는 그 실천 수행 방법으로 육바라밀과 팔정도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잘 실천함으로써 참된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 나갈 수 있을는지요.

답)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러죠? 올바르게 보는 것. 어떻게 봐야 올바르게 보는 겁니까? 이건 틀리고 이건 잘돼 있고, 이런 거 보는 게 올바로 보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느 하나를 봤을 때 뭐, 여러 사람이 만약에 구걸하는 사람을 봤다면 한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 보는 것 때문에 한 생각 하는 것도, 정사유도 동시에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는 걸로 돌아간다. 보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보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정업, 바른 행동을 하게 되지 않고 그냥 자기 본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하는데 바르게 하는 게 어떤 게 바르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건지,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그래서 '정명' 하면은 '바른 생활' 이러는데 바른 생활이 어떤 것이 바른 생활인지…. 난처하죠, 어떤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정정진, 바른 정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른 정진이 어떤 것이 바른 정진인지, 줄창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 바른 정진인지 생각하시겠죠? 정념, 바른 의식입니다. 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첫번에 정견, 보는데 벌써 정념으로 왔습니다. 보는 데서부터 이게 처음에 단추를 위에서 똑바로 끼우면 아래까지 똑바로 끼워지는데 위에서 하나를 어긋나게 끼우면 밑에까지 어긋나게 끼워지죠. 그렇듯이 이게 정념 정정,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른 의식을 하라고 했는데 바른 의식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거를 똑 잡아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의식입니다. 정정. 이건 '이름 없는 그 정에 모두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다 놓고 중심을 잡아라. 물러서지 말고 거기다 놓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 하나, 보는 거 하나 잘못해서 그 밑에까지 잘못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수좌들 다섯이서 공양을, 예전에는 공양을 구걸하러 다닐 때가 있었죠.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보니깐 또 자기 외에 구걸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곤 "넌 저렇게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나같이 생각한다." 이 나같이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 '나'라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죠. 나같이 생각한다. 또 한 사람은 있다 "게을러서 그렇다. 우리는 공부나 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저 사람네들은 공부도 하지 않는데 어째서 저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느냐.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얻으러 다니겠느냐." 하고 불쌍히 보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같이 봤다는 사람이 옳습니까, 저건 너무 가난해서, 없어서 참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건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는 게 옳습니까? 그 보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가 그렇게 뒤끝까지 잘못되게 만들죠. 그러니깐 그 보는 게 우스운 거 같지만 우스운 게 아니죠. 왜, 스님네들이 얻으러 다니거나 이러면 어떤 사람은 '땡초가 돼서 얻으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 저 공부하다가 모자라서 어쩔 수가 없어서 얻으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가다 가다 배가 고파 얻으러 들어왔다. 노비가 없어서 얻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보다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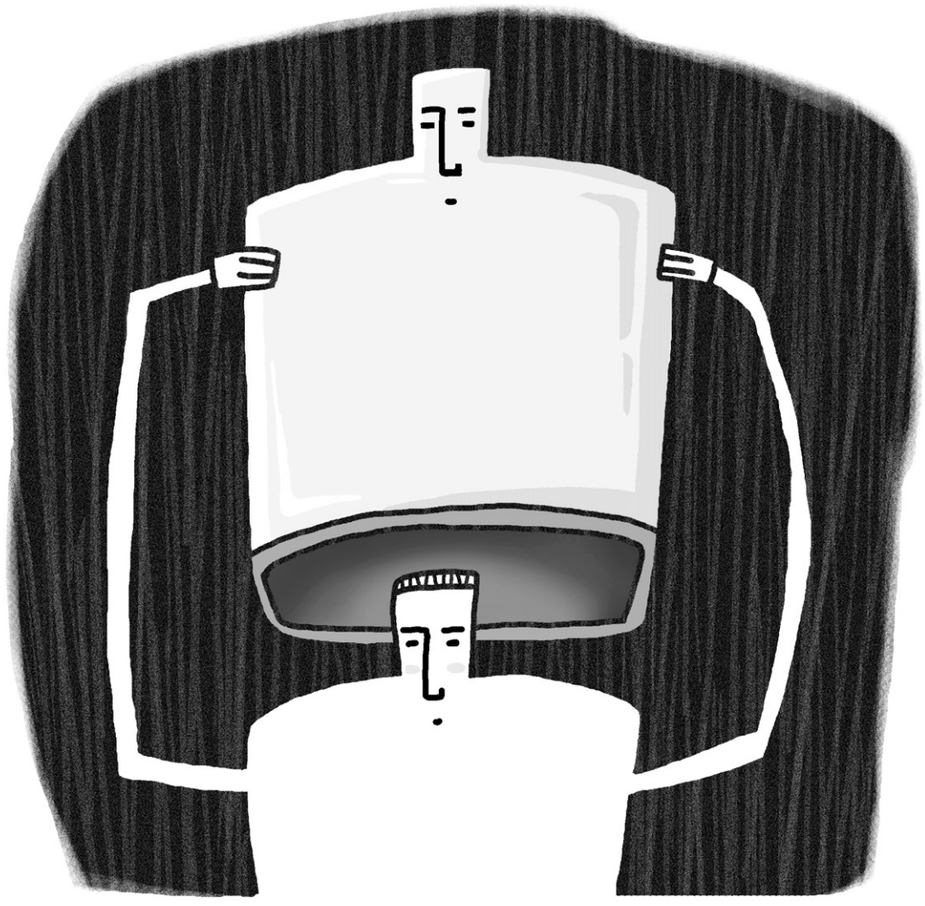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길은 어두운데 바삐 가다 보니까, 도둑놈이 바삐 뛰어가는 거하고 바빠서 사람이 뛰어가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데,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뛸까?' 하는 생각을 그냥 금방 하게 되죠. 근데 더러는 보살이 어째서 도둑이 저렇게 뛰어가는 걸 모르고 바빠서 저렇게 뛰어간다고 했느냐 이러죠, 인제. 그렇게 인정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도둑은 도둑대로 봐야 하고 바빠서 뛰는 놈은 바빠서 뛴다고 봐야 하는데 어째서 보살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거 옳지 않다고.

그러나 보살행이라는 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도둑이든 도둑이 아니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도둑은 도둑이 없어지죠. 무주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한 생각으로서, 스치기만 해도 그 무주상 보시로서 그렇게 공식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둘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아픔도 나로 생각하고 둘로 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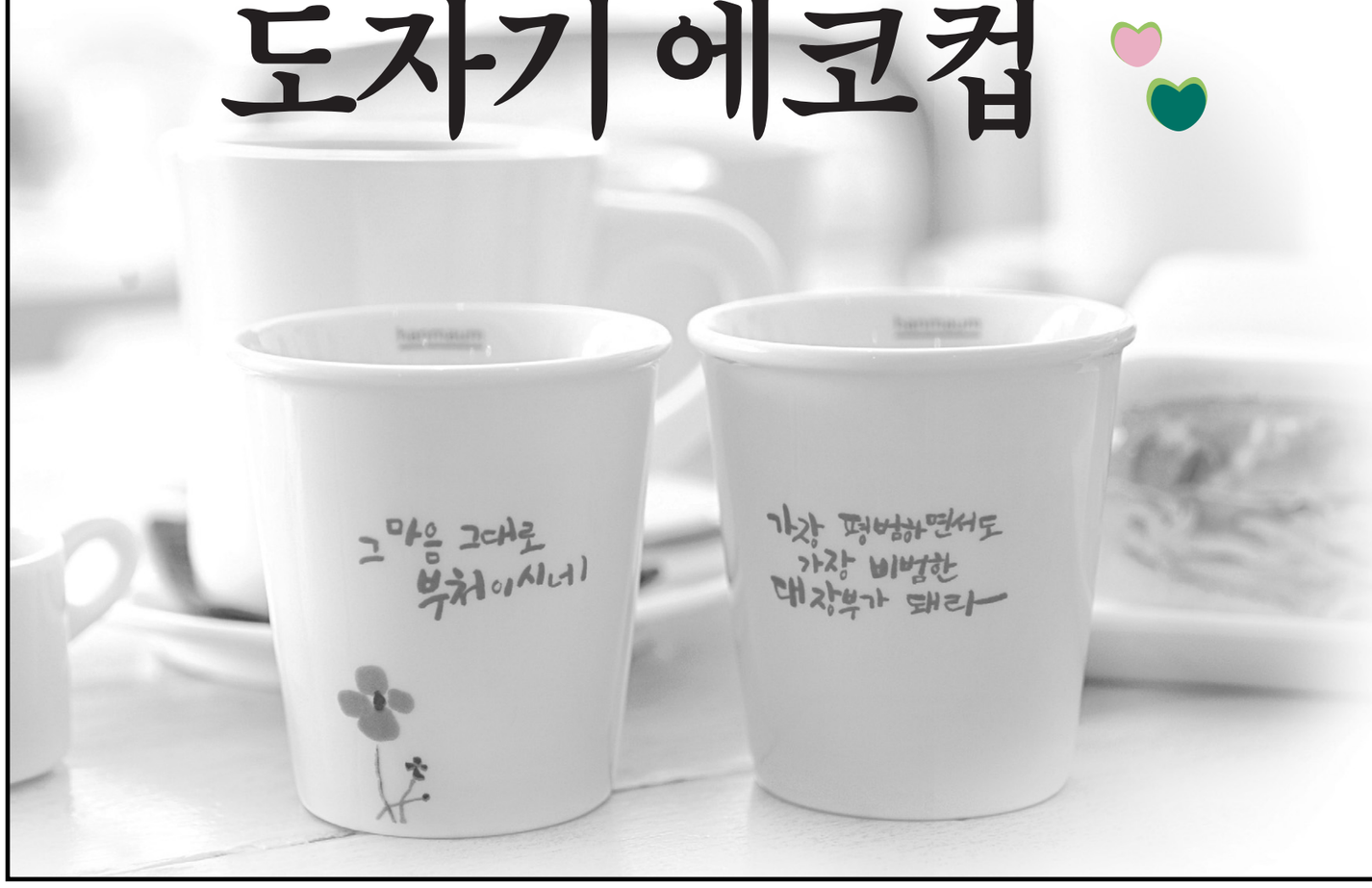
막상 둘로 본다면, 외부에서 내 몸으로 병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둘로 돼서 싸울 것이고, 또 둘로 보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도 그냥 하나가 돼 버리지 둘로 되질 않습니다.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왜 안에서 조복을 받아라 조복을 받아라 이런 뜻을 갖느냐 하면은 이 몸속에 있는 모습들도 모두 과거로부터 인연에 따라서 다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에 따라서 같이 사는데, 공생으로 사는데 그거를 공생으로 산다는 생각도 없고 또는 둘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고 또 더불어 같이 먹으니깐 내가 먹는다는 생각도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산다는 생각도 없고. 그 한생각에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로서 수없는 그 가지가지마다 아마 거기서 연결이 될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보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정진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그럭하니까 의식들도 그렇게 하죠. 나의 의식들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의식입니다. 나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행하니까 그렇게 의식도 그렇게 가질 수밖엔 없죠. 그러니까 의식들이 제가끔들 자기가 하는 대로 분수에 따라서 그냥 저지르죠. 사실은 그거를 모르니깐 어렵지만 알면은 아주 쉬운 거죠. 항상 마음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살면서 사실 생각을 해 보세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던가. 잘나도 한 철 살고 못나도 한 철 사는데 한 철 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에 따라 그 모습도 또 차원도, 삶도 모두가, 그 한생각 때문에 그렇게 차원이 벌어져요. 쭉 연결리듯. 하나 생

☞ 26면으로 계속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 인생을 뜨내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 25면에서 계속

각 잘못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이 잘못돼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추를, 아무리 모르고 끼웠어도 잘못 끼웠으면 다시 다 빼서 다 다시 뀌어야죠. 어떤 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얼마나 또 지금 많던가. 그런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저렇게들 들썩거리고 사는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던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세세생생에 자기의 근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너지도 맘대로 자기 자유껏 쓰는 게 아니라 매여서 삽니다. 하나 매여서 사니깐 줄줄이 내려가면서, 끝까지 내려가면서 매여서 사는 거죠. 하나의 보는 게, 잘못 봐서 생각도 잘못하고 말도 잘못하고, 또는 행동도 잘못하고 생활도 잘못하고, 모든 정진도 잘못하고 의식도 잘못되고, 정말 한마음 가운데다 한마음을 되놓듯이 그렇게 되놓아야 할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산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즉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조르르 앉았든 뭐가 앉았든, 자기가 못해 놓고 가든 잘해 놓고 가든, 하여튼 죽을 때 가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버려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의식화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이 되죠. 다 버리고 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뭐 남는 게 있다고 버리질 못하겠습니까. 인연도 말입니다, 짚단 모이듯이 모여서 한 식구라고 살았는데 그것도 다 버리고, 자기가 하던 거를, 자기가 살던 일생을 다 그냥 놓아 버리고, 자기 몸도 다 버리고 그렇게 스러지는 마당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아등바등해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삶에 대한 차원도, 모습도, 인연 인과도 전부 가지고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 속에 다 지니고 나오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서 사셔야지 허탕허탕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냥 밥을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뜸을 안 들이고 그냥 푸면 밥이 설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뜸을 들일 만큼 들여야만이 밥이 제대로 돼서 맛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뜨내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한 번 보는 데 생각이 동시에 거기서 벌어지는 거니까요. 생각이 잘못됨으로서 단추가 잘못 뀌어지는 것처럼 바로 말도 잘못하게 되고 생활도 잘못하게 되고, 행동도 잘못하게 되고 의식도 잘못 갖게 되고, 정진도 잘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다 한데 합쳐서, 내가 얘기하죠, 항상. 공생인 줄 알아라. 공심인줄 알아라. 공체인 줄 알아라. 공용인 줄 알아라. 또 공식으로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보살이죠. 그대로 보살행이며 그대로 보살로서 영원한 거죠. 또 보살로 돼 가지고도 그것조차도 놓아 버릴 수 있다면 그때는 그대로 자유권을 갖고 그대로 부처 아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유아독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는지요

문)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일곱 발자국을 걸으신 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셨다죠? 근데 그 '유아독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기술자라면 제각각 기술자가 계시죠?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인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기술자가 저런 기술자 노릇 하라면, 만약에 지금 의사 노릇 하라면 의사 노릇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기술잔 기술자대로 높고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게 다 높다 이 소립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것이. 이 세상 만사가 다 제각기 높으니라 한 뜻입니다. 혼자 독존이다 한 게 아닙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그저 차원대로 다 높으니라 이 뜻입니다. 저 의사더러 농사지으라고 그러면 못할 겁니다, 아마. 또 저 회사에 나가서 뭐 일하라면 못할 겁니다. 저 기술자 노릇 못할 겁니다. 그건 노냥 기술을 배워 왔기 때문에. 그래, 뱃사공은 뱃사공대로 높고, 물에서는 뱃사공이 제일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든 그 차원에서는 다 높죠.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는 다 높죠? 그래서 그 가정마다 다, 어떤 사람마다 다 높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없이 다 높다. 얕아도 높고, 높아도 높으니라. 왜냐 하면 저 나무가 얕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높은 나무가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은 게 있기 때문에 얕은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겁니다. 모두가 얕아도 높고, 그 나름대로 높고, 모두가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높다고 한 소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자꾸 돈을 빌려 달라는데…

문) 저의 집 형편도 그리 넉넉한 편도 아닌데 절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자꾸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신도들은 신도를 이용해서 빚을 내고는 떼어먹고 간다거나, 또는 또 돈을 꿔 달라고 해 가지고선 간다거나 그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집문서를 빌려서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게 자기도 못살면서 남을 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릇된 거다 이겁니다. 이건 사리가 맑아야지, 현재 법에 어긋나도 안 되고 사람의 참마음에서 어긋나도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럼 주기만 하면 좋은 건가. 줘서 되지 않을 일이라면 주지 말아야 되고 줘서 될 일이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줘라 이겁니다. 그래야 고가 아니다. 나는 이날까지 이렇게 해 왔어도, 누구를 줬어도 내가 달라고 생각을 하고 준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시주하는 거나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가져온 걸 유의하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우리 한마음 한뜻의 한 땀방울이라고요. 피라면 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참 모았어요. 내가 알기에도 빌딩을 세 개씩이나 이렇게 따로 해 놓고 부인이 셋이나 따로 있어요. 이런 스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세 몸에서 낳은 애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전부 반은 비늘이 있고 반은 비늘이 없어요. 또 반 벙어리이고 몸을 못 쓰고. 그러니 그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죠. 중노릇 하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선 나가서 돈이 많으니깐 산다고 다 옷을 벗어 버리고 나가서 사는데 그 모양인 거예요. 공부는 참 많이 해서 어디로 취직은 했으나, 취직을 해도 그 애들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신상명단에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세 몸에서 낳은 애가 여섯, 일곱인데 하나는 아예 몸을 못 쓴단 말입니다.

이러한 업보들을, 그게 하나하나가 근중한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는 게 남의 피 무서운 줄 몰라요. 남의 땀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가 잘살면 되고,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사랑하고 살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좋은 거 타고 다니면 좋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웃어요. 나는 무조건 스님네들 차 타고 다니고 고생 안 한다고 욕하지 마라 이겁니다. 닥치면 닥치는 대로 자기에 의해서 타고 다니고 그러는 것도, 못나서 집 한 칸 장만 못하는 거, 또 남의 절에 다니면서 구걸구걸 하는 것도 저 못났기 때문에, 저 공부 안 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공부를 했으면 왜 그럽니까. 공부만 하면 돌에 갖다 세워 놔도 삽니다. 그리고 남한테 이익만 줘요. 길을 인도를 잘하고. 한마디 잘못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한마디 잘못한 거를 믿고 지속된다면 그 여러분이 잘못돼 돌아가는 그 업보는 누가 다 받습니까. 그게 주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도둑질 처음에 시킨 놈이 더 죄는 중한 겁니다. 다 똑같이 죄를 받되 더 중하게 받는다.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어느 절엘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모든 데서 끄달리지 말고 모든 것을, 열 가지 백 가질 해 놨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 주인공의 모습이라고만 하세요. 모든 걸 하나도 둘로 보지 마라. 안 그러면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 수많은 거, 지금 종교뿐만 아니라 살림살이하는 것도 그렇고 참 천차만별로 살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끄달리고 인간이 고달픈 줄 아십니까? 편안한 날이 어느 날이 편안할까요? 아니, 잠시잠깐 그저 어떠한 웃음이 나서 웃는 거뿐이죠. 그 웃음이 그치고 나면 다시금 웃음이 멈춰지고서는 멍멍해지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나도 같이 항상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탄과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모두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진짜로 주인공에서 모든 일을 한다고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되는 겁니다.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데…

문) 참 자식농사가 어렵다더니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같은 배 속에서 나온 애들인데도 딸아인 제가 한마디 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아들 녀석 하나 있는 게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있는 대로 속을 썩이니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는데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한 탓일까요?

답) 우리가 일일이 내 아이들이 뭐 나가서 안 들어오네, 공부를 안 하네, 장가를 못 들었네, 시집을 못 갔네, 이렇게 뭐가 안되네 이러고 자꾸 바깥으로만 끄달린다면 그게 시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시험을 할 수도 없고요. 체험도 할 수가 없고요. 한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편과 자식과 부모 이런 사람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그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럽게 행을 해 준다면 그것이 바뀌집니다.

이 공부는 이 인간의 체질도 바꿀 수 있다는 공부입니다. 이 마음 자체는 체가 없는 거라 이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 다 할지라도 전등은 많지만 한 방에 전력은 다 똑같듯이 전력을 끌어 쓰는 거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상통하면서 작용을 해야만 사람이 살기가 편리하고 좀 자유스럽고 또 죽어도 죽은 사이가 없고 살아도 산 사이가 없고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 마음 자체는 체가 없는 거라
> 이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 한 가정이다 할지라도 전등은 많지만 한 방에 전력은 다 똑같듯이
> 전력을 끌어쓰는 것은
>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건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상통하면서 작용을 해야만이
> 삶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며
> 죽어도 죽은 사이가 없고 살아도 산 사이가 없는
> 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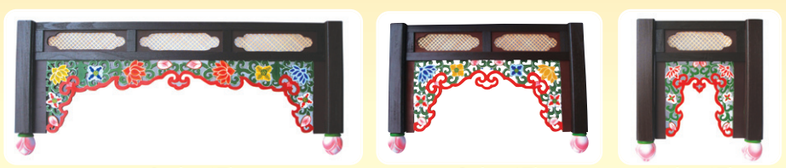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성지순례
품 격 ■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지순례 7일 – 139만원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 성지순례 4일 –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 성지순례 4일 –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석가장)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품 격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직항) 6일 – 139만원
품 격 ■스리랑카 정통성지순례(직항) 7일 – 199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
초특가 확정출발 5월22일,29일(단 2회) 양곤/바고/시리암 5일 90만원
양곤/바고/시리암(직항) 5일 – 99만원
양곤/바간/헤호 5일 – 15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16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 문의 고전 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불자세상보기

식품안정성, 건전 사회의 바로미터



황재현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최근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식탁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먹거리라고 하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외식소비를 의미한다.

이런 먹거리는 국내생산을 통해 공급되기도 하지만, 좁은 국내 농경지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해외 수입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중 해외생산 농식품의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국내산 농식품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수입산 농식품의 안전 관리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위생과 안전성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다보면 식품의 위생 안전문제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 및 위생문제를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의 생존자체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 일본에서 발생한 유끼지루시(설인)유업 집단식중독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25년에 북해도에서 창업한 유끼지루시유업은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유제품생산업체로서 10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식품전문업체였다. 그러나, 유끼지루시유업은 2000년에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건을 시작으로 원산지의 허위표기 사건까지 발생하여 결국 도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0년 6월 유끼지루시 유업 오사카공장에서 생산된 '유끼지루시 저지방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일으키며 14,780명의 소비자들이 집단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우유 제조과정에서 세균이 검출되고 위생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을 미룬 채 회사의 보호와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여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전역의 매장에서 유끼지루시사 상품의 철거와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매출과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끼지루시 유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자회사인 유끼지루시 식품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소고기로 둔갑시켜 속여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종업원 약 7,000여명, 설립 80여년의 역사를 지닌 유명 대기업이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방심과 원산지표기의 위장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유끼지루시 유업의 도산으로 인해 본사가 위치한 북해도의 지역경제 역시 심각한 타격을 보았을 뿐 아니라, 우유를 공급해온 축산농가 등 관련 경제 주체들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식품기업의 경우 위생과 안전을 토대로 한 윤리경영이념은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끼지루시 유업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4,780명의 소비자가 구토와 설사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식중독 발생 사건의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피해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식품소비 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판단력이 낮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판단력을 높임과 동시에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 통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수입, 판매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식자재 원산지표기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은 그 사회의 기업윤리와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위생과 안전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건전성과 미래성장성을 나타내는 표시라 할 수 있다.

사부대중 칼럼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나정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

최근 부산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영아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원장도 어린이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잊을 만하면 제기되는 사안들이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자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강제하기는 어렵다.

설령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육체적인 학대는 막을 수 있겠지만 심리적 학대는 막을 수 없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눈빛만으로도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CCTV가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낮은 수준의 복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원인으로 꼽겠다. 높은 수행력으로 중생을 섭수하는 수행자라면 스스로의 행복과 자존감을 찾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대부분은 범부 중생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꺾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노동 환경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열악하다. 연령에 따라 담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다르지만, 대체로 교사 1명이 한 반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 대부분 오전 7시에 시작해 12시간을 쉼 없이 근무한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한지는 오래다. 월급 역시 박봉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는다. 이를 다 맞춰가며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을 배려하는 시스템은 매우 부족하다. 이들을 한 사람의 인간, 직업인으로 인정하여, 몸과 마음을 살 필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선의 한 사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교사 중 기독교인도 있지만, 이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시간을 가진다. 교사들은 심상을 다듬고 아이들과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지 살핀다.

동국대(경주)에서도 불교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숲 명상 등 심신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아이들의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경주) 불교아동학과와 유아교육학과 및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 양성 1년 코스를 통해 보육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1년에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막상 불교계 어린이집과 인연을 맺기란 쉽지 않다. 배출되는 보육교사 상당수가 월급이 많고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을 원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숫자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보다 적은 것도 이유다. 큰 사찰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현상이 증가 추세인 것은 참으로 다행인 점이다.

최근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보육교사들 사이에 취업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들 직장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월급과 복리후생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직장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보육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무 여건이 갖춰지면 잘 다듬어진 교사의 배출과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계 어린이집부터라도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불교계는 보육교사의 심상을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교계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복지 여건이 좋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다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보육교사들이 몰릴 것이다. 이런 체제가 마련 다면 불교계 어린이집은 아이와 교사 모두에게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어린이집의 표본이 될 수 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불교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가 가장 행복한 아이들과 교사이기를 바란다.

社說

문화재 조사 · 발굴 사업에 거는 기대

최근 불교계의 문화재 조사와 발굴 사업이 활발하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전국 금석문 일제 조사 사업에 들어가고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전국 사지에 대한 시 · 발굴 조사사업을 진행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의 금석문 일제 조사는 15년 장기 프로젝트로 매년 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불사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국 산재된 금석문에 대한 기초 목록화 조사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불교중앙박물관은 금석문 사료의 중요도와 인멸가능성, 보존 상태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실 위험이 있는 금석문의 원형 탁본 자료를 채탁해 명문을 영구 보존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5월 1일 경주 미탄사지에서 정토재를 열고 사업 시작을 알린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전국사지 시 · 발굴 조사사업은 이날부터 2017년까지 전국 폐사지 중 훼손이 심각한 곳이나 역사 · 문화 · 교육 효과가 큰 곳부터 실시된다. 2013년에는 경주 미탄사와 보성 개흥사 옛 절터에 대한 시굴사업이 진행되며 서울 삼천사, 삼척 삼화사 옛 절터 등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문화재에 대한 조사?발굴 사업은 불교계의 연구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반증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불교계가 성보 문화재 관리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한 성과이기도 하다.

불교는 한국 유?무형 전통문화의 보고이다. 이에 대한 보존과 전승은 사부대중이 공히 노력해야 하는 화두이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 및 발굴사업은 성보 보존과 전승이라는 한국불교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이 같은 기초작업들이 문화재 전반의 인식 개선에 거름이 되길 바란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평화의 불' 발원

4월 19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외교부 청사 앞에서는 룸비니서 채화해 옮겨온 평화의 불을 람 바란 야다브 네팔 대통령이 직접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혜자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어 '평화의 불'은 중국의 둔황 서안 낙양 정주 등을 거쳐 인천항을 통해 배편으로 국내에 도착했다.

방한하자마자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5월 2일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안철수 국회의원, 박보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이홍구 한국적십자 총재를 비롯해 108산사 순례기도회원 등 1만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화의 불'을 이운행사를 가졌다. 행사후에는 '평화의 불'을 들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연장을 출발해 망배단까지 '평화기원 촛불행진'을 펼쳤다. 이번에 국내로 이운돼온 '룸비니 평화의 불'은 지난 1986년 당시 네팔 왕세자가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연적으로 타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과 미국 뉴욕 유엔본부서 가져온 불씨를 합쳐 룸비니에 유지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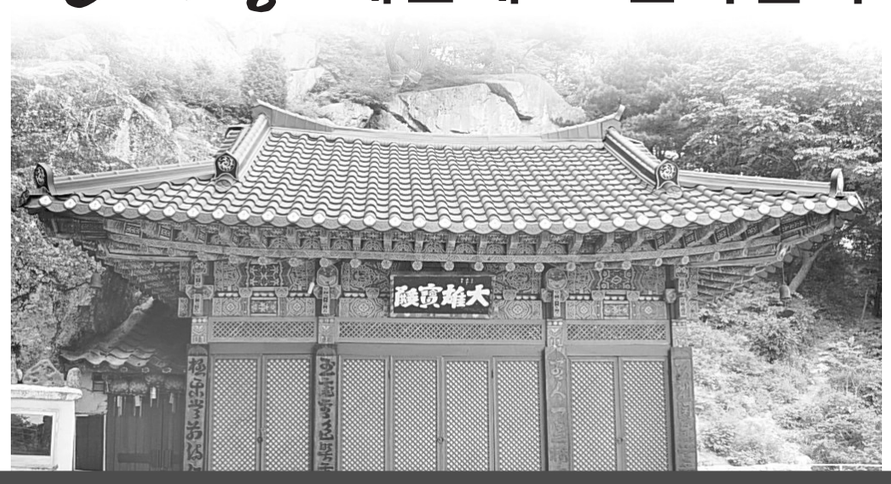
우선 어려운 고행의 길을 택해 평화의 불을 이곳 임진각까지 이운한 선묵혜자 스님의 원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스님의 발원처럼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선묵혜자 스님은 지난 2008년 5월에도 순례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전세기 편으로 네팔을 방문, 인도에서 받은 부처 진신사리를 네팔 룸비니로 옮긴 인연도 있다. 당시 이 행사를 통해 극한 대립하던 네팔 정치세력들이 한국 순례단 안전 보장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계기가 돼기도 했다. 네팔 정부는 이때 스님의 평화 공덕을 기려 국가 훈장을 수여했다.

선묵혜자 스님의 원력처럼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의 불이 북한의 신계사 성불사 보현사 등 북한사찰 순례에도 이운돼 불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한반도 화합과 평화의 불'이 되기를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묘공당妙空堂 대행선사大行禪師

1주기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

한마음선원에서는 한국 불교의 큰 스승으로서 참선의 생활화, 불교의 현대화,
불교의 세계화에 일생을 매진하셨던 묘공당 대행선사의 열반 1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도탑 제막식과 함께 노년에 주석하셨던 서산정에서
선사의 일상과 족적을 되새겨보는 사진전을 준비하였으니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과 여러 불자님들께서 두루 동참하시어
법향 가득한 자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나를 밝히는 것은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성품 중의 불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 대행선사 법어 -

1부 추모 다례재

일시 _ 2013년 5월 10일 (금) 오전 9:30~
사회 _ 정목 스님
장소 _ 한마음선원 5층 법당
내용 _ 종사 영반 (집전: 동희 스님) • 영상 법문

2부 부도탑 제막식 및 사진전

일시 _ 2013년 5월 10일 (금) 오전 11:30~
사회 _ 정목 스님
장소 _ 서산정 (본원에서 차로 10분 거리)
내용 _ 부도탑 제막 • 선법가 음성공양

사진전 좁…물방울마다 향기 내음 되고
꽃송이마다 열매 되어

문의 _ (031) 470-3100 한마음선원 종무소
※일체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주최 묘공당 대행선사 문도회 • 한마음선원 신도회

“만물만생에 자비심 뿌려라”…진리의 향기 상징

묘공당 대행 선사 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서산정에 봉안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은 대행 스님이 본격적으로 대중포교를 시작한 원천지다. 이곳에서 발화된 진리의 불씨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전국의 지원에서도 그 불씨를 퍼뜨리면서 생명을 밝히는 터전을 가꾸어 나갔다.

그러던 중 평생 중생구제에 헌신했던 대행 스님을 위해 제자들은 2009년 마음을 모아 선원 가까운 곳에 주석처를 마련했고, 대행 스님은 그곳을 ‘서산정’이라 불렀다.

서산정 중심에 부도탑 ‘묘공당 대행선사 탑’이 세워졌다.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행장을 상징하되, 탑 자체가 형상만이 아닌 무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부도탑이 만들어지기까지

주지 혜원 스님은 대행 스님 다비식 이후 스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서산정 다비터에 탑을 세우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제자들은 대행 스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마음을 모아 부도탑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대행선사 탑 조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서산정 불사와 다비장 조성에 전력해온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진행했다.

오채현 조각가가 채석(採石)을 비롯한 조각의 전체감독을 맡고, 김동철 작가는 석조각을 담당했다. 그리고 탱화작가인 전장일 화백이 탑의 디자인을 맡았으며, 서칠교 불상조각가는 전 화백이 그린 디자인을 모형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한마음선원 스님들은 다각도의 논의과정을 거쳐 주지 혜원 스님에게 점검받았다. 이때 혜원 스님은 탑의 의미를 들으면서 “가슴이 저린다”고 표현했다.

부도탑 제작팀은 항상 시대적 흐름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대행 스님의 뜻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독창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청백 스님은 “서산정 풍광과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움 속에 다비터와 조화를 이루도록 작가들과 끊임없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노력했다”고 말했다.

제작팀은 부도탑에 쓰일 석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던 끝에 지난해 말경 경주지역에서 2m 60㎝ 크기의 화강석 재질의 돌을 찾았다. 3월부터 연마와 세공 및 조각작업을 했고, 2m 30㎝ 높이의 대행선사 탑을 4월 30일 완성했다.

한마음선원은 “부도탑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행화(行化)를 상징하면서, 스승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발원을 담은 불기둥이 될 것이고, 참배하는 모든 이에게 물듦 없이 여여한 진리의 향기를 오래도록 전하게 되는 만공에 핀 연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위 · 유위법 둘 아니게 돌아

“서천이 동천을 대하니 동천은 서천을 대하더라. 만공에 꽃피어 두루 내음 피우니 만 가지 향이 두루하더라.” (대행 스님 게송)

대행선사 탑은 스님이 생전 대중에게 전한 가르침 그대로를 담고 있다. 탑모양은 둥그런 구(球)를 연꽃잎이 감싸는 형상으로 표현했다. 대행 스님의 게송처럼 둥그런 구는 만공을, 연꽃잎이 피어나는 형상은 진리의 향기를 전달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만공에 연꽃이 피어 만 가지 두루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주장자 기둥에 받쳐올려진 둥근 구가 돌아가는 모습은 무위법, 유위법이 둘 아니게 돌아가는 평등공법을 표현하고 있고, 두 장의 연꽃잎이 무위법을 상징하는 둥근 구를 감싸는 모습에서는 불이법(不二法)의 맛을 느낄 수도 있다. 또 둥근 구는 열매를 상징함으로써 꽃 피어 열매 맺으니 만 가지 맛을 내어 만 생명을 먹일 수 있다는 열반 나툼의 경지를 뜻한다.

탑은 통돌인 원석 한 덩어리 위에 조각됐다. 부동(不動)한 근본 바탕이자 한마음을 상징하는 몸체와 그 위에 새겨진 형상이 한 몸을 이루어 그 또한 둘이 아닌 도리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한마음에서 일체가 다 생산이 된다 하여 생명력이 꿈틀대는 싹으로 표현했고, 또 그 싹은 근본 자리를 깨친 뜻으로써 견성을 의미할 수 있다.

어린 싹이 오로지 주장자 한 기둥을 의지해 성숙함으로써 둘 아닌 도리를 이루어 꽃 피어나니 성불이고, 그 꽃향기 두루하여 더불어 함이 없는 보살행을 하나 열반이다.

그래서 서산정 부도탑은 그대로 대행 스님 가르침의 본질을 말해준다. 유와 법, 무의 법이 둘 아니게 돌아가는 평등공법의 가르침과 만공에 연꽃 피어, 만 가지 향이 두루해 함이 없는 보살행을 하라는 대행 스님의 부촉을 상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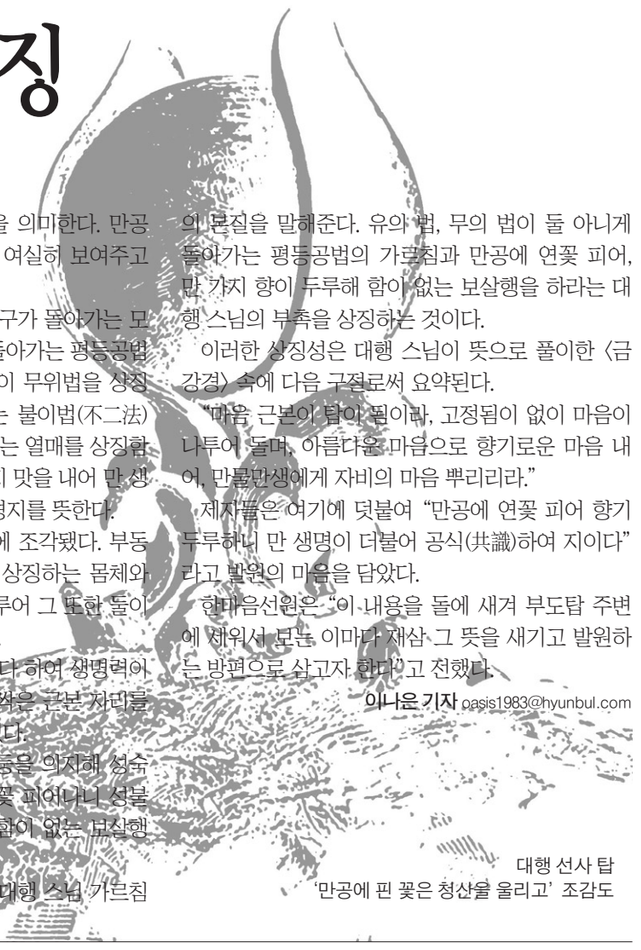
이러한 상징성은 대행 스님이 뜻으로 풀이한 〈금강경〉 속에 다음 구절로써 요약된다.

“마음 근본이 탑이 됨이라, 고정됨이 없이 마음이 나투어 돌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향기로운 마음 내어, 만물만생에게 자비의 마음 뿌리리라.”

제자들은 여기에 덧붙여 “만공에 연꽃 피어 향기 두루하니 만 생명이 더불어 공식(共識)하여 지이다”라고 발원의 마음을 담았다.

한마음선원은 “이 내용을 돌에 새겨 부도탑 주변에 세워서 보는 이마다 재삼 그 뜻을 새기고 발원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pasis1983@hyunbul.com



대행 선사 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조감도

“열반은 곧 시작”…영원한 불성 표현

대행 선사 탑 제작한 오채현 작가, 디자인 전장일 화백

“대행 스님은 가셨지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열반은 끝이 아닌 시작이거든요. 불성(佛性)의 영원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부도탑의 디자인을 맡은 전장일 화백은 15년간 한마음선원의 크고 작은 단청불사를 해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홍창원, 중요무형문화제 제118호 불화장 임석환에게 사사한 전 화백은 한마음선원 본원 목탱화 채색을 비롯해 부산 법당, 광명선원 법당 단청 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양산통도사, 청도 운문사, 수원 봉녕사 등 전통사찰 탱화 작업도 그의 손을 거쳤다. 이처럼 전통불화 전문가인 그가 부도탑 디자인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부담도 느꼈다. 평소 시대적 흐름에 앞장섰던 대행 스님의 뜻을 담는 일이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대행 스님은 혁신적인 생각으로 법당 곳곳을 장식했습니다. 안양 본원 5층 법당에 천정 평반자 끝에 비스듬히 내려온 빗반자에 모셔진 18선지식, 도량에 있는 구정탑과 칠보탑 등이 그렇죠.”

부도탑 제작의 총 책임을 맡은 청백 스님은 시대를 앞섰던 대행 스님의 뜻을 담아내도록 전장일 화백에게 주문했다. 부도탑이라는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을 자유롭게 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보통 어떤 작품을 맡게 되면 기존의 것을 참고하면서 연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도탑의 디자인을 주문 받았을 때 답습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 화백은 대행 스님이 평소 제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인 “오고감도 없지만 가고 옴도 없다. 열반은 곧 시작”을 화두처럼 새기고 밤새 탑의 모양을 고안했다.

승단 운영위원회와의 거듭된 논의를 거쳐 완성된 디자인을 불상조각가인 서칠교씨가 흙으로 반죽해 탑모형을 형상화했다. 이후 조각가 오채현씨가 탑조각의 총감독을 맡았다.

오채현 작가는 조계사, 봉은사, 월정사 등에서 개인전과 다수 그룹전을 열었다. 상도선원, 심곡암, 금륜사, 동화사 등 다수 사찰에서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바티칸에 가슴을 드러낸 성모상을 보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그의 창조성은 청백 스님의 눈에 띄었다.

1주기 추모제까지 탑을 완성해야 했지만 오 작가는 올해 초까지 돌을 구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애타게 전국 산하를 돌면서 탑에 맞는 돌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경주에서 2미터가 넘는 20여 톤 크기의 화강석을 발견했다.

“엄청난 크기의 돌로 조각했다는 것이 이번 부도탑의 특징입니다. 2미터가 넘는 큰 돌을 구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런 큰 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법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 작가는 필연적으로 만난 화강석에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행 스님을 만난 적이 없던 그였기에 스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내기란 힘든 일이었다. 때문에 그는 100% 내가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시작했다.

“이번에는 작가로서 임하던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100% 내 의지로 작품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석조에 뛰어난 최고 전문가들을 투입시켜 역량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오 작가는 김동철 조각가와 3월부터 2달여간 매일 작업을 진행했다. 생각했던 것만큼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아 중간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그때서부터 탑의 모양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만족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안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알맞는 인연이 맺어지고 일이 진행 돼 가는 것을 보고 ‘아 이래서 모두가 한마음이구나.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도탑을 제작하면서 좋은 가르침을 배웠다는 전장일 화백과 오채현 작가. 두 사람은 “대행 스님의 부도탑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행 스님과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의 생각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끌어 냈을 뿐”이라고 흡족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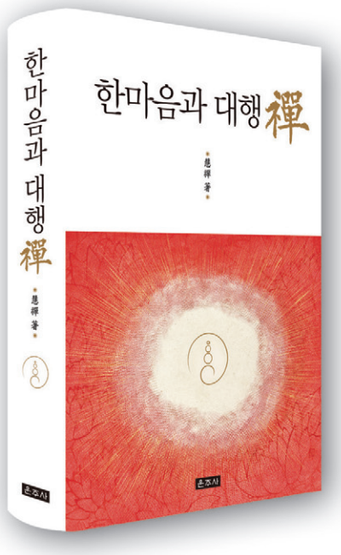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부도탑 디자인을 맡은 전장일 화백(좌)과 석조각을 맡은 오채현 조각가 사진=박재완 기자



부도탑 제작팀은 경주에서 2m 60㎝의 화강석을 찾아 2개월여 작업을 진행했다.



한마음과 대행 禪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대행 큰스님 원적 1주기 기념 출판!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각고의 고행, 치열한 수행정진,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보편화,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툼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慧禪 저/신국판양장/624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대행선사 추모글

“어느 생에선가 스승님 닮은 삶 살겠습니다”

스승님!

새벽에 눈을 떠 스텐드를 켜고 침대 머리맡에 있는 ‘허공을 걷는 길’을 손가는 대로 펼쳐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놓고 살림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병고 아니면 애고, 애고 아니면 재난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업보성이니 세균성이니 이런 문제들이 모두 덮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때때로 심심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기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모든 걸 탓하지 말고 제가끔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홀랑 벗어난다 이겁니다. 나한테 닥치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이겁니다. 놓고 가라. 거기서만이 모든 걸 들이고 내는 거니까, 모든 건 네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하고 왈칵 다 놔 버리는 거죠.”

마음을 모아 스님 법문을 읽고 있으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돌이켜 보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늘 혼자서 발버둥치면서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경계에서 스승님을 만났고, 차츰이 모든 일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저질러 놓은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나를 형성시킨 그 자리에 놓는 법을 익히면서 자신을 추스려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계를 만날 때마다 ‘모두 한 놈이다.’ 하고 하나로 굴려 놓는 법을 생활 속에서 익혀가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번 생이 괴로움도 많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것도 많지만,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생입니다. 스승님을 만났고 수억 겁 생을 살아오면서 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업식들을 다스리고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모든 것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납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무지했던 저를 이렇게 중심 잡고 설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스승님과 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임을압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 모두 부처임을 믿고 있습니다.

스승님!

아직은 서툴고 미흡하지만 제 자신이 부처임을 확연히 알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어느 생에선가 스승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승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 가슴에 살아 계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현숙(중부경남지원)

“삶은 충분히 살 만한 가치 있는 것 배웠어요”

청운의 젊은 시절에 뜻을 세우고 노력을 하였건만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물질만능의 현대를 살면서 욕구와 집착 속에서 마음을 비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지 못하고 고뇌하며, 가치관의 상실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절인연이 되어 2009년 5월에 선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인도로 스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수억겁 년 동안 나를 형성시켜 주고 이끌어 온 자성인 참나를 발견하였으며 에너지의 원천은 나의 근본인 주인공임을 알고 깊은 환희의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지난 생애를 되돌아보며 참회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성찰과 무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삶은 절대 절망이 아니고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으며 지금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콩씨를 심은 곳에 콩이 나온다는 인과의 법칙을 깨달으며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어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서 이순을 향하는 나이인 인생의 2막은 스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 지니고 살아가렵니다. 살아가야 할 앞날의 시간에서 다가오는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길을 열어주시고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성삼보에 귀의하여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나의 근본 주인공을 믿는 부동심의 마음과 불퇴전의 수행으로 끊임없이 진화되고 발전이 되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중생과 함께하여 주신 따뜻한 자비심과 사랑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합니다. 가고 옴이 없이 떠나신 스님을 보낸 비통한 마음과 더욱 더 존경하는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이 세상에 큰 가르침을 펼치는 뜻을 가집니다. 스님의 법신이 세세생생 중생들에게 등불이 되어 이끌어 주옵소서.

한마음 한 뜻으로 마음의 등불 밝히어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며 세계평화를 이루기를 합장하며 발원합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총철 이양우

“마음공부 잘해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자성삼보에 귀의하오며.

작년에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아침에 청수 올리면서 ‘스님 청수 올립니다.’ 하고 고할 때 사진 속 큰스님께서 살아생전 모습으로 빙긋이 웃어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가옵니다. 스님께서 가시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비식 뒷날 ‘스님께서 가셨어도 바로 이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법문에 ‘이승과 저승은 문지방 하나 차이다. 저승이 멀다 해도 문지방 넘어다.’ 하시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습을 갖고 있으면 이승이요, 모습을 벗으면 저승이요, 저승과 이승은 다 이 한세상이구나. 스님께서 가셨어도 이 자리 이 세상에 함께 하고 있구나! 모습만 없을 뿐 함께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법성게에 ‘깨친 지혜로 알 일일뿐 다른 경계로 알 수 없네.’ 했듯이, 통로는 오로지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내 근본, 주인공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어나는 의식에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도 해서 열심히 못했습니다.

올해는 마음공부 잘해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님! 스님 덕분에 살아 있고 이 공부할 수 있고 이 길을 갈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이런 마음을 내게 됩니다. ‘모든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한뜻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며, 저희들의 공부가 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도록 세세생생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

스님, 은혜 보답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스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교 올림 (중부경남지원)

“한마음 인생살이에는 ‘苦’가 없다”



“냇물이 흘러서 언젠가는 바다에 이르듯 누구든지 언젠가는 성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신 대행 스님은 대중에게 언제나 당당하게 살라고 설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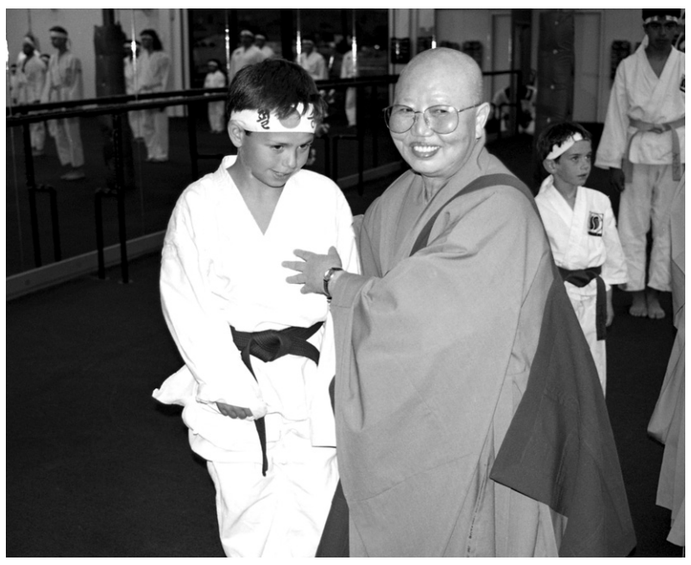


1996년 9월 15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대행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서울 대법회가 열렸다.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는 주제로 열린 대법회에는 3만여 청중이 참관했다.

“부디 공부 열심히 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한마음으로 이어져
부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행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국태민안과 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열었다.



대행 스님이 미국 롱아일랜드 한일 태권도장 법회 후 미국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날짜미상)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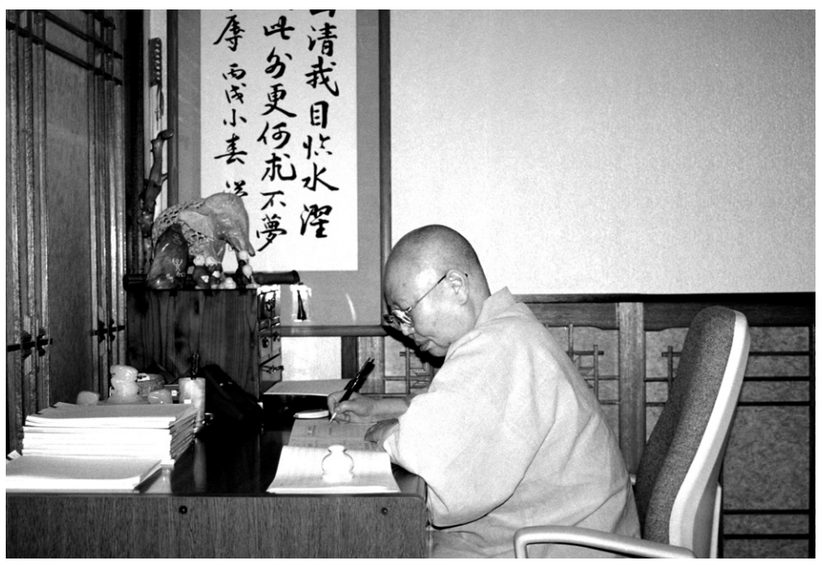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택배비 별도)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1995년 대법회에서 정좌하고 계신 대행 스님.



원당(구) 선실에서의 대행 스님 일상 모습. (날짜미상)

추모 인터뷰

"가르침 대로 살겠습니다"

스님이 내린 게송, 고비마다 버팀목

류종열 前 한국 바스프 대표이사



류종열(74) 거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기아자동차(주) 및 아시아자동차(주) 법정관리인 및 회장, 그리고 한국바스프(주) 대표이사 등 유수의 기업을 이끌어 온 사회 리더다.

그가 대행 스님을 만난 것은 1988년 일이다. 이웃의 소개로 스님을 만난 류 거사는 보는 순간 스님이 너무 좋았다. 당시 대행 스님은 류 거사에게 지병에 대해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

"제가 당시 피부염을 앓고 있었어요. 가려워서 밤중에도 몸을 긁으면서 잤죠. 그런데 스님께서 신경성피부염이라며 민간요법의 처방을 알려 주셨는데 정말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류 거사와 스님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고, 그는 한마음선원 신도로서 열심히 신행활동을 했다. 그러다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로 있을 때 그에게 큰 난관이 왔다. 노사간 의견을 조정하는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사가 서로 요구하는 바가 너무 달랐어요. 사측은 저에게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임금을 주라고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노측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난감했죠. 그래서 결국 답답한 마음에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께서는 저에게 게송을 내려주셨어요."

천적(天寂)의/ 산하대지가 고요한데/ 내 마음은 물결 따라 / 끊임없이/ 돌아흐르고/ 류박사의/ 한방울의 마음을/ 음악에 실어 전하니/ 내 눈에 이슬 맺혀/ 한없이 뿌리며/ 한 그릇의 용탕 끓여/ 밥상 위에 얹었더니/ 일체만생/ 다같이 먹자하여/ 만물만생/다 먹고도/ 류박사 밥상 위에/ 그 한 그릇/ 되 남았노라.

"그렇게 게송을 받고 현장으로 가니 이상하리만큼 모든 일들이 잘 풀렸어요. 노조 간부들이 회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며 염소탕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일이 스님이 축복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노트를 복사해 코팅을 해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대행 스님은 류 거사에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버팀목이 돼 주었다.

"지금도 계속 마음에 남는 건 스님 생전 마지막에 제가 친견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되네요. 늘 스님이 그립습니다. 앞으로 스님의 뜻을 잇는 많은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스님 사진에 매일 108배… 법향 그리워

김재진 시인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등 감성적 시들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김재진 시인. 명상 인터넷방송 유나방송 PD로도 잘 알려진 그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삶의 전환을 이뤘다. 그 만큼 스님의 1주기가 깊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스님은 가셨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계시지요. 그래도 스님을 친견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법의 향기를 어렴풋이나마 간직하게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생이 행운이며 기회였구나 하는 마음으로 1주기를 맞습니다."

김 시인의 작업 공간에는 대행 스님의 사진이 놓여 있다. 스님과의 인연을 맺은 후 삶의 고비마다 스님을 떠올리며 기도를 해왔다. 특히 스님의 열반 전후로 찾아온 고비에도 스님의 사진을 향해 매일 108배와 기도를 시작했다. 이 원력으로 김 시인은 삶의 고비를 무사히 벗어났다.

처음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에도 김 시인은 부침을 겪고 있었다. 잘 나가는 방송국 PD를 그만두고 낭인처럼 떠돌던 시절, 차 안 구석에 있던 대행 스님의 법문 카세트 테이프를 짚어 재생시켰다. 김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법문을 듣는 순간 뭔가 굉장한 폭발음을 내며 의식이 폭발하는 듯"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우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지요.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던 많은 것들이 나와 타인이 함께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니 자연스럽게 시 세계도 달라졌다. 단순히 언어유희가 아닌 삶을 직관적으로 반추하는 시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마음의 문을 크게 열어젖혔던 스님의 영향은 제가 쓰는 시를 단순하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언어의 유희에 재미들인 알쏭달쏭한 시가 아니라 언어를 떠나 직관적으로 오감에 내리꽂히는 시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할 곳이 없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남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김 시인. 그는 입으로 말하는 진리가 아닌 행동으로 불법(佛法)을 실천하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고, 1주기를 맞는 제자의 자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입으로 진리를 말하기 전에 마음에 그 뜻을 새기고, 마음에 새긴 그 뜻이 행동으로 옮겨져 세상에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신중일 기자**

'내안의 주인공' 가르침, 항상 되새겨

이화행 동명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1997년 독일에 한마음선원 지원이 설립됐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사찰에 나갔습니다. 당시 처음 뵌 대행 스님은 저와 저희 가족의 독일 생활에 큰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대행 스님과의 인연 덕분입니다."

현재 부산지원 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화행 동명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이 교수는 큰 스님 1주기를 맞아 독일 유학 당시 대행 스님과의 인연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처음 뵈었을 때 스님이 '마음을 편히 가지면 모든 일이 잘 될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당시 개원기념 법문을 듣고 받은 느낌은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내 내면을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독일지원을 처음 찾은 이후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법회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됐다. 가족이 있었지만 한국인이 적었던 독일 사회에서 지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격려는 그에게 큰 힘이 됐다.

"당시 유학을 하고 있던 젊은 부부 5쌍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독일에서 사는 도시가 각각 달랐지만 정기법회를 기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갖고 법회 후 저녁마다 밤을 새워가며 신행담과 독일 생활, 그리고 학문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 덕분에 학업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도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

이 교수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나를 지키는 주인공이 있다.'는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산다"며 "큰 스님의 육신은 떠나셨으니 우리들 마음에 항시 같이 있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눈시울을 적셨다. **노덕현 기자**

뜻으로 푼 〈반야심경〉 읽고 발심

이예은 〈한마음저널〉 홍보담당



이예은 보살(46)은 현재 한마음저널 웹홍보 담당을 맡고 있다. 한때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 헤맨 적도 있었다. 그러다 어느날 울면서 차를 달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바로 한마음선원 앞이었다. 이 보살은 어르신들이 앉아 좌선을 하는 광경에 사로잡혀 법당에 앉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뜻으로 푼 천수경〉 〈뜻으로 푼 반야심경〉을 읽기 시작했다. 구절구절이 와 닿았다. 2005년 가을의 일이었다.

이 보살은 그때부터 한마음선원 신도가 됐다. 대행 스님 말씀을 비디오 법문으로 들었지만 법문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다. 그렇게 그녀는 마음공부를 시작했다.

"그때까지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선원에 오고부터는 서원을 세우고 108배를 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알았죠. 내 마음이 상대를 분별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제 원망 미움의 마음이 스르륵 녹았어요."

이후 이예은 보살의 가족은 원만해졌다. 모두가 행복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젊은 시절 피디가 꿈이었던 이 보살은 영상제작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서 직업도 생겼다. 영화 촬영 작업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주중에는 영화 촬영을 하고 주말에는 선원에 나가 영상 봉사를 했다. 너무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마음저널 팀에서 영상 일을 맡아줄 수 없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저는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인생을 구원받은 것처럼 스님의 법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값 11,000원 (택배비 별도)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경구풀이 아닌 禪의 도리로 해석

"반야심경 독송할 때 감응 마음공부 차원 높아져야"

26년전 한글로 쉽게 풀어 경전의 바른 이해 펼쳐

불교 모든 경전 가운데 핵심이라 불리는 〈반야심경〉. 한국의 불자들이 의식 때마다 빼놓지 않고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중국의 현장(600~664)법사가 번역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의 약칭으로 대반야 600부를 260자를 함축한 것이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어려운 한문으로 돼 있어 독송을 하면서도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불교계에서 한문 예불 의식문 번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대행 스님은 경전의 한글화를 통해 자성을 믿고 생활 속에서 깨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행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가로 꿰고 세로 꿴다 하더라도 한번 실천만은 못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실천궁행하는 것을 가르쳤지, 말을 배우라고 한 것은 아니다. 한문 용어도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이해가 가고 마음에 감응이 되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체 이 마음 한군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경구해석을 해도 반드시 내면으로 귀결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행 스님은 불자들이 예불 때 봉독하는 〈반야심경〉과 〈천수경〉의 뜻을 내면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내용으로 새롭게 뜻풀이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1980년대 초부터 〈반야심경〉과 〈천수경〉 뜻풀이에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것은 글자풀이가 아니라 묘한 선(禪)의 도리에 의해 풀어놓은 것이다.



"뜻으로 풀이한 경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대행 스님이 1980년대 초부터 〈반야심경〉과 〈천수경〉 뜻풀이 하는 것을 본 한 신도가 "왜 힘든 일을 굳이 하시느냐"고 여쭸다. 스님이 "지구를 이대로 두면 얼마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얼른 세계로 나아가야만 하고, 이걸 본 사람들의 차원이 높아져서 지구를 구할 인연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980년대 초반, 한마음선원 사무장을 맡은 故 이재형 거사는 대행 스님의 지시로 틈나는 대로 선실로 올라가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읽어 드렸다. 스님이 그 뜻을 새롭게 해석해 내려주면 이 거사가 해석을 받아 꼼꼼히 정리했다. 그런 다음, 스님에게 거듭 묻고 정리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 스님의 마지막 허락을 받고 비로소 대중에게 1987년 〈뜻으로 푼 반야심경〉과 〈뜻으로 푼 천수경〉을 보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마음선원의 스님과 재가자는 물론 어린이까지 1980년대부터 〈뜻으로 푼 반야심경〉과 〈뜻으로 푼 천수경〉을 독송해왔다.

또한 1990년대에는 〈뜻으로 푼 금강경〉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 후 대행 스님은 〈화엄경〉 뜻풀이를 위해 오랜 시간 작업하느라 다리가 많이 쇠약해지기도 했다. 〈화엄경〉은 70%정도 풀이 됐다.

조계종은 의식문 한글화 작업을 하면서 2011년부터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내놓았다.

자신의 마음을 깨치는 수행의 길잡이

대행 스님은 수행방법 역시 현대에 맞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생활에서 좌선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한글 경전은 불자들에게 예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치는 수행의 길잡이가 돼 주고 있다. 스님은 평소 법문에서 한글 경전의 의미를 설명하곤 했다.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세 가지 네 가지로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아마 전부 다른 말이 나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부처님 법이란 부처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있어서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이 다 부처님인데 어느 한 사람만 지적해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라는 얘깁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뜻으로 푼 반야심경〉이나 〈뜻으로 푼 천수경〉을 외울 때 그 뜻이 여러분의 생활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무(無)의 법과 유(有)의 법을 함께 하면서 여여하게, 찰나찰나 한 발 한 발 떼어 놓으면서 가고 옴이 없는 그 법을 지금 외우면서 또 배우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1988년 11월 27일 법문에서)

"여기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뜻으로 풀이해 놓은 것은, 여러분을 마음공부를 시키려면 그것도 전부 개선을 해서 뒤집어 놔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 당대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경전이 수없이 나오다 보니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복으로 자꾸 자꾸 글자 풀이만 해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93년 9월 5일 법문에서)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은 외국인에게도 반향을 일으켰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태권도 도장에서 설법하실 때 미국인 수련생들이 〈뜻으로 푼 반야심경〉을 독송 했는데, 당시 미국인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느낀바 있어 그 후 각자의 체험담을 적어 스님께 봉정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

두루 차고 깊은 지혜 한마음은 밝았으니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재로이
행하시는 한마음이
죽은 세상 산 세상 한데 비추어 보시니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苦)의 길을 걷나니라.

사리자여,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곧 한마음으로
좇아 있나니라.

느끼는 생각과 행하는 의식도
또한 둘이 아니어서 이와 같나니라.

사리자여,
우주 생명과 모습은 본래 생겨났다
없어졌다 함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이런 고로 고정됨이 없는 차원의 물질도
둘이 아닌 까닭에 없나니
감각 · 지각 · 의지적 행동 · 인식작용도
따로 없느니라.
눈 · 귀 · 코 · 혀 · 몸 · 뜻도
따로 고정됨이 없으며
형상 · 소리 · 냄새 · 맛 · 감촉 · 법도
따로 고정됨이 없으며
보이는 세계와 의식 세계까지도
따로 고정됨이 없느니라.

죽지 않는 것도 죽는 것도
또한 둘이 아닌 고로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느니라.
온갖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없으므로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으니
없는 까닭은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화(化)하여 찰나 찰나 나투는 까닭이니라.

자유인의 한마음은
깊은 무(無)의 세계에 회전하며
일체 걸림이 없느니라.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꿈 같은 생각을 떠나서
본래부터 영원한 밝음의 구경에 이르렀나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마음 자리를 깨달아
가장 높고 밝은 지혜를 얻어
생사를 초월하고 자유 자재의 경지를
성취하셨나니
마땅히 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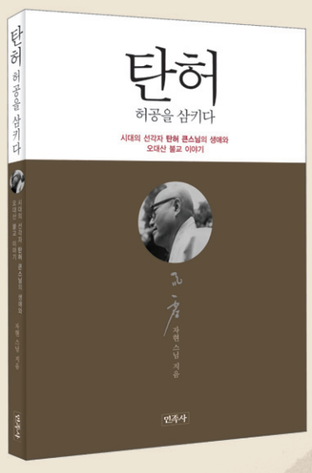
깊은 미지의 지혜로운 한마음이야말로
가장 신비하고
가장 밝고
가장 높고
가장 당당한
위 없는 심경이므로
이 깊은 미지의 주문은 진실하여
허망치 않음을 알라.
일체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이에
깊은 한마음을 깨닫는 주문을 설하노니,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어서 어서 벗어나세
우리 함께 벗어나세
이승 저승 없는 마음
어서 어서 벗어나세
한마음의 깨달음은
그대로 여여하게 밝았으니
"우리 함께 어서 어서 벗어나세" (세번)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 亦無得
以無所得故 菩提薩타 依般若波羅蜜多故 心無罣碍 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蜜多故 得阿뇩多羅三먁三菩提
故知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除一切苦 眞實不虛
故說 般若波羅蜜多呪 即說呪曰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娑婆訶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娑婆訶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娑婆訶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씻기지 않는 이름 탄허,
그리고 탄허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고,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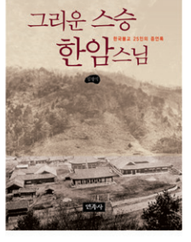
탄허, 허공을 삼키다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자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5월 17일 오전 11시 부처님 오신날 특집 다큐
〈탄허, 화엄의 길〉 KBS1 TV 방영 예정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한국불교의 자존심
한암 큰스님

한암 스님은 27년간 동구불출하면서 수행에 임했으며, 계율에 철저하고 승가화합과 대중화합에 투철한 올곧은 수행자였다. 자신의 몸을 던져 상원사를 수호하였으며, 좌탈입망으로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었던 한국불교의 자존심이다.



이 책은 한암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일화집이다. 생전에 주석하셨던 오대산 월정사를 중심으로 수집한 스님의 행적과 자료,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스님과 재가자 25명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한암 스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한국불교 25인의 증언록
김광식 지음 / 412쪽 / 15,000원 / 양장(신국판)